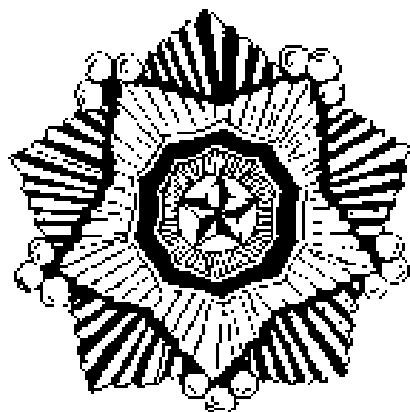


7

주체 94 (2005)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94(2005)년 제7호

(루계 제 693 호)

차 례

천만년 세월이 가도	4
공격	5
진기한 금방울	15
주체문학의 대강	18
푸르허의 《머슴》	18
《일행천리》 계산법	19
불빛밝은 만수대	19
동갑이	20
대학현판앞에서	21
얼음덮인 하산포여울목	21
어머님은 서계셨더라	22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10년세월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시적화폭	23
력사의 새벽길에 올린 노래	27
빛	29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 1 부)이 다시 나오기까지	36
두만강의 노래	37
존 크리디	37
주체의 붉은 노을 누리에 펼쳐온 대동강의 해맞이 송가	38

말발굽소리	40
구성의 기교와 작품의 특색.....	41
금수산기념궁전 외랑에서.....	44
빨찌산식으로	44
어머님은 오늘도 신갈파에 계시여라.....	45
동지.....	46
장군님의 전선일과	46
나의 집 창가에서	47
전승기념탑 문어구에서(외 2 편).....	48
우리의 밤.....	48
전시가요.....	49
탄창은 못속여 (외 1 편).....	50
전우의 탄알쌈지	50
막장의 가을	50
복수자들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시.....	51
그들은 나의 부모였다	52
보답의 길	59
7 월의 웨침	64
옛 화약창고앞에서	65
탄광마을 풍경	66
기다린 마음.....	67
병사들의 자각.....	68
푸른 책상 작은 결상	69
소쩍새우는 밤.....	70
을파소.....	72
표창.....	74
현대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버너도 쇼우.....	79
유모아.....	79
경구, 격언	79
장편소설 《봉쇄》	80

천만년 세월이 가도

김창호

천만년 세월이 가도
변함이 없으리
태양이 불멸하듯
수령님 우러러 터치는
인민의 부름
-우리 수령님

아이들도 어른들도
노래처럼 안고 살아라
낮에도 밤에도
가슴속에 차고 넘치는
친근한 부름
-우리 수령님

행복해도 어려워도
먼저 불러라
한가정 어버이런듯
너도나도 스스럼없이 부르며 사는
아, 우리 수령님!

용해장에 가면
보안경 드신채 쇠물이 익기를 기다렸다고
벌에 가면
홑불을 드신채 저수지 자리를 잡아주셨다고
목메이는 이야기속에
그 부름 울리고

최전연초소
파도 사나운 외진 섬에도
사랑의 전설속에 그 부름 있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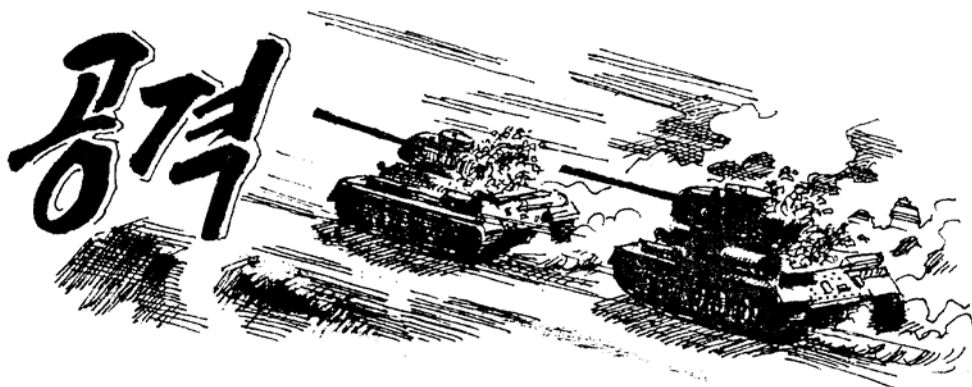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바쳐온 위대한 한평생은
나뭇기는 기발처럼 빛발치여라

푸른 하늘 아름다운 산천을 보아도
애국으로 열렬한 태양의 미소속에
정답게 울려라
창조의 기념비 그 어디에도
수령님의 뜻 수령님의 숨결 어려
그 부름 새겨지나니

넋을 주시였어라
심장을 주시였어라
세월의 한끝까지 인민을 안고 가시며
언제나 인민의 아버지가 되시여
인민의 마음속 첫자리에 계시는
우리 수령님

그로 하여 인민은
정녕 목청다해 부르는것 아니던가
철따라 세월따라
사람마다 일터마다
수령님이야기로 목소리 합치고
수령님부름으로 해와 달을 떠올리여라

이렇게 수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영생하시여라
노래로 부르고 이야기로 전하며
우리 수령님!-
그 부름속에 무궁토록 함께 계시여라



1

총참모부 작전실에는 엄숙한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미제침략군의 불의의 전면적침공이 시작된 때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던 군용전화종소리도 뜨음해졌다.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 공화국경비대원들이 조국의 신성한 령토와 인민들의 평화적인 생활을 수호하기 위하여 한치의 땅을 두고도 치열한 방어전을 벌리고있는것이다.

묵직한 진회색차광막을 드리운 창문밖으로 청신한 새벽빛이 흘러들어 심중한 낮빛으로 앉거나 서있는 인민군지휘성원들의 얼굴을 청동빛으로 물들였다.

그들은 방금 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와 내각비상회의를 지도하고 오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기다리는중이었다.

류경수는 뒤집을 지고 초조한 낮빛으로 출입문 쪽을 바라보았다.

전쟁이 일어난 소식을 병원에서 듣고 만사를 제쳐놓은채 급히 여기로 달려온 그였다. 전연가 사이에 주둔하고있는 자기가 속한 사단으로 마음은 조급하게 줄곧 달음치고있었지만 이 준엄한 시각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잠시라도 만나 뵈고싶은 념원은 그보다 더 큰것이였다.

다들 말이 없었다. 류경수에게는 이 숨막힐듯한 침묵이 이상하게도 신경을 예리하게 자극하는 것 같았다.

별안간 복도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류경수는 가슴속에 짜릿해지는 흥분을 느꼈다. 류경수는 급히 옷매무시를 가다듬으며 일군들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출입문이 열리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김책, 김일, 강건을 비롯한 지휘성원들과 함께 작전실에 들어서시였다.

류경수는 갑자기 흐린 하늘이 들리면서 태양빛이 온 방안에 쏟아져드는듯 한 류다른 신비한 변화를 분명히 감촉했다.

《미제침략자들이 끝내 전쟁을 일으켰단 말이지.

박 윤

우리 조선사람들을 잘못 알고 덤벼들었던 말이요! 허허허!》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령들의 인사에 답례하시며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그 청청하고 배포유한 웃음소리에 류경수는 마음이 든든해지고 저도 모르게 안정감이 찾아오는것을 느꼈다.

《왜 다들 그리 긴장한 얼굴들입니까?》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심과 믿음이 넘치는 시선으로 군지휘성원들을 둘러보시다가 뒤줄에 서있는 류경수를 알아보시였다.

《류경수동무도 왔구만. 그래 경수동무, 우리가 싸움을 한두해했다고 이런 일에 놀라겠소? 백두산에서 일제백만관동군과 맞서 싸운 우리가 아니요! 어디 류경수동무의 대답을 들어보지요.》

《장군님, 저는 든든한 마음으로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만 기다리고있습니다.》

류경수는 침착하게 대답드리였다.

어째서인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류경수의 수척한 얼굴과 다소 부자연스러운 몸가짐을 유심히 살피보시는것이였다. 이 순간 그는 온몸이 그저 아버지앞에 선 아들처럼 허물없고 따뜻한 친근감에 휩싸이는것을 느꼈다.

류경수는 백두산시절처럼 늘 그이앞에 마주서면 환하고 건강하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광에 빛발치는 그 담력과 영웅호걸다운 인격에 눈이 부시는것이였다.

창밖 어디선가 둔중한 폭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폭음을 짓누르기라도 하듯 아침달리기를 하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소란스럽게 들려왔다. 폭음과 아이들의 웃음소리, 류경수는 뜻깊은 생각을 톰으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경건히 우러렸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사색이 깊은 시선으로 강건을 바라보시였다.

《총참모장동무, 전선형편이 어땠소?》

강건이 침착한 자세로 조용히 말씀올렸다.

《놈들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 전선에서 공격을 확대하고있습니다. 지금 전선에서는 우리 경비대병사들이 완강하게 방어하

고있지만 벌써 일정한 지역이 점령당했습니다. 그리고 미제침략군 공군도 작전을 개시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강건의 보고를 들으시며 작전지도가 걸려있는 벽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가시었다.

그이께서는 온 조선땅을 한품에 그리안으실듯 작전지도를 이윽도록 바라보시며 잠시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하지만 이 순간 조국과 민족의 운명이 결정될 중대한 사색이 천으로, 만으로 그이의 심중에서 펼쳐지고 집대성되고있음을 모든 사람들은 절감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장령들쪽으로 천천히 돌아서시었다.

그이의 눈길에 단호하고도 심원한 기운이 섬광처럼 연뜻 비끼었다.

《아닙니다! 미친개는 몽둥이로 때려눕혀야 합니다. 동무들! 방어가 아니라 전 전선에서 즉시 일제히 반공격으로 넘어갑시다! 나는 우리 군인들과 우리 인민의 애국주의를 굳게 믿습니다. 미제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은 신성한 우리 조국땅을 감히 침범했소. 우리는 이 정의의 전쟁을 남녘땅을 해방하는 통일전쟁으로 전환시킵시다. 나의 정신은 공격정신입니다!》

쿵! 무엇인가 거대한 해일같은것이 밀려와 창공에 솟구치는것 같았다. 류경수는 금시 안개가 확 가셔진 가없는 들판에 나선것처럼 장쾌하고 환희로운 격동을 느끼며 환성을 지르고싶은 심정이었다.

(오직 우리 장군님께서만 하실수 있는 결단이다! 아니 사랑, 민족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다! 반공격! 얼마나 대담하고 통쾌한 결심인가! 대용단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직접 무어주시고 키워주신 우리의 탱크부대는 오직 그이의 공격명령을 관철하기 위해 전진하는 철의 무한궤도인것이다.…)

류경수는 생활에서 인간이 자기의 신념을 가지는것의 그 거대한 정신적의미를 군복을 입고 흘러보낸 오랜 인생행로에서 오늘처럼 뜨겁게 현실적으로 느껴보기가 처음인것 같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처음 만나뵈고 《어린 혁명가》라는 칭호를 받던 소왕청 마촌의 유격대병실에서, 뜻하지 않게 《민생단》으로 몰려 언 가슴을 쥐어뜯다가 그이의 사랑과 믿음으로 재생의 은정을 받아안던 미혼진에서, 혁명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 불태우던 지양개의 수림속에서 사령관동지를 삶의 전부로, 자신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으로 받아들이던 전사의 신념은 거목의 뿌리처럼 심장에, 아니 온 넋에 심어진것이다.

《강건동무, 지휘성원들에게 전선정황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말씀에 강건이 작전대앞으로 다가갔다. 그는 장령들을 쭉 둘러보고 나서 힘있는 목소리로 운을 뗐다.

《지금 적들은 해주, 금천, 철원 등 여러 방향들

에서 38도선 이북으로 1~2키로미터 쳐들어왔습니다. 전선서부의 웅진-토성일대에서는 1전투사령부소속 부대들이 2개 제대의 작전대형을 편성하고 포병화력의 지원밑에 침공해왔고 전선동부에서는 6사와 8사가 춘천-화천... 서립-양양방향으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의정부를 지나 철원방향으로는 작전적예비대인 2보병사단의 선두부대가 기동하고 5보병사단이 이동준비를 갖추고있습니다. 미제침략자들은 단숨에 아군방어진지를 돌파하고 평양-원산계선을 점령하며 급속히 압록강, 두만강지역까지 진출함으로써 손쉽게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고 전 조선을 점령하려 시도하고있습니다.…》

지휘성원들은 강건의 정황보고가 끝나자 한결같이 심각한 시선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려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지시봉을 드시고 벽을 반타마 가리운 작전지도앞으로 천천히 다가가시었다.

그이의 안광에 단호한 결심이 어리시었다.

《적들의 침략책동에 우리는 정의의 해방전쟁으로 대답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전략계획은 미제의 대병력이 동원되기 전에 리승만파괴군대와 이미 우리 강토에 침입한 미제침략군을 짧은 기간에 소탕하고 인민군대가 부산, 마산, 목포, 려수, 남해계선까지 진출하여 우리의 무력을 전국각지에 기동성있게 배치함으로써 미제의 증원부대가 상륙하지 못하도록 하는것입니다. 그러자면 공격속도를 조금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붉은색연필을 힘있게 드시고 작전지도우에 주타격방향과 보조타격방향을 정해주시었다.

류경수는 흥분된 가슴을 진정하지 못하며 작전지도를 지켜보고있었다. 류경수가 지휘하는 탱크련합부대가 그 주타격방향에서 진격하게 된것이었다. 그의 가슴은 터질듯 한 공지와 기쁨으로 달아올랐다. 금시 그의 눈앞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날리는 남녘의 도시들과 푸른물 출렁이는 다도해의 풍경이 보이는데 하였다.

《우리는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우선 인민군련합부대들로 하여금 금천-구화리, 련천-철원, 화천-양구일대에 강력한 타격력량을 조성하며 적의 기본집단을 38도선계선과 서울지구에서 포위섬멸함으로써 적의 전략적중심으로 진출하는데 결정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과학적인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적아간의 력량관계와 적행동의 특성에 대한 분석에 기초하여 승리의 진격로를 밝혀주시는 위대한 군사전략가의 그 빛나는 예지, 강철의 의지가 이 순간 인민군지휘관들에게 크나큰 힘과 자부심을 안겨주는 것이었다.

창밖, 무성한 나무잎새사이로 아침해빛이 작전실안으로 비쳐들고있었다.

류경수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뒤를 따라 총참모부 작전실을 나섰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손을 허리

에 없으시고 잠시 여름날의 아침풍경을 부감하시더니 류경수에게로 돌아서시였다.

《경수동무, 그래 수술자리가 어떻소?》

류경수는 주춤거리며 말을 더듬었다.

《장군님, 채 아물지는 않았지만 견딜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지으시였다.

《허허, 류경수가 늘 솔직해서 좋거든.》

그이께서는 곁에 선 강건을 바라보시였다.

《어떻소? 환자에게 주라격방향을 맡겨서 일없을가?》

강건은 미소를 짓고 슬쩍 류경수를 건너다보았다.

《이 류동무가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병원에서 <자유주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였다.

《경수동무가 백두산시절부터 그런 <자유주의>기가 좀 있었소. 이번에 우리가 한번 눈을 감아주지요. 공격의 앞장에 서지 못하면 경수동무가 더 앓을수 있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더운 눈길로 류경수를 바라보시였다.

류경수는 차렷자세를 취하고 경건한 표정으로 그이를 우러러 섰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몸소 키워주신 우리 연합부대는 장군님의 무쇠주먹이 되어 남진의 길을 기어이 열어나가겠습니다.》

《무쇠주먹이라... 좋은 말이요!》

멀리 동평양지구의 하늘에 뭉게구름이 피어나고있었다.

전쟁의 첫 아침이였다.

2

미제침략군의 공습이 지나간 철도교차점은 교통을 막은 군사일꾼들이 사열을 전개하자 어느새 전시의 첫 혼잡이 가셔지고 방금 도착한 군인들의 그 푸점종고 배포유하면서도 기동성이 원만히 보장된 행동으로 하여 한결 질서가 있어보였다.

류경수는 군용화차에서 땅크들이 마지막으로 역함에 내려서자 다소 조급해지던 마음이 가뭇없이 사라져버리는것을 의식했다.

중부지대로 혼란가났던 마지막구분대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반공격명령을 받들고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집결구역가까이 도착한것이다.

지난밤부터 내린 비때문인지 방수포를 벗겨버린 땅크들은 갓 기름칠한듯 번들거리는데 내리자마자 온통 역구내에 기름내가 풍기는 배기가스를 내뿜으면서 남쪽도로로 빠지기 시작했다. 역구내 여기저기에 퍼져버리고 앉아 마라초를 피워물고 한창 가지가지 익살을 부리던 보병들과 포병들이 가스를 피하여 느리게 움직이며 악의없는 비난을 퍼붓곤 하였다.

《땅크병! 보병을 쫓아 아는거야? 그 고약한 냄새

를 작작 피우라구!》

《이 군복을 빨아줄텐가? 젠장, 이러단 거리에 나가 <매복땅크>에 걸려 경무부에 끌려가기 십상이겠는걸!》

류경수는 포차들과 방수포를 씌운 탄약상자들의 걸을 성큼성큼 지나 군용승용차쪽으로 향했다.

극성스럽게 입방아를 찧던 보병들은 키가 후리후리하고 자못 위풍이 당당한 장령복을 발견하자 차렷자세들을 취하며 미소를 감추었다.

《보병동무들, 어때? 우리 땅크들이 미남자들이지》

류경수는 혼연한 낮빛으로 병사들에게 손을 들어보였다.

《장령동지, 눈이 번쩍 트입니다. 저 무한케도소리만 들어두 미제침략군놈들이 오금이 저려할겁니다. 냅다밀어주십시오. 뒤통리는 우리가 맡겠습니다.》

면도한 자리가 푸릿한 나이든 중사가 능청스럽게 대꾸하였다.

《허허, <초원>의 <청소부>가 되겠다 말이지? 보병이야 언제나 앞자리에 서야지. 하지만 우리 땅크들도 선두를 양보하진 않을게요. 그리구 땅크병들도 아낙네들처럼 입심이 세다오!》

류경수는 폭소를 터뜨리는 병사들을 뒤에 남겨두고 군용승용차에 올랐다.

신새벽부터 얼굴이 비물과 땀에 범벅이 되어 동분서주한 젊은 부관이 류경수의 기색을 살피며 허우대가 큰 운전사의 옆구리를 가볍게 다치자 승용차는 진창을 마구 쥐어뿌리며 땅크중대의 뒤를 따라 연합부대의 집결구역인 서남쪽으로 내달렸다.

류경수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려다가 복부의 수술자리가 켤기여 천천히 몸을 앞으로 숙였다. 그는 이마살을 찌프리며 얼핏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시계가 멎어있었다. 눈을 뜨자부터 오금이 저리게 뛰어나다나니 《밥》을 주지 않은것이다.

《장령동지, 지금 11시 25분입니다.》

젊은 부관이 상관의 기색을 살피며 제격 대답하였다.

(11시 25분이라... 그러니 우리 장군님의 반공격명령이 내린지도 퍼그나 시간이 지났구나...)

류경수는 한순간 늦추어졌던 정신적긴장이 다시 팽팽해지는것을 의식했다.

빌써 전선에서는 인민군연합부대들이 적들의 공격을 기본적으로 좌절시키고 일제히 반공격에로 이전하기 시작하였다.

불의의 전쟁이 터진 그 순간에는 전혀 상상도 할수 없었던 기적이 이 아침에 일어났것이다.

우리 혁명의 수령이시며 민족이 낳은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그 비범한 담력과 천리혜안의 빛나는 예지가 전쟁력사의 전례를 깨뜨려버리는 이러한 력사적전환기를 마련했다는 강렬한 인식과 경탄과 자부심이 한순간 류경수의 마음을 취할듯 한 환희와 신심으로 흥분시키는것이였다. 문득 새벽에 평양에서 체험했던

그 류다른 격동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떠오르는 것이었다...

《장령동지, 땅크종대가 멈춰섰습니다.》

젊은 부관의 걱정어린 목소리에 류경수는 상념에서 깨어났다.

차창밖은 멈춰선 땅크들에서 뿜어나오는 배기가스와 설퍼진 비발이 한데 어우러져 형체를 알 수 없이 희뿌옇게 보였다.

군용승용차는 좁은 길에 외줄로 몰려선 땅크종대결을 겨우 빠져 앞으로 굼뜨게 기여갔다.

군용승용차가 더는 땅크종대결을 빠질 수 없게 되자 류경수는 차에서 성큼 뛰어내렸다. 순간 그는 오른쪽복부가 무섭게 걸리는것을 느꼈다. 전쟁이 일어나기 두달전에 충수를 수술했는데 가끔 그것이 말썽을 부리는 것이었다.

그는 얼굴을 잔뜩 찌프렸으나 허리를 곧추 폈다. 가는 비발이 그의 달아오른 얼굴을 부드럽게 적시었다. 부관이 비웃을 내밀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배기가스에 몸을 잠그며 선두땅크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젊은 중위는 얼굴이 긴장해져가지고 장령의 뒤를 그림자처럼 따랐다.

류경수는 지금 이 애송이부관이 자기를 부축하고 싶어하지만 어려워서 이렇게 곁에서 서성거린다는 것을 잘 알고있었다.

자기는 그를 다소 익살기를 섞어 스스럼없이 대해주지만 그럴수록 젊은이는 더욱 웅색해하는 것이다. 군관학교를 갓 졸업한 농촌출신인데 부대군관들의 표현을 빌면 일종의 멋을 부릴 줄 알아야 하는 부관직무에 전혀 어물리지 않는 《농포》였다. 하지만 류경수는 부관이 자기를 알몸으로 드러내보이는 그 고지식한 순박성에 마음이 끌려 때로 뜨거운 정을 쏟아붓는지도 몰랐다.

우리 나라 중부의 전형적인 산협길이 앞에 펼쳐져있었다. 낮지만 가파로운 산봉우리들이 서로 키돋음을 하며 중중첩첩 시야를 막아서는데 어설픈 비발로 해서 그것은 부엌에 보인다. 길옆의 숲을 와삭와삭 헤치며 키가 작달막한 대좌가 성급히 류경수에게로 다가왔다.

《무슨 일이요? 참모장동무.》

류경수는 지나치게 턱밑으로 다가든 대좌를 내려다보며 침착하게 물었다.

《야단났습니다. 미제침략군의 공습에 다리가 끊어져서 다리옆의 여울로 땅크들이 들어섰는데 일곱번째땅크가 물함에 빠졌습니다.》

대좌는 군복소매로 비땀물을 훔치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대책을 세웠소?》

《앞의 땅크가 견인바줄로 끌고있는데...》

《가보지요.》

류경수는 참모장을 앞질러 다리목쪽으로 걸어갔다.

《누구네 땅크요?》

《108호입니다.》

《강창모! 그 친구가?...》

크지 않은 내물을 사이에 두고 땅크들이 아츠

러운 발동소리를 지르며 모지름을 쓰고있었다.

류경수는 다시금 저러오는 복부의 아픔을 지그시 누르며 땅크가 처박혀있는 물함에 뛰어내렸다.

그는 포탑우의 강창모를 올려다보았다.

《땅크장동무! 그 견인바줄을 푸시오!》

기름때에 얼룩진 강창모의 성난 얼굴이 놀라서 뒤를 돌아보다가 굳어진다.

《아니, 부대장동지가?...》

《집행하시오.》

류경수는 통명스럽게 말하고 뒤를 돌아다보았다.

《부관, 뒤땅크를 접근시키시오.》

그제야 부대장의 의도를 간파한 땅크장과 부관이 한덩어리가 되어 바빠 돌아쳤다.

《장령동지. 아무래도 우회로를 타야 할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곁에서 대좌가 걱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류경수는 대좌의 말에 머리를 쳐들었다. 그는 마뜩지 않은 시선으로 대좌를 마주 쏘아보았다.

《여보, 땅크는 예도는 법이 없소! 오직 직선길이 있을뿐이야. 그리고 군인이라면 누구나 이 진리를 알아야 하오!》

류경수는 대좌가 보란듯이 포탑문을 열고 땅크안에 뛰어들었다. 땅크안에서는 후더운 열기가 확 풍겼다. 그는 조종간을 억세게 틀어쥐고 견인바줄에 의지하여 땅크를 얼마간 뒤로 후진시켰다.

이윽고 땅크는 무서운 속도로 앞을 향해 돌진하면서 방금 빠졌던 물함턱을 사정없이 짓밟으며 기슭으로 올라섰다. 진창이 와락 튀기며 기슭에서 있던 대좌일행에게 뿌려졌다.

류경수는 그냥 조종간을 잡은채 땅크를 곧추 몰아갔다.

류경수는 갑자기 노여움이 풀리면서 자기가 대좌의 의견에 지나치게 신경을 곤두 세웠다는 생각이 들어 쓰겁게 웃었다. 그는 곁에 도사리고 앉아있는 강창모를 건너다보았다.

《그래 어때?》

강창모의 너부죽한 얼굴에 웃음발이 지나갔다.

《땅크병의 본래를 보여주었지요.》

《땅크병의 본래? 허허허...》

류경수는 어이없어 웃으며 다시 조종간을 틀어잡고 앞을 쏘아보았다.

(그렇다! 땅크는 기름만으로도 아니라 정신력으로 가는것이다!... 우리 땅크가 어떤 땅크인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무어주시고 한결음한결음 키워주시고 전선주타격방향에 세워주신 철갑의 대오가 아닌가!...)

문득 몇해전의 그 잊을수 없는 날이 떠올랐다.

그날 류경수는 부대를 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에 대한 가르치심을 받으려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는 집무실로 찾아갔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집무탁우에 산더미처럼 쌓인 문건철을 마주하시고 강건과 함께 사업토의를 하시는중이었다.

《경수동무가 평양물을 먹더니 때를 쑥 벗은게 미남자가 됐구만. 그렇지 않소? 강건동무!》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피곤이 실린 안팎에 미소를 담으시며 류경수에게 자리를 권하시였다.

《장가를 한번 더 보내도 될것 같습니다.》

강건도 문건철에서 허리를 펴며 통말로 받았다.

류경수는 쑥스러워하며 창문결 걸상에 조심스레 앉았다.

《이제 땅크부대까지 조직한 다음 진짜 잔치상을 크게 차려줍시다. 산에서 못한 봉창을 해줘야지. 허허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미더운 눈길로 류경수를 바라보시였다.

《그래 무슨 일로 왔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따뜻한 물음속에 류경수는 자리에서 총대같이 일어섰다. 그는 강건쪽을 일별하고나서 부대의 전투력강화에 필요한 자금문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신중한 표정으로 그의 보고를 들으시였고 어쩐지 강건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문건철만 벌컥벌컥 뒤적거리는 것이였다.

류경수는 일종의 희망과 죄스러움이 한데 엉켜 마음 한구석에 웅어리짐을 의식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의 제기를 받으시고 한동안 말없이 방안을 거니시였다.

《그러니 당장 자금이 필요하단 말이지... 그런데 그렇게 넉넉히 보태줄것 같지 못하구만. 나라의 경제형편을 동무도 알지 않소...》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호주머니에서 얼마간의 돈을 꺼내어 책상우에 놓으시였다.

《자, 이것이 나에게 있는것의 전부요...》

《!...》

류경수는 그만 심한 충격과 자책감으로 머리를 들수 없었다.

저 백두산에서 시작된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정신은 여전히 변함이 없는것이였다...

그후 류경수가 지휘하는 땅크련합부대는 이른 새벽부터 크나큰 기쁨에 휩싸여있었다. 가을같이로 흥성이는 드넓은 사동벌이 땅크병들의 앞길에 활주로처럼 끝없이 펼쳐져있었다.

철갑의 땅크중대는 무한궤도로 지축을 흔들며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서계시는 사열대 앞을 질서정연하게 전진해나갔다.

그이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땅크병들에게 답례를 보내시였다.

그이께서는 문득 류경수를 돌아보시며 청정한 음성으로 말씀하시였다.

《경수동무, 보시오. 얼마나 믿음직합니까! 우리 땅크병동무들이 정말 장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땅크조작법을 익히려면 줄잡아 몇해가 걸려야 한다고 우는 소리를 했지만 우리 전사들은 불과 석 달동안에 만능의 땅크병으로 자랐습니다. 지난날

천대받던 로동자, 농민의 아들들이 무력건설의 주인으로 자랐습니다.

이제는 원쑤들이 덤벼들어도 마음을 놓을수 있습니다. 경수동무가 정말 수고했소!》

《장군님!...》

류경수는 눈물이 글썽한 얼굴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보았다. 위대한 주체전법을 창시하시여 우리 땅크병집단을 억센 철의 대오로 키워주신 그 사랑의 나날을 더듬는 그의 가슴은 뜨거웠다.

몸소 훈련장에 나오시여 날이 저물도록 땅크병들의 훈련을 세심히 지도하신 그 불멸의 자욱, 어제는 실탄사격을 보아주시고 부대에 군기를 수여해주신 자애로운 그 사랑...

《우리가 백두산에서 싸울 때는 손으로 작탄을 만들어 놔들과 맞섰는데 이제는 저런 위력한 현대적무기를 가졌습니다. 쓰팔린은 포를 전쟁의 신이라고 했는데 지상전에서는 땅크가 왕입니다.

인민의 아들들이 새조국을 옹위하는 무적의 강군으로 자랐습니다! 자기 힘을 믿을 때 못해낼 일이란 없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감회깊은 눈길로 류경수를 돌아보시였다. 그 순간 류경수는 분명 보고있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손길따라 안도의 밀림에서 떠난 혁명대오가 철의 대하로 굽이쳐흐르는 위대한 현실이 그리고 충성스러운 우리의 혁명무력이 가닿아야 할 성스러운 승리의 종착점이 눈앞에 산처럼 다가오는것이였다. ...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날의 부대열병식이 있는 다음에도 땅크무력의 강화를 위하여 늘 마음을 쓰시였다.

어느날 부대를 찾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땅크병들의 전투훈련모습을 보아주시다가 느닷없이 류경수를 찾으시였다.

《경수동무, 내 한가지 물어보고싶은게 있는데 동무네는 미제침략군이 전쟁을 일으키면 어디에 서야 할것 같소?》

미소를 지으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안팎에는 따뜻한 광채가 어려있었다.

《장군님, 저의 땅크병들은 대오의 선두에서 전격하겠습니다.》

《대오의 선두라...》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미소를 거두시고 멀리 들관으로 줄지어 기운차게 달리고있는 땅크들을 응시하시였다.

《일단 유사시에는 땅크들이 저렇게 탄탄한 길을 따라서만 전진할수 없지. 그런데 전쟁의 승패는 시간이 결정하거든! 좋은 기동로만 따라서 전진한다면 그게 무슨 무한궤도겠소!》

《?!...》

《경수동무, 동무들은 몇년이 걸린다면 땅크운전법의 교범을 깨뜨려버렸소. 말하자면 우리 식 교범을 새로 창조했던 말이요. 전투훈련에서도 이 경험을 살려야 하오.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조선식훈련경험을 내놓아야 하거든. 그러

자면 산악이 많고 강하천이 많은 우리 나라의 지형조건에 맞는 훈련에 모를 박아야지. 그래 산악의 급한 경사지극복훈련을 생각해봤습니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뜻밖의 물으심에 류경수는 눈길을 내리깔았다.

《장군님, 저희들은 아직...》

《그렇다면 한번 배심있게 해보시오. 경사지극복훈련과 함께 어려운 지대를 통과할수 있는 훈련도 해보시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가르치심이 있은 뒤 류경수는 땅크병들과 함께 밤을 패며 지혜를 모아 이악하게 훈련한 결과 얼마후에 종래의 기준을 몇배나 뛰어넘어 경사지극복훈련을 완성할수 있었다. 하지만 어려운 지대극복만은 여전히 방도가 서지 않았다. 도대체 온통 강철덩어리로 만들어진 묵중한 땅크가 습지를 비롯한 어려운 지대를 통과한다는것이 리론적으로 납득되지 않았다. 전문가들도 뒤로 물러서고 류경수도 주저앉아있을 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또다시 부대를 찾으시였다.

그이께서는 땅크들이 어려운 지대를 통과하다가 빠져버린 야외훈련장을 돌아보시고나서 부대 지휘일군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어깨가 축 처진 류경수의 수척한 얼굴을 자애에 넘치신 시선으로 이윽도록 바라보시였다.

《허허, 왜 모두들 그리 우겨지상을 하고있소. 경수동무, 우리가 백두산에서 싸울 때 깊은 눈에 빠지지 않고도 행군하던 일이 생각나오?》

류경수는 두손을 배 밑에 모아쥐고 생각을 가다듬었다.

《그때 저희들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가르쳐주신대로 설피를 만들어 신고...》

《잊지 않고있구만. 지휘관들은 머리를 써서 자체의 힘으로 뚫고나갈 궁리를 해야 합니다. 어려운 지대를 통과하려면 땅크에도 신발 비슷한걸 신겨야지! 말하자면 무한궤도가 지나갈 길에 나무단이나 통나무같은걸 깔면 되지 않겠소!》

《?...》

류경수는 눈앞이 번쩍 트이는것을 느꼈다.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백한 리치에 사람들은 한동안 열이 나간 기분이였다. 그래서 진리란 발견하기는 힘들어도 찾고보면 너무 간단명료하여 의아해지는것인가. 아니다. 그러한 발견은 자기 힘을 굳게 믿는 인간에게만 강철의 문을 아낌없이 열어주는것이다.

어려운 지대극복훈련을 성과적으로 마친뒤 류경수는 자기의 심장을 흔드는 이 귀중한 진리를 새롭게 음미해보며 사색에 잠겼었다.

(자력갱생... 자기의 힘을 믿고 전진하는 간고분투!...이것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식 혁명방식이다! 이 귀중한 방식이 있으면 우리에게는 뚫고나가지 못할 요새란 없다...)

젊은 장령은 추억에서 깨어났다. 차창으로 비쳐드는 해빛에 눈이 부셨다.

이윽고 증강된 땅크구분대는 지적된 시간전에

예정된 장소에서 주력구분대집단과 합세하여 다 음진출계선인 ○○북쪽방향으로 전진하였다.

행군휴식명령이 내려졌다. 천성이 유쾌한 땅크병들은 어느새 파란 잔디밭으로 나와 들썩하게 오락회관을 벌리였다.

류경수는 지휘관들의 보고를 받은후 땅크병들 쪽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한참 어깨를 들썩이며 복장단에 맞추어 곱새춤을 흥이 나게 추고있던 강창모가 류경수를 발견하자 총알처럼 달려와 팔을 잡아당겼다.

《부대장동지, 마침 잘왔습니다. 한국조 불어주십시오.》

《허, 이거 잘못걸렸군 그래!》

류경수는 팔을 잡아뗐으며 뒤로 물러서려 했다. 강창모는 그럴수록 턱밑에 바싹 다가붙으며 팔을 놓아주지 않았다.

《야, 이러지 마십시오. 딱 한번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배워주신 하모니카곡을 불어주십시오. 땅크병들의 소원입니다.》

결에 모여선 젊은 땅크병들이 손뼉을 치며 와와 설레였다.

그러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얼굴이 긴장과 흥분으로 잔뜩 붉어진 부관이 군용가방에서 큼직한 하모니카를 꺼내들고 달려왔다.

《에이, 좋아 그럼 불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관철에 떨쳐나선 땅크병들에게 힘이 된다면 열백번이라도 불지!》

류경수는 천천히 하모니카를 들고 푸른 잔디밭 위에 나눴다. 오래간만에 입에 대보는 애용악기였다. 이윽고 맑고 씩씩하고 류창한 음악소리가 고요한 초여름대기속으로 울려 퍼졌다.

동무들아 준비하라 손에다 든 무장

제국주의침략자를 때려부시고

...

하모니카를 부는 그의 눈앞에 장백현 19도구지양개의 수림이 우뚝이 떠오른다.

련환대회 높은 연단에서 두손을 휘두르며 정열적으로 연설하시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모습 그리고 먼 북방에서 맞이하던 그 잊을수 없는 타향의 봄, 버들개지핀 추억의 시내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와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를 모시고 사진을 찍던 봇나무숲가의 그 노란 잔디밭...

문득 류경수의 눈길이 빙 둘러선 땅크병들너머 백양나무밑에 떨어졌다.

농촌마을의 동구길, 농막앞의 나무울타리, 땅크동음에 놀란 어리숙한 농촌개와 벗이 빨간 토종닭이 거니는 낡은 탈곡장, 짧은 샤쓰를 입은 한 어린 소녀가 나무울타리에 기대서서 보라빛들꽃 한송이를 들고 노래곡조에 맞추어 사랑살랑 혼들 어대고있었다.

연약하고 밍그스레한 소녀의 작은 얼굴에서 고운 새별눈이 반짝거린다. 농가뒤로 펼쳐진 푸른 산과 맑은 시내, 밀, 보리 설레는 들판을 원경으

로 소녀의 모습이 한쪽의 그림처럼 그의 시야에 안겨들었다.

한순간 류경수와 소녀의 눈길이 부딪쳤다. 류경수는 눈으로 웃음을 실어보냈다. 그러자 소녀는 들꽃을 높이 쳐들고 흔들었다. 연보라빛 꽃잎들이 잔디밭으로 눈처럼 떨어져내렸다.

따뜻하고 다정한 애수가 류경수의 심혼속으로 조용히 흘러들었다.

오락회가 끝나고 땅크중대가 다시 진출계선을 향해 재빛숲속으로 멀리 뻗어간 행군길에 올랐을 때 류경수는 가볍게 진동하는 차안에서 두눈을 지그시 감고 오래동안 그 소녀의 새별눈을 상기하였다.

《소녀야, 너희들의 그 웃음과 꿈을 지켜주려 아버지들은 전선으로 가고있다. 너희들의 머리위에 가없는 푸른 하늘을 엮어주기 위해 아버지 장군님께서서는 이순간도 작전지도앞에 서계신다!...》

류경수의 눈앞에는 최고사령부의 커다란 작전지도앞에서 땅크연합부대의 행군로를 지켜보고계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자애로운 모습이 우렁이 떠올랐다.

땅크대오는 남으로, 전선으로 질풍같이 달리고 있었지만 전사의 마음은 한순간도 그 품을 떠나지 못하고있었다.

3

반공격의 길에 오른 인민군연합부대들은 적들을 38도선 남쪽으로 몰아내면서 공격성공을 급속히 확대해갔다.

이 진격의 길에 인민군연합부대들은 달리는 군용차우에서 작전토의를 진행했고 그 즉시로 명령서를 받아안은 련락관관들이 모터찌클을 타고 관하구분대들로 떠나갔다.

최고사령부의 작전명령에 따라 온 전선이 하나의 생명력을 가지고 움쉴움쉴 남으로 움직여갔다.

중낮에 주타격방향에서 뜻밖의 정황이 발생하였다. 포천북쪽, 만세다리계선에서 진격하던 보병주력부대가 적들의 완강한 방어에 부딪쳐 좌절된 것이다.

성난 파도와 같이 진격하는 인민군연합부대들의 단호한 반격에 의해 초기의 모험적인 공격에서 참패를 당한 적들은 이미 준비하였던 진지들에 의거하여 완강한 방어에로 이전하였다.

적들은 작전예비대들과 룡군본부 직속부대들까지 동원하여 지리적으로 유리한 만세다리계선에 력량과 전투기술기재들을 집중하고 무수한 차단물까지 형성한후 물של없는 방어진을 구축한것이다.

류경수가 이 긴급한 정황을 전달받고 급히 차를 달려 행군로 가까이 있는 전선지휘부에 들렀을 때 지휘성원들과 참모부일군들은 작전실에 모여앉아 머리를 싸매고 방도를 모색하고있었다.

《왜구만!》

얼굴이 몹시 수척해진 강건이 참모일군들과 함께 작전지도앞에서 총혈된 눈으로 그를 마주보았다.

《동무도 공격이 좌절된 소식을 들었을테지? 지금 동무네는 어떻게?》

《예정된 진출계선을 향해 전진하고있습니다.》

류경수는 방안의 무거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감수하며 군모를 벗어 작전대우에 털썩 놓았다.

《경수동문 주타격방향에 제기된 정황을 놓고 무슨 방도가 떠오르게 없소?》

강건은 류경수의 강철빛얼굴을 마주 보았다.

《아까 전화상으로도 간단히 보고했지만 아무래도 결정적인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정적인 대책이라는것은?》

강건은 기대가 실린 부드러운 눈길로 류경수를 지켜보았다.

강건의 그 류다른 침착성이 문득 류경수의 주의를 끌었다. 팽팽하고도 칼날같은 성격이지만 명석한 판단과 결단성으로 하여 늘 그를 존경하여오는 류경수는 웬일인지 이 순간 마음속의 조급함이 어느정도 가셔지는것을 느꼈다.

《제 생각엔 포병무력과 작전예비대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것이 어떨가 하는것입니다.》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을 잡아먹을것 같구만.》

강건은 더 아무말없이 작전지도우에 머리를 숙였다.

지휘부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배회하였다.

류경수는 군용물통이 놓여있는 창문결의 원탁으로 다가갔다. 물은 오히려 더위에 단 목을 더 타게 하는것같았다. 그는 일종의 정신적허탈감을 느끼며 성급히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방도가 없겠는가? 보병주력부대의 공격이 좌절된 조건에서 그 린접을 맡은 땅크중대도 손발이 묶이운셈이 아닌가.

일생을 군복과 함께 총을 잡고있었지만 이런 경우 자신의 전술적사고의 제한성을 더욱 통절히 느끼게 되는것이였다.

문득 출입문이 벌럭 열리면서 전선지휘부의 한 군관이 들어섰다.

《총참모장동지, 최고사령부에서 전화입니다.》

강건은 송수화기를 들자 다음순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다. 그는 류경수를 돌아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시였소.》

류경수는 일종의 짜릿한 환희를 느끼며 강건을 마주보았다.

《장군님, 강건이 전화를 받습니다.》

《왜 총참모장의 목소리가 그리 자신심이 없습니까? 아예 주저앉아 뭉개자는게 아니요? 허허허.》

송수화기를 통해 울리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그 소탈한 웃음소리에 류경수는 방금전의 막연한 정신적중압감이 확 풀리는것을 느꼈다. 모든 일이 잘되리라는 류다른 안도감이 불시에 그의 심리를 지배하는것이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을 이으시였다.

《어디, 만세다리계선의 정황을 구체적으로 들어보지요.》

강건은 주타격방향에 조성된 정황을 차근차근 보고드리었다.

《음, 주타격방향에서도 기본부대가 좌절되었으니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강건동무, 무슨 방도가 토의되었습니까?》

강건이 송수화기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며 전선지휘부의 초기방안과 겹쳐서 류경수의 의견도 첨부하여 보고드리었다.

《응, 지금 정황에서는 그 전술방안도 연구해볼 가치는 있소. 하지만 공격속도를 늦출수 없습니다. 지금 정황이 분과 초를 다룬다는것을 알아야 합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시다가 문득 물으시었다.

《류경수동무가 진출한 계선이 어딴니까?》

뜻밖에도 보병부대가 아니라 땅크부대의 진출계선을 물으시는 바람에 강건은 다소 어리둥절해져 류경수를 마주 쳐다보았다.

강건은 아직 그이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채 류경수가 지휘하는 땅크련합부대의 진출계선을 말씀드렸다.

《허허, 동무들이 왜 이런 정황에서 땅크부대를 앞질러 진출시킬 생각을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건동무,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땅크부대를 대담하게 이 계선으로 돌파진입시키는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땅크부대를 말입니까?!》

너무도 돌발적인 질문이시었다.

주타격방향의 예비대로 치후임무수행을 위해 지정된 목표로 급속히 접근해가고있는 땅크련합부대에 대하여 일군들은 전혀 문제점으로 부각시켜 생각해본 일이 없었고 게다가 지형적, 시간적 타산이 한순간 산처럼 눈앞을 막아서는것이였다.

《장군님, 땅크련합부대를 이동시키자면 기동로 때문에 많은 시간을 잃게 됩니다.》

군사실무면에서 남달리 배심이 있는 강건이 류경수의 기색을 살피며 말씀올렸다.

《만세다리계선으로 진출하는데 얼마나 걸릴것 같소?》

《기본집단이 도착하려면 일정한 시간이 걸릴것 같습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잠시 침묵을 지키시다가 류경수를 바꾸라고 말씀하시었다.

류경수는 흥분된 심정으로 송수화기를 받아들였다.

《장군님, 류경수 전화받습니다.》

《류경수동무생각은 어떻소? 우리의 땅크병들은 지난 기간 산악경사지극복훈련을 많이 했지...》

그이의 의미심장한 말씀이 류경수의 가슴을 울려주었다.

류경수는 금시 눈앞이 번쩍 트이면서 심장이 터질것 같은 흥분을 느끼었다. 땅크련합부대와 만세다리계선사이의 야산지대들이 직선길로 눈앞에 떠오르는것이였다.

《장군님, 저희들 련합부대가 야산지대를 질러 공격하겠습니다.》

《그래, 오후중으로 도착할수 있습니까? 공병예비대를 보내주겠습니까.》

류경수는 차렷자세를 취하고 먼곳에 계시는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를 우러러 섰다.

《장군님의 명령을 기어이 관철하겠습니다!》

다음순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류경수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나는 우리 식으로 준비된 우리 땅크병들의 공격정신을 믿습니다! 류경수동무, 한몫 단단히 할 때가 온것 같소. 강철의 무한계도로 직선기동로를 달려 놈들의 거만한 코대를 꺾어놓아야 하오!》

류경수는 목이 꺾 막히는것을 의식하며 격동된 어조로 말씀드렸다.

《장군님! 장군님의 돌파진입명령을 목숨으로 관철하겠습니다.》

잠시후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다정히 물으시었다.

《경수동무, 전사들이 이 더위속에서 고생이 많겠소.》

《장군님, 우리 땅크병들은 승리의 열에 들떠 불속에라도 뛰어들 기세입니다.》

《허허... 내 땅크에 몇번 올라보니 여름엔 한증탕갈구 겨울 지독하게 춥더라 말ियो. 땅크병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늘 관심을 돌려야겠소.》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류경수는 그이의 다심한 사랑에 가슴이 뭉클해지는것을 의식했다.

한순간 전선지휘부 작전실우에는 승엄한 고요가 배회하고있었다.

(일반적으로 창조적인 비상한 작전전술과 훌륭한 전투지휘, 군사행동과 전쟁의 진행방법을 두고 군사예술이라고 말한다.

여기에 모인 지휘성원들의 두뇌를 모두 하나로 합쳐 모색해도 저렇듯 위대한 군사예술의 높은 경지에 오르지 못하는것은 무엇때문인가? 그래서 수령은 개인이 아니라 혁명의 심장. 인민대중의 최고뇌수라고 하는것인가! 장군님!

장군님은 력사에 없는 위대한 군사의 거장이시다! 행복, 이런분의 명도를 받는 우리 인민군대는 얼마나 행복한가!...)

류경수는 코허리가 시큰해지는것을 느꼈다.

4

사포군과 군집단지원포들이 만세다리계선의 적 참호들에 집중포화력을 퍼붓고있을 때 류경수는 땅크진출계선의 전방지휘소에 나와있었다.

포격에 불타버린 가독나무잎새사이로 청백색산 봉우리들이 어렴풋이 보였다. 한순간이 지나자 고지에 얼기설기 뒤덮인 전호들과 참호들, 화점들에서 거창한 불기둥들이 치솟아올라 저녁어스름이 깃든 전선의 하늘을 붉게 물들이는것이였다.

장쾌한 모습이었다.

《우리 포병들이 제법이요! 온통 불바다를 만들어놓는군.》

류경수는 흥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공격시간까지는 몇분밖에 남지 않았다. 그는 백두산시절 보통전사로 총창을 비껴 들고 산병선에 얹드려 지휘관의 공격명령을 기다리던 그때부터 이런 순간을 사랑했다.

그것은 극도의 정신적앙양과 긴장을 요하는 이름할수 없는 짜릿한 쾌감을 주는 총잡은 군인의 궁지가 비긴 행복한 순간인것이다.

혁명에 대한 열정과 원쑤에 대한 증오가 뒤엉킨 이런 순간들속에서 군복을 필생의 운명으로 받아안은 혁명가가 성장하는것이 아닐까.

류경수는 부관에게서 땅크모를 받아들고 지휘땅크의 포탑위로 올라섰다. 그는 다시금 시계를 들여다본후 지휘관들에게 명령하였다.

《지휘관동지들! 시간을 맞추시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대로 일제히 적진지로 돌파진입하여 화점과 포진지들을 까부십시오! 나는 지휘땅크에 있겠소.》

포탑밑으로 내려서자 어느새 들어왔는지 부관이 강창모땅크장과 함께 쌍둥이같은 얼굴로 그를 뵈히 쳐다본다.

《창모동무, 한번 본때를 보이기로. 고향의 애인에게 편지쓸 구실을 만들잔 말ियो.》

강창모는 흰이발을 드러내며 피씩 웃었다.

《장령동지두 참, 저의 고향은 저 남해기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녀동무도 보병사단의 간호원으로 있는데요. 》

《허, 그렇던가? 그럼 더욱 좋구만. 편지마다 땅크병들의 전투위훈을 적어보내라구, 그게 진짜 사랑이야.》

땅크의 거세찬 동음에 두사람의 말소리는 어느덧 잦아버렸다.

이윽고 땅크주력중대는 무한궤도의 동음으로 대지를 진감시키며 결전진입계선을 향해 질주하면서 맹렬한 화력을 퍼부었다.

파편들이 날아와 철갑에 부딪칠 때마다 날카로운 금속성이 귀청을 찢게 울리곤 하였다.

류경수는 수시로 각 구분대들의 전투정황을 보고받으면서 만세다리를 돌파한후 적참호쪽으로 진격하였다.

갑자기 선두땅크가 주춤하고 멈춰서버렸다.

《무슨 일ियो?》

《장령동지, 지뢰원입니다.》

강창모가 땅크를 제동시키며 류경수를 올려다보았다. 류경수는 근엄한 눈길로 시창을 쏘아보더니 짙막하게 부르짖었다.

《땅크장동무, 우리 지휘땅크를 선두로 내모시오!》

《장령동지, 그건 안됩니다.》

《명령을 집행하십시오.》

화학연기가 뽕얇게 떠도는 속에 류경수와 강창모의 눈길이 부딪쳤다. 갑자기 땅크장의 피발선 눈에는 애원하는 빛이 가득찼다.

《장령동지, 전체 연합부대를 생각하십시오. 정그러면 땅크에서 내려주십시오. 저희들이 명령을 집행하겠습니다.》

류경수는 강창모의 어깨를 으스러지게 틀어쥐었다. 화약내와 증유내가 역하게 폐부에 숨새여들었다.

《창모, 시간이 없소. 한초라도 늦으면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관철이 어떻게 되겠나? 보라구, 전체 부대가 우리를 지켜보구있소. 어서!...》

《장령동지!...》

한순간 류경수의 눈길이 부드럽게 번쩍었다.

《창모, 이 류경수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명령관철에서는 평범한 전사란 말ियो. 알겠소? 자! 우리의 무한궤도로 저 지뢰원을 짓몽개버리기로. 그래서 땅크거든!》

《사단장동지!》

《자, 어서! 시간이 없소!》

류경수는 이 순간 지휘관이란 뒤에 서면 대오를 떠밀고 앞에 서면 웅당 대오를 이끄는 기수가 되여야 한다는 강한 의식이 들었다.

이것이 그가 젊은 시절부터 군복을 입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의 슬하에서 터득한 항일유격대식지휘방법이었다.

지휘땅크는 무한궤도를 번뜩이며 땅크중대의 선두로 거침없이 돌진해나갔다.

류경수가 지휘땅크를 철조망이 뒤엉킨 지뢰원으로 물고 가자 무한궤도밑에서 보병지뢰들이 폭발하여 온 천지를 불바다로 만들었다.

그러자 지휘땅크의 뒤를 따라 전체 땅크들과 보병주력부대가 성난 파도마냥 적진지를 향하여 돌진해나갔다.

류경수는 적화점과 포진지들을 까부시자 군복소매로 얼굴의 땀을 뻑 씻으며 부관과 강창모를 돌아보았다.

《강창모, 어때? 이 기세로 달리면 서울을 타고 앓을만 하지?》

강창모는 흰이를 드러내며 싱긋이 웃었다.

《남해기슭까지도 문제없습니다. 무한궤도로 냐다밀고 나가렵니다!》

《참, 고향이 남해기슭이라고 했지?》

《예, 다도해가 보이는 설봉산입니다.》

《음... 다도해라?... 난 저 랑림산줄기가 뻗어내린 신흥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지만 혁명의 수도 평양을 고향으로 삼은 사람ियो.》

문득 류경수는 시창앞을 쏘아보며 침묵을 지켰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산발적인 총소리들이 그 침묵을 깨뜨렸다.

류경수는 가슴속에 미쳐오는 따뜻하고 억센 흥분을 느끼며 강창모와 부관을 바라보았다.

《이보우, 동무들 내 이름이 왜 경수인지 아우? 원래 내 이름은 류삼손이라고 불렸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평양을 지키는 전사가 되라구 류경수라 이름지어주셨소. 평양을 지키다는것이 뭐겠소. 우리 혁명의 심장이고 우리 민족의 태양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 장군님을 지키는것이 아니겠소!》

전투가 끝난후 류경수는 다음진출계선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땅크부대들에 잠깐 휴식명령을 내렸다.

그는 지휘땅크에서 내려 몇분간 눈을 붙이기로 결심하였다.

그는 뜨겁게 달아오른 무한궤도에 등을 기대고 비스듬히 앉았다. 마치 고향집 아래목에 누운듯 몸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버렸다.

그는 눈을 감은채 생각에 잠겼다. 승리의 쾌감과 흥분으로 해서인지 인차 잠이 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그의 곁으로 다가와 조심스레 군용비옷을 덮어준다.

발소리와 숨소리만 듣고도 부관이라는것이 알린다. 류경수는 눈을 감은채 조용히 말했다.

《부관동무, 15분후에 나를 깨워주시오.》

《알았습니다.》

부관은 귀속말로 대답하더니 슬며시 뒤로 물러섰다. 류경수는 어설픈 꿈속에서 다시 해빛밝은 푸른 잔디밭에 서있었다.

눈같이 하얀 샤쓰를 입은 소녀가 짧은 갑장치 마미으로 탄력있는 종아리를 번뜩이며 들판으로 달려가고있다. 한순간 소녀의 모습은 평양에 있는 딸애의 모습으로 바뀌었다....

《부대장동무가 어디 있소?》

《방금 눈을 붙였는데 15분후에 깨워달라고 명령했습니다.》

《무사태평이군 그래. 당장 깨우시오. <폭풍>이요! 최고사령부전보문이 도착했다고 전하시오.》

귀에 익은 강건의 결결한 목소리에 류경수는 번쩍 정신이 들어 자리에서 일어섰다.

《수고했소.》

강건은 류경수의 손을 억세게 틀어쥐었다.

《경수동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땅크부대가 이 계선에서 좌절되었던 아군의 공격로를 열어놓은데 대하여 대단히 만족해하시었소. 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친필로 쓰신 전보문이요!》

강건은 작전가방에서 기밀문건봉투를 꺼내어 정중히 류경수에게 내밀었다.

련합부대의 차후임무에 대한 새로운 작전명령이라는것을 감촉한 류경수는 흥분된 심정을 누르며 조심스레 전보문을 받아 펼쳐들었다.

류경수의 얼굴이 한순간 움직일줄 몰랐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그 친필전보문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다.

《신변에 최대의 주의를 돌릴것, 사단지휘부에서 떠나지 말것. 식사를 제시간에 할것.》

류경수는 전보문을 펼쳐든채 돌처럼 굳어져버렸다. 뜨거운 걱정과 파도가 그의 온몸을 강렬히 휩싸는것이다.

강건이 다가왔다. 그는 류경수의 허리를 부여안고 몇걸음 걸다가 무한궤도에 몸을 기댔다.

두사람은 그저 말없이 서있었다.

고요한 전선의 밤하늘을 썰며 예광탄이 솟아올랐다. 그러자 폭연에 자욱한 전장이 한순간 자기의 형체를 드러내는것이였다.

두사람은 조용히 무한궤도에 기대서서 화선의 땀풍경을 바라보고있었다.

《담배를 피우겠소?》

《한대 주시오. 체건 땀에 다 젖어와서...》

목이 킁킁 막혔다. 류경수는 몇모금 빨지 않고 담배불을 꺼버렸다.

《사람두 원... 경수, 이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더는 근심하지 않도록 하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전쟁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시었소. 다시 선두땅크를 탔다가는 내가 아예 한대 담배 기겠소!》

류경수는 눈물이 글썽해서 강건을 마주보았다.

《강건동지, 경애하는 장군님의 공격정신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 무한궤도가 아닙니까!》

강건은 담배를 꺼내물었다. 담배불이 병긋거릴 때마다 실퍼지는 어둠속에서 강건의 강철빛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나군 하였다.

강건의 눈은 감동에 젖어있었다. 류경수는 강건이 몹시 흥분하고있음을 느꼈다.

《좀 걸지 않겠소?》

강건은 류경수의 어깨를 부여안고 무한궤도에 서 물러섰다.

군화에 부서진 파편조각들이 짓밟혔다.

《경수동무, 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에게 전보문을 보내실 때 이런 생각을 했었소. 이제 우리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들어 반생을 싸워오는데 언제면 그 숭고한 인간세계를 다 리해하게 될가 하고말이요.》

강건은 잠시 말을 끊으며 숨을 크게 들이쉬었다.

《그이께서 계시지 않았더라면 이 조선이 어떻게 되었겠소! 난 단순히 이 전쟁만을 녀두에 두고 말하는게 아니요.》

강건의 웅심깊은 사색이 류경수의 마음에 옮겨와 세찬 파문을 일으켰다.

《강건동지, 그래서 우리 전사들의 마음은 세상이 열백번 뒤집히고 정세가 역전된다 해도 이렇게 든든한게 아닙니까!》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비범한 령군술과 뜨거운 인간애가 있기에 조국과 민족을 구원하는 오늘과 같은 반공격의 기적이 있는것이고 그 사랑을 생명력으로 철의 무한궤도가 백전백승의 지름길로 전진하는것이 아닌가.

화선의 하늘가에 먼동이 터오고있었다. 출발을 서두르며 땅크발동소리가 고요한 도하장부근을 뒤흔들기 시작했다.

련합부대가 또다시 진격의 길에 오른것이다.

주체82(1993)년

진기한 금방울

백두산이 바라보이는 어느 한 마을에 순호라는 어린 머슴총각이 살고있었다.

그는 왜놈들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 조선사람들을 마구 죽이던 경신년 대 《토벌》때 량부모를 잃고 빗값에 지주집 머슴살이를 하는 소년이었다.

그에게 남은것이란 이제 겨우 열살잡힌 누이동생 뿐이였다.

그런데 악착스러운 지주놈이 어린 분이를 하루 아침에 그 어딘가에 있다는 왜놈순사의 집 부엌 데기로 팔아버렸다.

그들 오누이는 그리움을 안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있었다. 순호는 지주집에서, 분이는 왜놈순사의 집에서...

고된 일에 지쳐 쓰러져 어설픈 잠에 들 때면 한밤중에 우는 소쩍새의 소리가 꼭 오빠를 찾는 분이의 울음소리로 여겨져 울고울던 순호였다.

순호는 늘 작은 어깨에 자기보다 더 크고 무거운 나무짐을 져야 했다. 그러나 그는 나무짐이 작다고 지주녀편네가 행악질을 해대며 때리고 굶겨도 얼마든지 참을수는 있었다. 하지만 생사를 알길 없는 어린 누이동생이 이런 추운 겨울날에 언 손을 호호 불며 큰물독에 물을 채우다가 물통이를 깨고 매를 맞는 모습이 하루에도 열두번 눈앞에 어려와 마음속으로 애타게 동생을 찾고 부르곤 했다.

그러다가 너무도 절통하여 《아버지-어머니- 이런 세상에 왜 우리를 남겨두고 가셨나요!》하며 목놓아울곤 하였다.

그때마다 순호의 부르짖음은 무정한 절벽에 부딪쳐 메아리되어오는것이였다.

해뜨기전인 어뜩새벽부터 자정이 되어오는 밤 늦게까지 순호는 꿩이처럼 돌아가며 일을 했다. 그러나 갈수록 더해지는것은 지주년놈들의 욕설과 매질뿐이였다. 다소나마 기쁨이 있다면 나무짐을 지고 오다가 길녘의 김로인네 집에 들리는 때였다. 김로인은 부모님들이 살아있을적에 순호네와 이웃에 살던 마음좋은분이였다. 그 로인은 아는것도 많고 이야기도 구수하게 할줄 알았다.

순호는 김로인에게서 백두산대장수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제일 좋았다. 축지법으로 땅을 주름잡으며 왜놈들을 삼대베듯 하신다는 백두산대

장수님!

그분이 우리 마을에도 오셨으면...

그런 이야기를 듣는 날이면 순호는 나무짐도 감감 잊곤 하였다.

어느날이였다. 산에 나무하러 갔던 순호는 대낮에 빈 지계를 지고 허둥지둥 김로인의 집을 찾아왔다.

김로인이 웬일인가고 묻기도 전에 순호는 급한 숨을 내쉬면서 자기가 방금 백두산대장수님을 만나뵈왔다고 말하는것이였다.

《네가 그분을 뵈다니?! 그게 참말이나? 덤비지 말고 차근차근 말해라.》

김로인의 놀라움은 이만저만 크지 않았다. 그 역시 날마다 그분의 이야기로 밤을 새우고 그분을 뵈옵는꿈으로 일구월심 살아오는 로인이였다.

순호는 마른침을 꿀떡 삼키고나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깊은 산속에 들어가 나무를 하던 순호는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나무짐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삭정을 쪼고 키낮은 나무가지를 찍었으나 종내는 허기지고 지쳐서 어느 너럭바위곁에 쓰러지고말았다.

마가울의 선들바람이 토스레웃을 껴고 스며들었으나 순호는 그것을 느끼지 못했다...

이때 별안간 어디선가 쿵쿵 발밑을 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호는 사방을 둘러보았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런데 저쪽의 우뚝우뚝 솟은 령마루들마다에서 구름같은 안개가 하얗게 뭉치며 일어나는것이 아닌가.

쿵쿵거리는 소리는 분명 그쪽에서 들려오는 소리였다. 그 소리가 가까와왔다.

순호는 더욱 놀라 눈을 비볐다. 그리고 다시 앞을 보았다. 점차 눈앞이 선명해지더니 웬 거인들이 령마루를 성큼성큼 짚으며 걸어오는것이 보였다. 장수들이 분명했다.

맨 앞장에는 대장수가 섰는데 그 높은 령마루들이 대장수의 발길아래 병풍접히듯 한쪽씩 접혀드는것이였다. 그 한걸음이 10리나 20리는 잘될 것 같았다.

순간 순호는 무엇인가 짚이는데가 있어 무릎을 탁 쳤다.

《아! 축지법 쓰시는 대장수님이시다!》

순호는 있는 힘을 다해 불렀다.

《백두산대장수님!... 대장수님!》

이윽고 대장수님께서 순호를 알아보시었다.

《너는 웬 아이인데 이런 무인지경에 홀로 있느냐?》

순호는 왈각 울음을 터뜨렸다. 대장수님의 부드러운 그 음성이 그만 작은 가슴에 웅이졌던 설음을 터뜨려놓은 것이었다.

그의 속마음을 꿰뚫어보신듯 대장수님께서서는 한동안 순호의 머리를 쓰다듬고계실뿐 아무 말씀도 없으시었다.

《어서 말해라. 넌 어째서 울고있느냐?...》

그 자애로움에 이끌려 순호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빠짐없이 말씀드렸다. 분이와 헤어진 사실까지도...

《오누이가 헤어졌단 말이지...》

대장수님의 목소리는 퍼그나 같아졌다.

《순호라고 했지. 순호야, 이 땅에는 너희들처럼 불쌍한 아이들이 많다. 그 애들이 다 학교에도 가고 마음껏 웃으며 뛰놀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가고있단다. 자, 이걸 받아라. 넌 누이동생을 꼭 만나게 될게다. 지금은 내가 너에게 이것밖에 줄게 없구나.》

순호는 너무도 고마와 머리를 깊이 숙여 절을 드렸다. 그런데 머리를 드니 눈앞의 백두산장수들이 간곳없이 사라졌다.

순호는 한참동안 눈을 비비고나서야 방금전의 일이 꿈이었음을 깨달았다. 꿈이라든 참으로 아쉬웠다. 그러나 아쉬운 마음은 한순간이었다. 그의 손에 정말로 자그마한 방울이 꼭 쥐여져있기 때문이었다. 반짝! 방울이 금빛을 뿌렸다.

손바닥을 펴보니 술방울만한 크기의 작은 금방울이 놓여있었다.

《아! 금방울, 대장수님께서 주신 금방울!...》

순호는 금방울을 가슴에 품고 산을 내리는 길로 김로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그날저녁 순호는 나무짐을 적게 했다고 지주놈에게서 또 매를 맞았다.

《요놈, 어디가서 늦잠을 잤어? 건달뱅이놈...》

지주놈은 개화장을 쳐들어 순호의 머리머 잔등이며 사정을 두지 않고 조겨댔다.

그때 팔랑소리를 내며 순호의 품안에서 금방울이 떨어졌다. 금방울은 눈이 부시게 반짝거렸다.

《엥?! 이게 뭐야?...》

《이건... 이건 내거예요.》

지주놈은 순호의 손잔등을 발로 꼭 밟았다. 그

리고는 입이 헤벌쭉하며 금방울을 집으려 했다.

그랬으나 기겁을 하며 물러섰다.

《이크... 뜨거워...》

아닌게아니라 방금전까지 반짝이던 금방울이 빨갛게 달아있었다. 이상한 일이었다.

지주놈은 약이 올라 금방울을 철퇴를 휘둘러 깨여도 보고 불속에 집어던지기도 했다. 그러나 금방울은 깨여지지도 않고 불속에 넣어도 녹지 않았다.

지주놈이 온종일 금방울과 역사를 벌렸지만 금방울은 팔랑소리를 내며 마루에도 뛰어오르고 방안에도 굴러다녔다.

저녁때가 다 되어서야 금방울을 잡아 가마에 넣은 지주놈은 비지땀을 흘리며 소리를 질렀다.

《애들아! 이제부터 3일동안 가마에 불을 때리라. 기어이 금방울을 녹여버리고말테다!》

이리하여 련3일동안 가마엔 불이 지펴졌으며 가마는 점점 시뻘겅게 달아올랐다.

그랬으나 지주놈은 련속 불을 때라고 고함을 질렀다. 드디어 3일째 되는 밤이었다.

지주놈은 이제 금방울이 다 녹아버렸겠지 하고 가마뚜껑을 열어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뚜껑을 열자마자 금방울은 용수철에 튕기듯 탕 튀어올라 지주놈의 방안으로 굴러갔다.

《저... 저... 금방울 잡아라!》

그러나 금방울은 벌써 지주놈의 집재산을 태우고있었다.

그날밤 《불이야!》 하는 소리와 함께 지주놈의 고래등같은 기와집은 몽땅 타버리고말았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순호가 마을사람들과 함께 타버린 재무지를 아무리 헤치고 헤쳐도 금방울이 보이지않는 것이었다.

《금방울아! 너 어디 있니?-》 순호는 목이 쉬도록 금방울을 찾고 또 찾았다.

다른 한편 왜놈순사의 집에 부엌데기로 끌려간 누이동생 분이도 오빠를 그리며 눈물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있었다.

왜놈계집녀는 어린 분이에게 제 키보다 더 큰 물독세개를 매일 채우라고 심술을 썼고 엄동설한에 강가에 나가 빨래를 해오지 않는다고 앙탈을 부리곤 했다.

어느날인가는 분이의 고운 얼굴이 시샘이 나 화로불을 들썩우기도 했다.

그날밤 온통 화상을 입은 분이는 얼굴을 거적때기에 묻고 서럽게 울고있었다. 이때 반쯤 열려진 문틈으로 《팔랑》하며 난데없이 금방울이 굴

러들어왔다.

《야! 금방울... 넌 어디서 왔니?》

분이가 너무 깜찍스럽고 귀여워 금방울을 품에 안으니 얼굴의 아픔이 순간에 멎고 다시 고운 얼굴로 되돌아왔다.

분이는 그것이 너무도 희한스럽고 믿어지지 않아 금방울을 꼭 천재 잠에 들었다.

이튿날이었다. 분이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왜년이 깜짝 놀라 부엌이눈이 되었다. 어제 분명 불이 펄펄 이는 화로불을 뒤집어쓰워 얼굴이 온통 물집투성이고 텐 자리가 부어올랐었는데 하루밤 사이에 그것이 말짱 없어지고 본래의 얼굴보다 더 고와졌으니 이게 무슨 조화인가.

왜년은 화증이 나서 미칠지경이었다. 분이더러워서 연자방아를 돌리라고 머리끄덩이를 잡아흔들었다. 이 집에서 연자방아는 늘 부림소가 돌리곤 했는데 이날따라 그대는 소대신 분이에게 연자방아를 돌리게 한 것이었다.

짐승도 힘에 겨워 안간힘을 써가며 하는 그 일을 사람이, 그것도 연약한 분이가 해야 한다니 오죽이나 힘이 들랴.

분이가 얼굴을 들고보니 찢어야 할 벼가마니는 산더미처럼 쌓여있었다.

분이는 죽을 힘을 다했으나 연자방아를 열바퀴도 못돌리고 쓰러졌다.

다음날 새벽 분이가 새우잠에서 깨어났을 때였다. 눈을 떠보니 연자방아가 저절로 돌고있는 것이 아닌가.

《히야! 연자방아가 저절로 돈다!》

분이는 너무 희한하여 어쩔바를 모르고 기뻐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연자방아의 채우에 금방울이 올라가있는 것이었다.

《그러니 금방울 네가?...》

결국 금방울이 저절로 연자방아를 돌게 하여 산더미같은 벼를 모두 찢어놓은 것이었다.

하루만에 벼를 다 찢었다는 분이의 말에 왜놈순사와 왜년은 눈이 화등잔만큼 커졌다.

제놈들의 눈으로 이 모든것을 보았지만 섣뜻 믿어지지 않았다.

다음날 또 일감을 그만큼 주었으나 다음날도 역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밤에 눈이 강산같이 내렸는데 분이가 있는 연자방아간 주변의 눈만은 다 녹아버리고 더운 김이 문문 나는 것이었다.

심보가 바르지 않은 왜놈계집년은 분이를 불러

다 생트집을 잡았다.

《누가 연자방아를 돌렸지? 바른대로 말해! 네년이 말 안하고 배길줄 알아?...》

분이가 대답이 없자 그대는 죽어라 죽어 하고 그의 머리칼을 쥐어뜯었다.

그 찰나 분이의 저고리 앞섶에서 《딸랑》하고 금방울이 떨어졌다.

이게 금방울이 아닌가?

《어디서 훔쳤지?》

왜년의 눈은 탐욕으로 반짝거렸다.

《그건 제거예요. 난 훔치지 않았어요.》

《요년아, 네 주제에 금방울이 어떻게 생겨? 도적년아!》

왜년은 분이를 마구 두들겨패고 금방울을 찹쌀게 손에 거머쥐려 했다. 그런데 왜년의 눈이 휘딱 뒤집어지며 그 자리에 나자빠졌다.

금방울이 갑자기 딸랑 소리를 내면서 왜년의 이마를 딱 치고 굴러가는 것이었다.

《여보-어서 이리 좀 와요!》

왜년이 안방에 대고 제 남편을 불러냈다.

왜놈순사는 제 너편네의 말을 듣고 메를 들고 나와 젓먹은 힘을 다 내어 금방울을 내리쳤다. 그런데 금방울은 그때마다 딸랑소리를 내며 메를 피해 요리조리 돌아갔다.

이게 귀신의 조화가 붙은 물건이라고 생각한 왜년은 금방울을 쇠통안에 집어넣고 무거운 돌을 매달아 우물속에 던져버렸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 왜놈순사의 집 부엌에서 꾸르륵 굴럭 꾸르륵 하는 물소리가 나더니 하루 아침에 그 집이 온데간데 없어지고 그 자리에는 큰 호수가 생겼다.

금방울은 서로 헤어져 그리워하던 오누이를 만나게 해주었다.

금방울은 반짝반짝 금빛을 뿌리며 얼싸 안고 돌아가는 그들 주위를 돌아갔다. 사람들은 그제야 그 금방울이 백두산대장수님께서 순호네를 위해 주신 신기한 물건임을 알게 되었다. 그 사연을 알게 된 사람들은 백두산대장수님께서 그러한 금방울을 수많이 가지고계시는데 순호네처럼 불쌍한 아이들을 보시면 아낌없이 주시여 그 금방울이 조화를 부려 악착하고 간악한 지주놈들과 왜놈들을 쳐없애게 하신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었다.

김종석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진실성은 문학의 본성적요구이다. 문학작품은 인간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지고 인류문화사에 길이 전해질수 있다. 아무리 묘사가 세련되고 구성이 짜인 작품이라 하여도 그것이 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지 못한것이라면 쓸모가 없다.》

《당정책적인 대가 바로서고 작가의 사상적의도가 좋은 경우에도 형상이 진실하지 못한 작품은 대중의 사랑을 받을수 없다.》

《문학작품에서 진실성을 살리자면 형상에 생활의 본질을 반영하여야 한다.》

《생활을 진실하게 그리는가 못 그리는가 하는 문제는 창작실무에 대한 문제이기 전에 작가의 량심과 직접 관련되는 보다 중요한 문제이다.

진실한 사람만이 진실한 말을 할수 있고 진실한 작가만이 진실한 작품을 써낼수 있다. 작가는 량심을 가지고 사회앞에 나서야 하며 시대의 량심을 대변하여 대중을 감화시켜야 한다.》

《작가라면 응당 진실한 인간의 본보기, 가식과 변심을 모르는 순결한 량심의 대변자로서 현실을 바로 보고 그려야 한다.》

푸르허의 《머슴》

고남철

우물가의 시퍼런 얼음턱도 까주고
아들잃은 할머니의 초가집마당가에
울바자도 든든히 세워준 온성집 《머슴》
마음 무던한 그 일군이
떡치는 일도 잘할거야

기대어린 눈길, 불러 찾는 목소리 들썩한
푸르허마을 대사집마당에서
실실 김발이 날리는 떡판을 마주하시고
떡메를 들고 나서시였건만
어이하랴. 우리 수령님 그 일만은 못해보셨으니

조선혁명의 진로를 환히 밝히시고
천만가지 세상사를 다 아셨건만
너무도 가난한 가정에서 탄생하셨기에
수령님은 모르시였다
단 한가지 떡치는 그 일만은

생각만 해도 가슴저런 사연들
고기생각이 날 때면
화기병에라도 걸렸으면 하신 어린 시절
단결레 운동화가 귀해
마당안에서는 맨발로 다닌 길림시절

열두살때 집떠나 고생고생 다하신 수령님
한번만이라도 그 일을 하셨으면
그리도 딱하지 않으셨으련만

손설은 떡메질숨씨 남이 모르게
팔을 다쳤으니 그만두라는 조직원의 만류에
백년같은 그 순간은 지났어도
토방도 아닌 맨 봉당에
일군의 뒹으로 떡 한짝 수령님손에 놓아준
아 무정한 푸르허의 인심아

수령님은 떡치는 일을 모르시고...
인민은 수령님을 몰라보고...
그 혼한 나무젓시도 없는 《머슴군》대접을 받으실
때
수령님의 심장을 울린 하나의 생각
-내가 인민의 마음속에 들어왔구나!

진심만이 들어서는 인민의 마음에
그처럼 스스럼없이 들어서신 소박하신 영상
그 인민의 손에 나라를 찾아주시고
한생을 인민의 위대한 아들로 사신
아 수령님 우리 수령님!

《일행천리》 계산법

안정기

전승의 축포가 오르고
복구건설이 한창이던 때
우리 수령님 그리도 바쁘신데
내 살던 읍거리의 한끝
소비조합상점에 들리셨다

상품들은 제대로 확보되는지
간장과 된장 비누며 신발
아이들의 학용품과 놀이감들이
하루에 얼마나 팔리고있는지

인민생활이 늘 마음에 무거우시여
판매대장을 손수 펼쳐드시고
한장한장 번지시던 어버이수령님
-어허, 이만하면 매상고가 괜찮아 .
그런데 계산이 틀렸구만, 3전이 안맞아

기쁘시여 수령님 웃고계시건만
어쩌면 좋으랴 송구한 마음들
얼굴이 고추처럼 빨개진 판매원
큰 죄라도 지은듯 굳어진 상점책임자
초조한 마음으로 서로 쳐다보는 수원들

우리 수령님 넘겨주신 장부를 놓고
주산알을 튀긴 회계원이
정중히 말씀 올렸다

-수령님 옳습니다. 3전이
꼭 3전이 틀립니다...

수령님께선 그대로 웃고계셨다
어떻게 그렇게도 빨리 계산하셨는지
모두가 신기하고 의아한 표정인데
그 마음들을 헤아리신듯
수령님께선 그 비결을 스스로 터놓으시었다

인민생활이 풀려가는 기쁨에
한번 슬쩍 계산해보았다고
장부의 맨끝 수자들만 쪽 내리 합치니
총계보다 3전이 차이 났다고
뭐 기발한 계산법도 아니라고...

수령님 다녀가신 그날 그 저녁
거리엔 새 전설이 날개 돋혔다
-우리 수령님께서
큰 장부책을
순간에 계산하셨다!

빨찌산의 일행천리
축지법으로 계산하셨다!
그러니 복구도 우리 생활도
그 속도로 전진한다!

가사

불빛밝은 만수대

류동호

밤은 깊어 저 하늘의 별들도 잠든 때에
만수대의 언덕우엔 불빛이 흐르네
수령님 바래움속에 전선으로 떠나셨던
우리 장군님을 기다리는 아 불빛밝은 만수대여

수령님께 아침인사 드리며 가셨던 길
전선에서 수령님의 기쁨안고 오시리

달리는 선군야전차 리정표를 비쳐주며
우리 장군님을 기다리는 아 불빛밝은 만수대여

눈비와도 폭풍쳐도 더 밝아지는 불빛
밤하늘에 따사로운 태양의 미소여
수령님 영원한 축복 해빛으로 뿌리며
우리 장군님을 기다리는 아 불빛밝은 만수대여

동갑이

문동식

산골의 작은 농가집
닭을 많이 길러 고개넘어 읍에서도
사람들이 수시로 찾아오는 집
먼 길을 가시던 우리 수령님
이 집 프락에 들어서시여
다정하신 음성으로 주인을 찾으셨네

부엌문이 열리더니
밖에 나오는 소박한 할머니
그만
그 자리에 굳어지는데
우리 수령님 조용히 물으시었네
이 많은 닭을 혼자서 치는가고

할머니는 말씀드렸네
아들딸 모두가 농장에 나가고
자기가 그제 닭들의 《식모》 노릇 한다고
그러자 어버이수령님
허리를 굽히시며 조용히 물으셨네
지금 나이가 몇인가고

할머니는 송구스러워
서슴서슴 간신히 대답을 드렸네
그 순간 우리 수령님
《나와 동갑이구만》
그러시곤 정말 반가워하시며
두손을 뜨겁게 잡아주셨네

(동갑이라니
내가 어떻게 수령님과 동갑이 된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벌스레 숨쉬는것도 조심스러워져
할머니는 마음속으로 또 질책했네
(내가 어떻게 그분의 동갑이 된담)

해가 떠도 그 생각
달이 떠도 그 생각
비가 와도
눈이 와도 그 한 생각

그러는 사이
다락발이 눈이 되고
산촌에도 아담한 새 문화주택
앞산엔
텔레비죤중계탑이 솟아오르고...

이 깊은 산골마을도
이렇게 도시처럼
우리 수령님께서
잠간 만난 이 로친을 기억해주시겠는지...
소급해보면 그날 그 저녁도
이제는 10년세월 더 넘어지나갔으니

그러던 어느해 가을날 저녁무렵
또다시 찾아오신 우리 수령님
《동갑이, 그동안 잘 있었소?》
그러시곤 멀리 흘러간 그날 그때처럼
두손을 잡아 흔들어주시며
이렇게 진심으로 말씀하시었네

《내 그동안 어디 가서나
동갑이의 소식을 다 들었소
닭도 그전보다 두배나 치고
닭알들을 모아서는 탁아소와 유치원에
보내주고있다는 그 소행도
귀한 딸을 시집보낼 때에는
종자닭들을 지참품으로 보내주었다는
그 이야기도 내 방송에서 다 들었소》

그날 할머니는 너무도 황송해
몸돌바를 몰라 허둥지둥
괜히 애꿎은 저고리 웃고름만
손가락에 감았다 풀었다 풀었다 감았다...
그러다가 할머니는 종시
마음속에 깊이깊이 감추고 살던
그 말을 기어이 아뢰이고 말았네

《수령님 제가 어떻게
수령님께 동갑이 되겠습니까?》

순간 우리 수령님
《하 하 하...》
크게 웃으시며 말씀하시었네
《동갑이 아니라니?
동갑중에서도 각별한 동갑이지
닭들을 잘 키워 나를 잘 도와주는
진짜 내 동갑이지
이런 동갑들이 나에게 많아서
이 땅은 어디 가나 정이 드는 내 집이지》

대학현판앞에서

-김형직사범대학 친필현판앞에서-

김정삼

한자 또 한자...
우리 수령님 손수 써주신
대학현판의 저 글발
후더이 바라보는 내 눈앞에
하나 또 하나
뒤바뀌어 어려오는 현판들이 있어라

어린 시절
꽃밭에 뽕뽕 꿀벌들이 날아들던
제강소 유치원마당에 들어설 때
천진한 눈동자에 비껴들었던 붉은 현판
거기엔 내 태어나기전
우리 수령님 다녀가신 날이
밝은 빛을 뿌리고있었어라

소년단벚타이 앞가슴에 타오르던
소학교 꽃대문우에도
정히 걸려있던 또 하나의 현판
파견장 받고 들어섰던 용해장 철대문우에도
기다린듯 안겨오던 현지도도 표식현판

추억의 사진처럼
내 삶의 계단마다 빛뿌리는 현판들

첫 등교의 이 아침 대학에 들어서니
축복의 미소마냥 나를 맞아주는
아, 수령님 새기여주신 대학현판의 글발이여!

보여오누나 저 현판속에
무지개빛 단꿈꾸던 유치원 요람위해
진눈까비 헤쳐오셨던 그날의 어버이수령님자욱
불노을 피는 철의 기지에 찾아오시여
용해공들의 건강이 첫째이라고
절절히 하시던 수령님말씀...

자장가 울리던 삶의 첫 창가에
부모 먼저 닿아진 우리 수령님 손길
오늘은 이름없던 로동청년을 위해
위대한 한생을 기울이시여
한자 또 한자
대학현판의 저 글발 새겨주셨거니

교정의 금빛현판 머리우에 떠이고
자욱자욱 걸어온 길 뒤돌아보는 이 순간
마음속에 새겨진 자욱자욱은
내 삶의 계단마다에 흐르는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이였구나!

얼음덮인 하산포여울목

박희구

7월의 폭양이 쏟아지던 날이었네
우리 장군님 오셨다고
시원한 강바람 일구며
환희의 물보라 날리며
여기 하산포여울목은
크나큰 감격에 설레였네

하지만
엄한의 그 12월에 마음 두신 장군님겐
강기슭에 하얗게 모여드는 물거품도
연포리주막집뜨락에 뽕죽봉에...
김형직선생님 찍어가시던

피어린 탈출의 그 자욱
삼가 덮어주던 흰눈같이 생각되었네

원썩들의 악착한 추격과
뼈를 에이는 혹한
산막의 조난가리속에서 선생님 입으신
모진 동상의 그 아픔
가슴 저미도록 안아보시는 장군님 심중에선
한여름의 무더위속에 사품치는 여울물도
얼음으로 되었거니

눈시울 뜨거이 그이 그려보셨네

두 장대우에 몸을 싣고
배밀이로 한치 또 한치...
깨어질듯 위태로운
엷은 얼음 덮인 하산포여울목으로
끝내 압록강 건느시던 그 불굴의 기상

무장한 원쑤는 무장으로 쳐부시고
조선이 독립되면 다시 돌아오리
조국산천에 불같이 남기신
선생님의 그 맹세 뜨겁게 새기시며
저 멀리 장군님 바라보신 추억의 도강지점도
얼음덮인 압록강의 포평나루

마음속에 총대기둥 세우며 다지신
우리 수령님의 해방의 그 맹세 싣고
압록의 물결 굽이굽이 흘러내려

아 장군님 우러러 안길듯 솟구치며
걱정을 터치던 하산포여울목...
아 위대한 3대에 이어진 총대위업
우리 장군님 빛내주시여
오늘은 선군시대의 격류가 장엄 도도히
온 조국땅우에 굽이쳐 흐른다고
소리높이 노래하는 너 하산포여울목이여

잊지 말자
7월의 폭양속에
네 여울물 사품치던 그날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엔
그 12월의 얼음 덮인
너 하산포여울목이 안겨있었음을...

어머님은 서계셨더라

박창혁

어머님은
강반석어머님은
오래도록 서계셨더라
소사하 작은집 뜨락에
저 멀리 바라보심은
항일의 전구로 떠나가시는
아느님이신 **김일성** 장군님의 모습!

효성어린 줍쌀 한말
안고 오신 아드님과
긴긴날을 두고 하시고픈 이야기
얼마나 많았으랴
하건만 떠나보내지 않으면 안되셨던
어머님의 심중이여!

한 어머니를 걱정하기 앞서
빼앗긴 내 나라
불쌍한 우리 민족을
생각해야 한다시며
나라찾는 그날까지
집걱정 아예 말라고
병색질은 얼굴에
밝은 웃음 지으시던
아 우리 어머님

한가정의 아들이기전에

이 나라 이 민족을 구원할
혁명군의 사령관이였기에
어머님은
겨레의 사랑을 모아
이렇게 말없이
바래우시지 않으면 안되였구나

어머님은 지금 듣고계셔라
칠칠이 이 나라에 드리운
무거운 어둠을 헤쳐
큰 자욱을 떼고계시는
아드님의 거룩한 발자욱소리를

이제 저 발걸음따라
온 민족이 일어나
일제와의 관가리싸움에 나서리라
저 발걸음 닿는 곳마다에서
원쑤들은 전몰하리라

어머님은 오래도록 서계셨더라
멀어지시는 아드님을 바래워
그것은 결코 배웅이 아니였다
오, 해방의 그날로
우리 수령님을 힘있게 떠밀어준
그것은 위대한 사람의 힘이였거니!

수령영생위업의 빛나는 10년세월에 대한 감동적인 서사시적화폭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에 대하여-

김봉민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김만영작)는 위대한 수령님의 서거 10돐에 즈음하여 수령님의 령전에 삼가 드린 시이다.

시에서는 민족의 아버지를 잃고 보낸 10년력사를 통하여 우리 인민이 과연 얼마나 위대한 수령을 모시고있었는가를 눈물겹게 회고하면서 세월이 흘러가도 인류의 태양이시며 만민의 아버지이신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서 영생하신다는것을 감동깊은 시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수령의 형상을 창조하는것은 주체문화건설의 기본의 기본이다.》

인류의 태양이시고 위대한 인간이신 아버지 수령님의 서거는 우리 인민뿐아니라 전세계진보적인류의 크나큰 상실의 아픔이였다.

서사시에서는 위대한 인간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위인적품모를 시적화폭으로 펼쳐보이면서 이 세상에 태양이 솟아있고 지구가 깨여지지 않는 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대를이어 계속될것이며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은 억만년세월이 흘러도 인류의 마음속에 영원히 새겨져있을것이라는것을 예술적으로 힘있게 확증하고있다.

1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에서는 위대한 수령님을 잃고 보낸 우리의 10년세월은 과연 어떻게 흘러왔는가 하는 의의깊은 문제를 작품의 주체로 내세우고있다.

하늘도 울고 땅도 꺼진듯 했던 잊을래야 잊을수 없는 피눈물의 7월부터 어느덧 10년세월이 흘렀다. 학교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며 공부하고있는 10살의 소년들이 바로 피눈물의 그해에 태어난 아이들이고 조국의 고지를 지켜 언땅에 배를 붙이고 군사복무의 나날을 보내고있는 인민군군인들이 바로 그 나날 꽃송이를 눈물로 적시던 꼬마들이였으며 오늘의 60대사람들이 그날의 50대사람들이였다. 지나온 10년세월은 그 어느 세월보다 아픔도 많았고 시련도 많았지만 우리 인민은 용감하게 일떠서 거창한 역사를 창조하였다.

과연 아버지수령님을 잃고 지나온 10년의 력사를 통하여 우리가 받아안게 되는것은 무엇인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물며 새로운 기적과 놀라운 사변들로 이어지는 21세기의 오늘에야 어찌 강산의 변화에만 이르랴!

그러나 놀라운 사변으로 가득찬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변하지 않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우리의 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이다.

작품의 1절에서는 우리 수령님을 잃고 지나온 10년세월은 인민이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한 그리움의 나날이였다는것을 밝히고있다.

시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흐르는 세월이 그리움의 자욱을 남긴다면
여기에 다 새겨졌으리
그리움이 머무는 곳이 있다면
이 언덕에 다 있으리
우리 마음이 끝없이 올라 쌓이고쌓인
해빛밝은 만수대

승업함과 경건함을 안고
내 조용히 화강석층계를 오르니
예나제나
여기만은 변함이 없구나
이 행성에서 유일하게
고요와 정적을 모르는 곳
물결처럼 파도처럼
사람들의 발길이 끊기지 않는 곳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수령님과 맺어진 수많은 사연들을 안고 생각깊이 층계를 오르는 인민들의 모습은 수령님 생전에나 오늘에나 변함없는 한 모습들이였다.

하기에 시에서는 흐르는 세월에는 과거가 있어도 아버지수령님을 그리는 인민의 마음에는 과거가 없다고 절절히 토로하고있는것이다.

그리움은 정이다. 하기에 옛 시인들도 님을 그리는 인간의 정을 노래한 시들을 많이 남기였다.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은 우리에게 그것없이 한시도 살수 없는 공기이며 목숨이고 이 그리움은 심장이 심장으로 통하는 길, 이 세상 그 어떤 구름으로도 가리울수 없는 빛이고 삶의 전부인것이다.

시에서는 70여성상 조국과 인민을 안으시고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끄신 우리 수령님이시고 사상에서나 령도에서나 풍모에서나 그 누구도 따를수 없는 우리 수령님이시였지만 너무도 소박하시고 너무도 평범하신분이기때 인민이 서있는 자리에 자신을 세우시였고 인민이 앉는 노전과 명석우에 허물없이 앉으시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한평생 너무도 고생을 많이 하신분이여서 인민들이 정성을 담아 큼직한 의자를 만들어올리였을 때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였던가.

-이런 의자에 앉으면
인민과 인차 간격이 생기오
나는 왕도 아니고 황제도 아니요
그저 인민의 심부름군이지
그 심부름을 잘못할가봐 늘 걱정이요

참으로 우리 수령님은 《이민위천》을 평생 좌명으로 삼으신 위대한분, 한평생 인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하면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여주신 자애로운 아버지이시였다.

이런분과 헤어져 우리는 살수 없다. 이 행성에 햇빛이 없고 공기가 없고 하늘이 없으면 살수 없듯이 위대한 수령님과 떨어져 우리는 순간도 살수 없다.

하기에 시에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우리 수령님과 인민의 혈연의 뉴대를 공고히 해주시려 오시는 수령님과 인민이 함께 사는 금수산기념궁전, 태양의 집을 안겨주시였으며 그 지붕아래에서 우리 인민은 그리움의 바다, 수령영생위업의 광활한 대지를 펼쳐본다고 절절히 토로하고있다. 그러면서 그 대지에서는 밝고 청신한 정기가 넘치여 인민의 행복이 끝없이 꽃피나고 민족번영의 노래가 끝없이 울려 퍼지며 맑은 하늘에서는 전설의 백학들이 날아오고 그 하늘아래 그 대지우로 우리 수령님 태양의 미소 강산에 뿌리시며 21세기의 한복판을 걸어가신다고 뜨겁게 노래하고있다.

이렇게 시에서는 우리 수령님과 인민의 혈연적 관계를 시적화쪽으로 펼쳐보이면서 지나온 10년 세월은 우리 인민이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하고 또 그리워한 그리움의 나날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2절에서는 우리 장군님께서 지난 10년 세월 세월의 주인이 되시여 우리의 혁명력사를 이끌어오시였다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흐른다. 하여 세월에는 주인이 없는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10년세월에는 세월의 고삐를 틀어쥐시고 세월을 이끌어오신 주인이 계시였으니

그이는 바로 하늘이 낸 절세의 영웅이신 **김정일** 장군님이시였다.

그이가 세월을 이끌고 오시였다
세월이라도
7월의 피눈물에 젖고
눈비에 젖고
고난과 시련이 덧쌓여
지구보다 무거운 우리의 10년세월을
이 만수대언덕아래로 이끌어오시였다

정녕 우리의 10년은 인민의 너무도 많은 피눈물이 쌓이고 눈비가 쌓이고 그 류레없는 고난과 시련으로 하여 지구의 무게보다 더 무거운 력사의 나날이었으니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 세월을 이끌어 력사를 전진시키시였다.

오늘도 돌이켜보면 기억에 생생한 1995년의 새해 첫아침.

온 세계의 통신이 평양의 파장에 맞추고 세계의 이목이 평양에 집중되여있던 그 시각 우리가 받아안은것은 무엇인가. 새해신년사를 기다리고있던 우리가 받아안은것은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게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서한이였다.

순간 우리 군대와 인민은 7월의 크나큰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우리 장군님의 위대한 심장으로 터치는 장엄한 포성을 격정에 휩싸여 들었던것이다. 하여 우리 장군님을 따라 우리의 세월은 수령영생위업의 표대를 향해 전진하였으며 그 길에서 장군님께서 전진하는 대오의 앞장에 서시여 거대한 활력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던것이다.

서사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걸음을 멈추시면 위대한 수령님의 심장이 고동을 멈추기에, 장군님께서 순간이라도 쉬신다면 인민의 전진이 늦어지기에 쪽잠과 꿇기밥으로 끼니를 예우시며 선군혁명의 천만리길을 이어가시며 자신의 모든것을 기꺼이 바치시는 장군님의 불멸의 로고를 걱정애 넘쳐 절절히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형상을 통하여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군으로 여기시고 인민을 위해 한평생을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의 생전의 뜻을 그대로 이어받으시여 우리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낙원으로 꾸리시기 위해 이 세상 모진 고생을 다하시며 인민의 기쁨에서 자신의 기쁨과 행복을 찾으시는 아버지장군님의 모습에서 위대한 수령님과 꼭 같으신 거룩하신 영상을 우러르게 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력사의 고삐를 틀어쥐고 오셨기에 《고난의 행군》, 강행군도 우리는 성과적으로 이겨냈고 그 나날에 태어난 우리의 후대들이 그리운 대원수님을 우러러 새해인사를 올리고

있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유훈을 이 땅
우에 활짝 꽃피우시기에 수령님은 어제든 오늘도
태일에도 영생하시는것이다.

그렇다
수령님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다
우리 장군님
지구의 자전과 공전으로 흐르는 세월우에
실려오던 력사를
주체의 년호우에 실었기에
수령님의 력사에는
과거도 국경도 신앙도 없나니

보라, 세계여
년대와 년대를 넘어
세기와 세기를 넘어
김일성동지의 위대한 혁명력사
주체의 력사는
선군의 한길로 찬란히 빛발치며
도도히 흐른다 굽이쳐흐른다

이렇게 시에서는 지난 10년세월 위대한 장군님
께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계승하여 선군
의 새 력사를 창조하여왔다는것을 감동적인 시적
화폭을 통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의 3절에서는 1 절과 2절에서 축적된 감정
들을 더욱 승화시켜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
은 한분이시며 수령님의 혁명위업은 **김정일**장군님
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되고있다는것, 때문에 우
리 수령님은 인민의 마음속에 영생하시리라는것
을 신념에 찬 정서로 격조높이 노래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우리 장군님은 한분이시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이 땅우에 수천년 휘감겨있던 폐기논두렁들을
밀어내고 드넓은 규격포전들이 펼쳐진것이며 강
을 가로지른 발전소언제들과 현대적인 공장들이
일떠선것, 새 물길과 청년영웅도로가 뻗어가고
동해의 소금밭이며 희한한 양어장이 펼쳐지는것
등의 세기적변혁들은 바로 우리 수령님께서 인민
들에게 안겨주시기 위해 늘 마음쓰시던것들이였
다. 이 모든것이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
래 솟아났으니 정녕 장군님은 민족의 아버지, 만
민의 태양이시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우리 수령님께서 지니셨
던 총대중시사상을 그대로 이어받으시고 그것을
자신의 신념으로 삼으시고 억세고 미더운 총대로
수령님의 사상을 빛내이고 수령님의 유훈을 꽃
피우고 수령님의 영생을 지켜드리고계신다.

하여 이 총대우에서 아버지수령님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 민족의 영원한 아버지로 높이 모
시고 자주권을 생명으로 하는 하나의 크나큰 집,
하나의 대가정을 펼칠수 있었고 이 집에서 태어

난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에 가는 길 어려워도 배
일을 바라보며 웃을줄 아는 시대의 영웅들로 자
라나고있는것이다.

정녕 우리 공화국은 위대한 수령님의 생전의
뜻, 생전의 념원이 그대로 꽃피난 화목한 대가정
이며 우리는 그 집에서 끝없는 행복을 누리며 사
는 복받은 인민이다.

시에서는 이 땅에 이룩한 전변을 두고 우리 수
령님의 생전의 념원을 생각하시는 우리 장군님의
영상이 뜨겁게 안겨오고있다.

-우리가 오늘의 정세하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을 창조할수 있는것은
수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셨기때문입니다
수령님의 혁명력사에는
모든 승리의 비결
모든 성공의 열쇠가 다 있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백전백승하는것은
우리 혁명의 법칙입니다

참으로 위대한 **김정일**동지는 위인의 위업을 그
대로 이어받으시고 수령영생세월, 태양의 세월을
안아올린 력사의 어머니이고 력사의 사령관이시
다.

하기에 시에서는 우리의 10년세월은 선군총대
로 제국주의의 솜통을 눌러디디고 혁명적군인정
신, 강계정신으로 세상을 놀래우며 력사를 전진
시켜온 위대한 10년이라고 노래하고있으며 이 10
년은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이 길이길이 민족의
영광을 누리며 펼칠 력사의 대기념비로 높이 솟
아 빛을 뿌릴것이라고 절절히 토로하고있는것이
다.

2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는 선군시
대에 출현한 새형의 서사시로서의 예술적특성을
가지고있다.

시는 일관한 이야기줄거리를 가지고있지 않지
만 서정적주인공의 감정정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기에 력사적인 사건, 사실에 대한 시적형상으
로 시대와 인간들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서사적화
폭을 펼쳐보이고있다.

작품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
은 한분이시며 백년이 가고 천년이 가도 우리 인
민의 마음속에서 영생하신다는것을 10년세월에
있었던 력사적사실들에 대한 시적일반화를 통하
여 일관한 흐름을 이루면서 노래하고있다.

서사시에서 시인은 지나온 10년세월은 인민이
우리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한 그리움의 나날이
였다는것을 강조하면서 력사적인 의의를 가지는

세부와 일화에 대한 시인-서정적주인공의 주정토로와 설화로 시화하여 정서적흐름을 이루게 하고 있으며 시상을 승화시켜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을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 세기를 창조해나가고있다는 보다 더 큰 체험세계에 독자들을 이끌어가고 있다.

시에서는 너무나 위대한 수령님이 그리우시여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때없이 영화를 보시며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시였다고 절절히 토로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 장군님께서는 이 땅의 어디를 가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쌓으신 불멸의 업적을 보시였고 초소와 초소, 고지와 고지, 찾고 또 찾으시는 이 나라 집집이며 만나는 사람모두가 그리도 친근하여 보이는 모든것, 들리는 모든 곳에서 수령님의 숨결과 체온을 온몸에 느끼시였다고 가슴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시에서는 또한 우리 수령님을 잃고 수령님을 끝없이 그리워한 우리 인민들의 지나온 10년세월에 대한 추억깊은 시적형상을 펼쳐보이면서 정서적 체험세계를 승화시켜나가고 있다.

이러한 시형상을 통하여 서사시는 지나온 10년 세월이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고한 뜻과 로고에 의하여 아버지수령님의 사상이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 영원히 빛난다는것을 거창한 서사적 화폭으로 펼쳐보이고 있다.

서사시에서는 때로는 시적세부형상을 보여주며 서사적 화폭을 펼치기도 하고 때로는 세부를 제시하고는 그에 대한 시인의 주정토로로 감정정서를 이어나가면서 시의 기본흐름을 이끌어나가고 있다.

서사시에 제시된 새해 첫아침에 서한을 보내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에 대한 형상과 장군님께서 몸소 혁명의 진두에 서시여 선군령도로 사회주의조국을 수호하시는 위대한 로정우에 새겨진 감동깊은 사실들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작품은 강한 극적전인력과 함께 이야기의 줄기찬 흐름을 담보하고 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의 10년세월을 이끌어오시었기에 우리 인민은 승리와 영광을 떨쳐올수 있었다는것을 폭넓은 체험세계를 통하여 시적으로 훌륭히 일반화하고 있다.

시에서는 지구보다 무거운 세월의 주인이 되시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킨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한 불멸의 형상을 통하여 장군님께서 계시었기에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헤치고 승리할수 있었다는것을 깊은 정서적 체험으로 노래하고 있다. 그러면서 시에서는 새해 첫 아침에 서한을 보내여 전체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으며 족잡과 제기밥으로 끝없는 선군혁명의 천만

리길을 이어가시는 우리 장군님께서 계시었기에 새 세대들도 전세대와 함께 수령님을 영원한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한 내 나라 내 조국을 건설해 나갈수 있는것이라고 뜨겁게 노래하고 있다.

또한 위대한 수령님 이야기는 과거가 아니라 오늘에도 영원한 아버지에 대한 칭송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것을 노래하면서 오늘의 역사를 주체의 년호우에 실어 수령님의 역사를 빛내이시었기때문이라는것을 줄기찬 정서적 흐름속에 시적으로 일반화하고 있다.

서사시에서는 또한 선군총대로 내 나라, 내 조국을 천지개벽의 살기 좋은 락원으로 꾸려주시는 우리 장군님의 혁명활동을 력사적인 사실과 감동깊은 시적세부에 대한 형상을 통하여 노래하면서 아버지수령님과 장군님은 한분이시며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지구가 깨진다 해도 사회주의조선의 시조이시며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인민의 심장속에 영생하신다는 시대의 진리를 서사적인 화폭으로 힘있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하여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총대로 우리 수령님의 유훈을 꽃피워나가고계시기에 우리 조국은 필승불패의 강국으로 자라날수 있었다는것을 단편적인 사실에 대한 정서적인 느낌으로가 아니라 거창한 폭과 심도를 가진 굵은 감정정서선으로 판통시키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백년천년 세월이 흘러도 아버지수령님은 인민의 심장속에 영원히 살아계실것이라는 작품의 총적 주장을 서사적인 화폭으로 해명하고 있다.

이처럼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는 일관한 이야기줄거리는 없으나 서정적으로 정화된 빛나는 시적세부들과 다양한 사실자료들이 시인의 주정과 설화로 이어지면서 정서적흐름을 이루게 하고있으며 위대한 시대의 현실을 화폭적으로 펼쳐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바로 선군시대에 새롭게 출현한 새형의 서사시로서의 예술적특성이 있다.

서사시 《백년이 가도 천년이 가도》는 또한 작품에서 제기한 문제를 시적으로 형상하는데 맞게 시어들을 독특하고 뜻이 깊은 어휘들로 선택하여 구사함으로써 훌륭한 예술적특징을 보이었다.

서사시에서는 서정의 밀도를 가지고 함축되면서도 격동적인 흥분과 환희로 충만된 시어들과 뜻이 깊고 간명한 표현들로 서사시전반을 판통하고 있다.

심원한 폭과 깊은 심도를 가지고 웅건한 시형상을 이끌며 거세차고도 열정적인 서정으로 깊이 있는 사상을 정서적이며 격동적인 운물로 노래한 서사시는 우리 조국의 선군시문학의 또 하나의 대표작이다.

력사의 새벽길에 울린 노래

박명선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있다. 가수가 아닌 나에게도 각별히 사랑하는 《지정곡》이 있다. 그것은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운동의 탁월한 지도자이시며 민족주의운동으로부터 무산혁명에로의 방향전환의 위대한 선구자이신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이다.

어떤 오락회에 참가하여 지명을 받아도 이 노래를 부르고 명절이나 쉬는 날 같은 때에 음악감상을 하여도 이 노래를 먼저 듣곤 한다.

김형직선생님의 탄생기념일이 다가오는 7월의 이 아침 방송에서 울려나오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웅엄한 노래소리를 듣노라니 지난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이 감회깊게 되새겨졌다.

내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동무들앞에서 처음으로 부른것은 중학교 2학년때였다.

송도원소년단야영소(당시)에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있던 어느날 야영소에 미술선생님이 나오더니 오늘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대상을 선택하여 풍경화를 한점씩 그리라고 하였다.

《어떤 그림을 그릴까?》

야영생들은 저저마다 고개를 가웃거리며 생각에 잠겨있었다.

그때 문득 나의 뇌리에는 푸른 소나무 생각이 번개쳤다. 전날 음악감상시간에 야영소의 음악선생님은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들려주면서 이 노래에 깃든 가슴뜨거운 이야기를 감명깊게 들려주었던것이다.

바라보니 야영소마당옆에 두그루의 소나무가 쌍보초처럼 하늘높이 우뚝 서있었다.

사나운 폭풍속에서도 굽힐줄 모르는 꾀꾀한 기상을 안고 일년 사계절 언제나 푸르려 설레이는 소나무!

나는 이 소나무들을 물결범으로 그렸는데 아주 잘 그렸다고 미술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

그림그리기가 끝나자 이어 오락회가 벌어졌는데 공교롭게도 내가 첫 지명을 받게 되었다.

나는 일어서서 야영생들을 둘러보며 말하였다.

《오늘 나는 방금 소나무를 그렸기때문에 노래 역시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부르겠습니다.》

그러자 동무들은 열렬히 박수를 쳐주었다.

이날 부른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그때부터 나의 《지정곡》으로 되었다.

그런데 내가 이 노래를 좋아한다는것을 오늘은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알려지게 되었다.

지난해 겨울 어느날이었다.

인민군대에서 표창휴가를 온 아들애를 축하한 다면서 동창생청년들이 방 한가득 모여와 오락회를 벌리었다.

오락회가 거의 끝나갈무렵이었다. 사람들을 웃기며 오락회를 끌고나가던 공장청년이 나서며 말하였다.

《이번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아들을 모범군인으로 키운 박영광동무의 아버님이 독창을 하겠습니다. 부를 노래는 <남산의 푸른 소나무>.》

그러자 유쾌한 웃음소리와 함께 방안이 떠나갈 듯 우렁찬 박수가 쏟아져나왔다.

너무도 신통히 나의 《지정곡》을 알아맞춰 한 동안 어안이 병병해있다가 한마디하였다.

《아니, 노래부를 사람과 토론도 없이 곡목까지 소개하는 법이 어디 있나?》

《아버님두 참, 저희들과 오락회가 뭐 처음입니까. 아버님의 첫 노래는 언제나 <남산의 푸른 소나무>, 재청은 <세상에 부럼없어라>, 3청을 받으면 <압록강 2천리>, 저의 말이 틀립니까?》

《젊은이의 말이 옳네, 옳아.》

그러자 청년들은 또 와하고 즐겁게 웃었다.

그제야 더듬어보니 이 청년들의 중학시절 야유회를 비롯하여 오락회에 참가한것이 정말 한두번이 아니었다.

나는 그들이 소개한대로 《지정곡》인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불렀다. 2절부터는 청년들이 박자박수를 치면서 나와 함께 합창하였다.

그날 오락회가 끝났을 때였다. 나를 지명했던 공장청년이 싱글벙글 웃으며 묻는것이였다.

《아버님은 아는 노래가 많겠는데 어이하여 매

번 <남산의 푸른 소나무>만 부릅니까?》

청년들의 눈길이 일시에 나에게로 쏠리었다.
그들모두의 호기심을 끄는 질문인것 같았다.

《선물도 부드럽고 음역도 넓지 않아 부르기 좋은데도 있지만 보다는 심오한 뜻이 담긴 의의가 큰 노래이기때문일세.》

이렇게 말머리를 펜 나는 심중의 생각을 터놓았다.

주체7(1918)년 가을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감옥에서 나오신후 조국해방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이기 위하여 고향 만경대를 떠나시면서 혁명적인 시가작품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지으시었다.

남산의 저 푸른 소나무가
눈서리에 파묻혀서
천신만고 괴롭받다가
양춘을 다시 만나 소생할줄을
동무야 알겠느냐

단순한 하나의 시가작품으로만 볼수 없는 웅심 깊고 격조높은 민족재생의 선언문이었다.

이 노래는 일제의 침략과 갖은 략탈의 모진 눈서리를 투쟁으로 녹여내고 해방의 새봄을 안아오는 성스러운 혁명의 길로 온 민족을 불러주는 절절한 호소였으며 몸이 찢겨 가루되어도 굴함없이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조국해방을 이룩하리라 2천만겨레의 불타는 맹세이기도 하였다.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원》의 높은 뜻을 담으시여 앞서 지으신 노래 《자장가》, 《명신학교교가》, 《전진가》들에도 일제를 증오하고 놈들과 싸워야 한다는 사상이 새겨져있다.

그러나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은유적인 방법으로써가 아니라 모든 형상표현을 정면으로 로출시켜 일제를 격멸소탕하는 해방전으로 더 힘있게 호소한 혁명가요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지난 시기 조선혁명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노래로부터 시작되었고 노래속에서 전진하여왔으며 노래와 함께 승리한 혁명이라고 하신 명언에 비추어보면 가요 《남산의 푸른 소나무》는 력사

의 새벽길에 높이 울린 장엄한 행진곡이었다.

김형직선생님께서서는 이 신념의 노래와 함께 일제의 검은 구름 뒤덮인 혁명의 초행길을 투쟁으로 헤치시며 파란많은 해방의 길을 열어나가지었다.

선생님의 그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드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애국, 애족, 애민의 사상을 불후의 고전적명작 《사향가》에 담아 부르시며 20성상 피바다 만리, 눈보라 수십만리를 헤쳐넘으시고 이 땅우에 해방의 새 아침을 안아오시었다.

노래속에 전진하여온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전통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통남산에 오르시여 태양의 위업 해빛으로 이어가실 력사의 맹세를 불후의 고전적명작 시가 《조선아 너를 빛내리》에 담으시고 그 맹세대로 오늘 주체의 선군혁명 위업, 세계자주화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신다.

이야기를 마치면서 나는 청년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노래로 시작되고 노래로 승리하고있는 우리 혁명이기에 나는 혁명의 새벽길에 태어난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더없이 사랑하는걸세.》

청년들은 흥분으로 상기된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들은 김형직선생님께서 지으신 노래의 깊은 뜻을 오늘 더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처럼 의의있는 노래이기에 어느해엔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개막공연을 <남산의 푸른 소나무>합창으로 시작한적도 있습니다.》

《자, 그럼 의미깊은 혁명의 노래를 우리 다시 한번 합창으로 부릅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공장청년의 지휘에 맞추어 노래 《남산의 푸른 소나무》를 소리높이 불렀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노래가 방송에서 또 나와요.》

손녀애가 달려와 안기며 흔드는 바람에 나는 생각에서 깨어났다.

김일성 조선의 기상을 담고 백두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의 선군의 기치높이 휘날리는 7월의 하늘가로 노래는 끝없이 메아리쳐갔다.

《남산의 푸른 소나무》의 절절하고 풍만한 선율이...



안동춘

보통강기습의 불박이낚시꾼들치고 진두찬의 얼굴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다.

장대한 제격에 회색회색한 은발, 물안개 자욱한 이른 아침이나 해지는 저녁이면 흘러가는 강물앞에 서있는 그를 보게 된다. 신비로운 목상속에 어제날의 추억을 붙잡는듯, 하지만 한낮이면 이곳 관리원들의 일손 도와 떠들썩하는가 하면 갈껌심한 아이들의 배놀이를 지켜 잔소리많은 《보모》가 되기도 한다.

전국로병대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짜- 하게 퍼져가던 무렵의 어느날 저녁, 집으로 발길을 옮겨놓던 진두찬은 버들숲속에서 한줄기 연기가 피어오르는것을 발견하고 그리로 갔다.

남방사쓰차림의 청년 셋이 불고기를 해대고있었다. 열리터짜리 비닐백주통을 놓고 부어라 마셔라 하던 그들은 느닷없이 나타난 상대가 로인임을 알자 반갑게 례의를 표시했다.

《아바이, 한조끼 하십시오.》

《자, 여기 와서 앉으십시오.》

허나 진두찬은 흐려진 얼굴로 불고기관만 묵묵히 바라보았다. 이곳 풍치에 어울리게 놓아두었던 피석 두개를 뽑아다 불고기관 밑돌로 고였던 것이다.

젊은이들은 로인이 성난 원인을 알아차렸다.

《아바이, 이 돌때문에 그러십니까?》

눈치빠르게 생긴 상고머리가 물었다.

《그래 잘못된것이라는건 아는군.》

《그야 물론이지요, 두루 찾아보다 없기에-》

《그럼 도로 가져다놓게.》

《아바이!》

얼굴이 벌겋게 익은 세 청년은 거의 동시에 부르짖었다. 통투무레한 얼굴의 청년이 언짢은 기색으로 말을 이었다.

《아바인 너무하십니다. 독투에도 용수가 있는데-》

진두찬의 굵다란 눈썹이 다쳐놓은 누에처럼 몽크라졌다.

《이 녀석들이 당장 옮겨놓지 못할가.》

벼락치듯 한 소리에 세 청년의 눈이 어항단지

처럼 커졌다. 통투무레한 얼굴은 들었던 맥주조끼를 말뚝박듯이 풀판에 내려놓았다.

《아바이, 아바인 도대체 뉘신데 이런판에 와서 야단입니까?》

《뭐라구?... 내가 누군가구... 그래 아무 사람이면 어쩔단 말이냐.》

《아바이, 좀 자중해주십시오. 사실 우린 이 동무때문에...》 상고머리가 옆에 앉은 통투무레한 얼굴을 가리키며 화해조로 말했다.

《이 동문 이번 로병대회를 계기로 인민군대입대를 탄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동무의 장한 결심이 성사되기를 축원해서...》

《군대입대?... 그렇다면 더욱 채심을 해야지. 군인이란 매사에 모범이 돼야 한단 말이다.》

《헛, 무슨 무력부 장령쯤 되는것 같군요. 그러니 아바이도 군사복무를 하셨구 군대문세를 잘 안다는거군요. 그래 아바인 전쟁때 굉장한 공이라도 세운가부지요.》

그 말에 진두찬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격한 숨결을 내리누르며 씹어뱉듯 말했다.

《그렇다, 군사복무도 했구 공두 세웠다. 미제놈을 수백놈이나 제졌다.》

《허허-》

통투무레한 얼굴은 황소영각하듯 웃음을 터뜨리고는 굳어져있는 동료들을 둘러보았다.

《수백놈이래, 수백놈?! 허허, 아바이. 팡포는 좀 작작 놓으라요.》

진두찬의 얼굴이 삽시에 재빛으로 변하며 붉은 반점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주먹쥔 손이 당장 무슨 일을 칠것처럼 우들우들 떨었다.

《내가?... 팡포쟁이라구. 허-》

그의 입에서는 뜻밖일 정도의 허파 빈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그리고는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서 천천히 걸음을 옮기었다. 이제껏 말없이 앉아있던 청년과 상고머리가 황급히 일어나 그에게 달려왔다.

《아바이, 노하셨습니다. 저 친군 취했습니다.》

《됐다... 돌은 꼭... 가져다놓거라.》

《네, 그야 꼭 그렇게 하지요. 아바이, 우리와

좀 앉아 기분이나 돌리고 가십시오.》

진두찬은 붙잡는 손들을 뿌리치고 그냥 걸었다.

밤에 그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청년들이 야속하고 섬세했으나 한편 자기자신에 대해서도 원망이 갔다. 로병대회가 열리게 된다는 소문을 들은뒤부터 확실히 마음이 좀 뜬것 같다. 그때문에 차근차근 타일러 설복할 일도 피대줄을 돌려 꺾 소리를 쳤으니 그러한 반발을 살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하고 나무랐다. 다음날 아침 일찍 집을 나선 그는 불고기판을 벌렸던 장소로 갔다. 풀판에는 엇저녁모양 그대로 두개의 돌이 연기에 흐느쳐 자빠져있었다.

진두찬은 입안의 소리로 뭐라 웅얼웅얼하며 그 돌을 마른 풀로 닦고 두손받쳐 쳐들었다. 한창때의 기운을 믿고 들긴 했으나 옮겨가기가 조련치 않았다. 두번째 돌을 안고 《꿈》 힘을 주며 일어서던 그는 불시에 뒤통수가 찢터해지며 눈앞이 캄캄히 흐려들었다. 너무 갑자기 힘을 쓴통에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며 잠시 심호흡을 한후 끝내 그 돌을 들어 제 자리에 가져다놓았다. 그 돌에 앉아 한식경이나 숨을 톹고 어정어정 집쪽을 향해 걸어갔다.

이날부터 진두찬의 모습은 영영 사라져버린듯 싹게 두번 다시 강기슭에 나타나지 않았다. 피석 두개를 들어 옮긴 때부터 진두찬은 눈에 동통이 오더니 하루밤 자고난 뒤부터는 눈앞의 사람마저도 얼굴이나 겨우 분간할 정도로 시력에 급격한 손상이 왔다.

옛날 자기를 치료해주었던 군의국 박사를 만나고 돌아온 그는 병상태가 어떠냐 하는 처의 물음 같은것은 아예 귀박에 흘리며 침대에 누운채 진종일 천정만 머뭇머뭇 쳐다보다가 다음날 아침부터는 시내돌이를 시작하였다. 만경대, 대성산, 전승기념탑전설장, 통일거리... 어텐들 안갔으랴.

바지가랭이가 온통 흙투성이가 되고 구두코의 여기저기가 잔뜩 긁혀 돌아온 남편의 형색에 안해는 어지간히 놀라면서도 일종의 희망과 반가움을 안고 물었다.

《이젠 눈이 일없는 모양이에요. 어델 갔댔어요?》

진두찬은 너털웃음을 웃었다.

《실컷 보자는거요, 실컷!》

저녁상을 물리고나자 그는 사진첩들을 몽땅 가져오라고 하였다. 어느때없는 이상스러운 태도에 안해는 이름할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다.

진두찬은 안해와 자식들이 이 며칠새 구해온 여러가지 돋보기안경들을 엿바뀌 걸어보다 집어 던지고 안해에게 호령했다.

《이걸 한장한장 번지며 설명해주요.》

《보이거나 하는걸 보자는거예요?》

《보이지.》

진두찬은 씩- 웃으며 길게 뻗친 두다리우에 사진첩을 올려놓았다. 안해는 약간 숫저운 미소를 띠우며 그의 곁에 바싹 붙어앉아 사진첩을 번지였다.

진두찬은 뿌리한 안개의 사막속에 가려진듯 한 검은 영상들을 툭툭히 새겨보려 애썼으나 어느

하나 제대로 알아볼수 없었다.

《여보, 당신 웬일이세요?》

사진첩을 번저가며 추억을 더듬던 안해가 놀란 소리를 쳤다.

《뭘 그러요.》

《당신 우는구려.》

《울다니.》

진두찬은 더없이 민망스러운 속에 손바닥을 눈곱에 가져갔다. 뜨뜻한 물기가 감촉되었다.

《이건 로안에서 오는 현상이야.》

《안되겠어요. 쉬세요.》

바깥베란다로 나간 진두찬은 힘주어 담배연기를 빨아삼켰다. 사위는 어데라없이 안개의 벽에 둘러막힌듯 뿌연다. 3년전,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보내주신 60돐 생일상을 받아안고 남몰래 눈물을 쏟으려 이 베란다에 나와섰을 때처럼 무엇 하나 눈에 안겨오지 않았다. 그때처럼 오직 보이는것은 집들 창가와 가로등에서 내비치는 뽕경고 퍼런 불빛만이였다. 그때처럼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다. 다르다면 그때 그날엔 기쁨과 고마움의 눈물이었다면 지금은 슬픔의 눈물이였다.

오늘 그는 《완전실명》이 닥쳐온다는 진단을 받았었다. 이미 43년전에 받았던 진단, 로년에 완전실명이 올것이라는 선고였다.

그것은 미군 한개 중대가 지키고있는 적의 사단포병지휘감시소를 습격할 때 있던 일이었다. 한개 소대로 된 습격조에서 고지꼭대기까지 살아올라간 사람은 진두찬 혼자뿐이였다.

모래가마니로 둘러싼 적의 마지막참호에서는 맹호같이 달려드는 진두찬에게 수류탄 《우박》을 들썩였다. 허나 진두찬은 그 어떤 야구명수도 해내지 못할 솜씨로 날아오는 수류탄을 되잡아뿌리기도 하고 발로 걷어차기도 하며 계속 돌진하였다.

그때 무서운 폭음이 일어났다. 그가 되받아던 진 수류탄이 우연히 적의 포탄고를 명중시켰던것이다. 그 포탄고의 폭발로 쓰러졌던 진두찬은 적의 참호에서 올라오는 신음과 비명을 들으며 불사신처럼 다시 일떠나 모래가마니를 넘어섰다. 살아맞서는 놈은 얼마없었다.

두찬이 승리자의 땀어넘치는 희열을 느끼며 살아움직이는자를 찾을 때 눈에서 불이 번쩍하였다.

죽은척하고 쓰러졌던자의 총탄에 뒤통수를 맞았던것이다. 그는 쓰러지는 순간에도 뜨거운 숨결과 노련내 비슷한 악취를 내뿜는 가해자의 가슴에 총탄을 박아넣는것을 잊지 않았다.

화약내가 질게 배인 모래바닥에 얼굴을 박자 눈알이 수십개의 바늘에 찔리운듯 아파났다. 그가 정신을 채 잃지 않은것은 그 아픈때문인지도 몰랐다. 머리가 펄펄 도는듯 한 혼미상태에서 그는 최후의 안간힘으로 타는듯 쏘는 눈에 손을 가져갔다. 뜨끈한 액체 비슷한것이 만져졌다.

두눈알이 빠져나왔던것이다.

그는 이를 으득으득 갈면서 그 눈알들을 도로 맞추어넣었다. 그리고 의식을 잃었다. 중대전우들의 품에 안겨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자기가 소경이 되였음을 알았다. 그런데 그때는 소경이 된 슬픔보다 불로 지지는듯 한 눈알의 아픈때문에

건디기 어려웠다. 몸의 다른 부위에 박힌 파편상 처같은것은 느끼지도 못할만큼 혹독한 아픔에 그는 어린애처럼 울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열흘쯤 지나서부터는 그 아픔이 사그라들며 색깔과 형태를 분간할 정도로 시력이 회복되더니 한달만에는 자기에게 영웅칭호가 수여된 소식이 실린 신문까지 읽을수 있게 되었다.

퇴원하는 날 그와 친숙해진 담담군의 눈의 위생학적관리를 잘할데 대한 주의사항과 함께 로년기에 실명이 올수 있다는것을 숨기지 않고 알려주었다. 허나 로년기라는것을 아직 까마득한 후날로 보던 20대의 두찬이에게 그런 예고쯤은 귀등으로 지나갔다. 다시 빛을 보게 되었다는 기쁨에 세상천하를 다 얻은듯 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그 《까마득한 후날》이 닥쳐온것이다.

군의국 박사는 한두달내에 실명이 올수 있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나올 때 두찬은 자기 삶이 끝나는듯 한 비감을 체험했다. 앞으로 남은 시간들과 이제부터의 삶의 의미를 새롭게 계산해보는 속에 이제 세상을 보게 될 시간이 한두달밖에 없다는 초조감을 그를 일각도 지체함이 없이 시내를 떠돌게 했고 정다운 거리들과 강과 산들에 작별의 인사를 하게 했으며 이날 저녁엔 옛 시절, 옛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으로 사진첩까지 들추게 했다.

《그럼 이제는 끝장이란 말인가.》

여한은 없었다. 할수 있는것 했고 공민으로서 받을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을 누렸다.

다만 있다면... 전차의 두줄기 불빛이 비질하며 지나간 어둠속으로 푸르른 산자드락길이 열리었다.

전화의 날 최고사령부에 왔던 진두찬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처음으로 뵈었다. 그날 영웅과 학생들과의 상봉모임을 조직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큰길과 산등길이 어울려지는 곳까지 진두찬을 배려주셨다.

한없는 정과 믿음에 차 말씀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 그때의 따뜻한 눈빛과 살뜰한 음성은 수십년 세월이 흘러 은정어린 60돛 생일상을 보내주시는것으로 이어졌다.

60돛 생일상을 받는 날 밤, 진두찬은 고마움의 인사를 담은 맹세의 편지를 올렸다. 10년이건, 20년이건 당을 위해 적으나마 자기의 힘을 깡그리 바치겠다고, ... 그러나 오늘에 와서 그 《맹세》는 한갓 종이장우에 적힌 글로만 남게 되었다.

최후에 시각에 이르게 되는 인간은 제나름대로의 비장함과 숭엄함의 극경에 서게 된다. 사색과 감정에서도 자질구레한 이파리와 가지들은 묻혀지고 기둥만 남게 된다. 한생을 당과 혁명을 위해 살아온 진두찬에게서 리유는 어찌하든 위대한 장군님앞에 올린 맹세를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생각은 죄의식으로 번져져 절망어린 슬픔을 몰아온것이다.

《여보, 왜 이리고있어요. 이제 쉬어야 하잖겠어요.》

안해의 목소리에 진두찬은 흠칫 놀라며 고개를 돌렸다. 문지방에 이르렀던 안해는 깜짝 놀란 소리를 쳤다.

《당신... 웬일이세요?》

진두찬은 자기의 눈이 이상스럽게 타 번쩍인다는것을 몰랐다. 그는 미간을 찡그리며 엄엄한 태도로 말했다.

《종이를 준비해주요.》

《종이라니요. 무슨 종이말예요.》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려야겠소.》

《경애하는 장군님께?!...》

《그렇소.》

《어떤?~》

《사죄편지를 올리자는거요.》

《아니, ...당신! ...도대체 어찌된 일이에요?》

진두찬은 그의 눈길을 외면하였다.

《내 눈이 멀어져가고있소. 소경이, 맹과니가 된 단말이요. 집구석에 처박혀있는... 폐물이-》

꼭- 막히는 마지막소리에 안해는 어푸러질듯이 진두찬의 어깨를 잡아흔들었다.

《여보, 거 제정신가지고 하는 소리예요?》

《사실이요.》

진두찬은 어깨우에서 맥없이 떨어지는 안해의 손을 꼭 잡으며 군의국병원에서 받은 진찰결과에 대하여 말하였다.

침대발치에 주저앉은 안해는 얼굴을 싸전채 소리없이 흐느꼈다. 그 정상에 진두찬은 가슴이 더욱 쓰렸으나 내색하지 않았다. 호걸스러운 웃음까지 지어보았다.

《...그래서 난 이번 편지에 용서를 빌구... 또 전쟁로병의 자격으로 위대한 장군님께서 이번 대회연단에 꼭 나오셨을 하는 청두 드리자는것이요. 이건 나만 아니라 우리 전쟁로병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니 꼭 받아주시리라고 믿소. 이번 기회가 나에게는 마지막기회로 될것이 아니겠소. 눈이 영 먼 다음에야 다지.》

진두찬의 마지막말에 안해는 흑- 하고 울음을 터치며 방을 뛰쳐나갔다.

잠시후 그가 편지종이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진두찬은 돋보기안경 두개를 겹쳐 걸고 탁상등을 켜 책상앞에 근엄한 자세로 마주 앉아있었다. 종이를 놓아주고난 안해는 불안스러운 태도로 남편이 글쓰는 모양을 지켜보았다.

탁상시계의 똑딱거림만이 유난히 크게 들리는 정적속에서 안해는 신을 비슷한 소리에 놀라 정신을 차렸다. 두손을 책상머리에 얹은 남편은 쓰기를 멈춘채 조각상처럼 굳어져 있었다.

《여보, 어찌된 일이에요?》

조심스레 일어난 안해는 남편의 눈에 연물같은 것이 고여 번쩍이는것을 보았다. 쓰다만 편지의 글과 글줄들은 서로 덧놓이기도 하고 엇가로 나가기도 하며 어느한 문장도 똑바로 알아볼수 없었다.

안해는 모든것을 알아차렸다. 남편의 어깨에 살그머니 손을 얹으며 흔들었다.

《여보, 제가 대필하자요.》

《...》

《당신의 생각과 감정만 정확히 담겨지면 되지 않겠어요.》

《대필은... 진짜가 못되오. 그러나... 옳소. 당신이 쓰오.》

두찬은 어깨에 놓인 안해의 손을 꼭 잡았다.

당중앙위원회 류철부장은 평범한 영웅이 보낸 한통의 편지가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 또 하나의 기쁨으로 되리라고는 미처 생각지 못했다.

창가림사이로 비쳐드는 아침해빛에 봉투를 들어보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탄성가까운 소리를 내셨다.

《진두찬이라? 백병전영웅이구만.》

웃음어린 눈길이 류철에게 멎으시었다.

《이 동무에 대해서 알고있습니까?》

《네.》 류철은 편지를 가져오기전에 알아본 그의 간단한 경력과 전투위훈을 상기하며 대답을렸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빙그레 웃으시었다.

《그가 나의 구면친구라는것은 모르겠지요?》

《사실은... 전혀 모르고있었습니다.》

《그럴테지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입가에 웃음을 띠우며 말씀하셨다.

《내가 이 동무를 알게 된것은 전쟁때입니다. 참, 위대한 수령님 혁명력사도록판 사진에 이 동무가 있습니다.》

최고사령부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접견을 받았던 전투영웅들중의 한사람이지요.》

류철은 못내 송구스러웠다. 위대한 수령님 혁명력사도록판 편찬사업에 관계했던 그였다. 사적 인물고증자료에서 분명히 진두찬의 이름을 보았겠으나 기억속에 담지 못한것이다.

류철은 솔직히 말씀올렸다.

《저흰 살아있는 영웅들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이 높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문제입니다. 물론 희생된 영웅들을 더 크게 내세우는것은 옳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살아있는 영웅들이나 그들의 위훈에 대하여 망각하거나 소개하지 않는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편지걸봉을 여시려다가 약간 머리를 저으시었다.

《이 편지봉투의 글체가 그 동무 글같지 않군.》

편지장을 꺼내 펼쳐 읽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안색이 점점 심각한 빛으로 변해가셨다.

부장은 저으기 긴장감을 느꼈다. 무엇때문인가.

그 어떤 심상치 않은 문제에 대한 제의? 아니면 신소?...여러가지 억측이 번개치듯 뇌리를 줄달음쳤다.

《부장동문 이 편지를 못봤지요?》

《네.》

《보시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편지장을 류철이 선 앞탁에 밀어놓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그리고 팔각자를 끼신채 집무탁을 돌아 천천히 주단우로 걸음을 옮기시었다. 류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복잡한 심리속에 계심을 어렴풋이 느끼며 지그자그형의 속독법으로 재빨리 편지를 훑어내려갔다.

불안스러운 억측을 달리게 하던 우려할 문제란

전혀 없었다. 다만 마지막에 가서 《보고싶고 또 보고싶은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장군님을 이번 로병대회연단에 높이 모셔 두번다시 몸가까이 뵈인다면 이 진두찬은 더한 여한이 없을것입니다.》라는 대목이 자극되었으나 생의 말년에 이른 사람의 순진한 고백이라는것으로 리해가 되었을뿐아니라 적잖게 공감이 갔다.

《어떻습니까, 뭔가 느껴지는것이 없습니까?》

고개를 쳐드는 부장을 보시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물으시었다. 류철은 위대한 장군님의 질문의 뜻을 해독하지 못한채 대답올렸다.

《그는 로병들의 공통된 심정을 담아 썼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동무뿐아니라 전국각지의 로병들속에서 경애하는 장군님을 대회연단에-》

《아니, 내가 묻는것은 그것이 아니요. 너무 비장한감이 들지 않습니까? 이 동무의 편지는 따져놓고보면 자기 생에 대한 총화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그가 우리를 위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고 앞으로도 하지 못하게 되어 죄송스럽다고 생각하는데 있습니다. 내말이 틀립니까?》

《네, 그렇게 썼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앞에 설때면 누구나가 생각하고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띄어놓고 하는 소리입니다. 립장을 그렇게 취한다는것과 결론을 그렇게 짓는다는것에는 차이가 있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것이지요.》

진두찬동무의 경우 다른 사람들앞에서라면 몰라도 내앞에서는 이렇수 없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영웅, 로병들은 전쟁때의 그 공적만으로도 당과 혁명앞에 떳떳하며 조국은 그들을 아끼고 내세우며 따듯이 돌봐줄 의무가 있습니다. 진두찬동무는 전쟁때도 잘 싸웠고 전후엔 기업소들과 행정경제국의 책임일꾼까지 하면서 우리 혁명을 위해 충실히 복무해왔습니다. 하여 나는 그의 60돛 생일때에 생일상도 내려보내게끔 하였던것입니다.

그때 그는 편지를 보내여왔는데 자기는 10년, 20년 끄떡없이 당을 받들어 혁명을 하겠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던 그가 지금은 립종을 앞둔 사람처럼 맥을 잃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 그 동문 지금 유원지관리사업을 도와주는데 아주 일을 잘하고있다고 합니다.》

《그럴테지요. 나는 그를 아주 억센 사람의 부류속에 넣고 생각하고있었습니다. 사람을 알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한순간에 그 인간전체를 알게 될수도 있잖습니까.》

최고사령부에 왔던 그가 다시 전선으로 떠나갈때 몸 무사히 싸우고 돌아오라고, 영웅이 잘못되면 위대한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시고 조국이 슬퍼하고 나역시 슬플것이라고 말하자 그는 껄껄 웃으며 자기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켜주시기때문에 죽을 고비에서도 살았고 이제 나까지 걱정해주시니 상처 하나 안생길것이라고 하면서 주먹까지 흔들여보였습니다.

참 호방하고 씩씩한... 걸작이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잠시 말씀을 끊으시고 눈귀를 좁히신채 창문가를 보시었다. 아득

히 흘러가버린 세월의 지평선너머의 그 어디를 보시는듯 싶었다.

《그런데 부장동무는 저 편지글씨가 누구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집식구들중에서 누가 대필한것으로 보입니다. 녀성의 글씨 같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깍지킨 손으로 오른팔언저리를 가볍게 다독이시며 생각에 잠기셨다가 말씀을 이으시었다.

《그 동무의 건강상태에 대하여 알아보지 못했습니까?》

《바로 알아본것은 없습니다. 이번 대회참가자들의 신체검사를 오늘까지 끝내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 동무에 대해 인차 알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로부터 세시간후 류철은 다시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집무실에 들어섰다. 진두찬의 신체검사정형을 알아보았다는 그의 보고에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저으기 반색하시며 보시던 문건우에 안경까지 벗어 내려놓으시었다.

《그래 어떻답니까?》

류철은 흡족한 미소를 감추지 못하고 말씀드렸다.

《진두찬동무는 특수건강체질이라고 합니다. 혈압도 심장활동도 다 건강한 체육인과 맞먹는답니다. 다 정상이라고 합니다.》

《시력은 어떻다고 합니까? 난 그의 시력이 미라합니다.》

《시력도 좀 약하지만... 괜찮다고 봐집니다. 오른쪽눈은 0.9이고 왼쪽눈이 0.8입니다. 저에 비해 봐도 한창 낫습니다.》

《한창 낫다?!... 하긴 그렇기도 하구만. 동문 + 2. 0을 끼지요.》

《네.》

부장은 가슴이 후터워졌다. 1년전인가 어느 한 좌석에서 물으셨던 안경도수를 오늘까지 잊지 않고계시는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문건우에 놓으시였던 자신의 안경을 묵묵히 내려다보시다가 말씀을 제시였다.

《부장동무에게 한가지 부탁을 합니다.

진두찬동무의 안경을 알아보고 신통치 않으면 바꿔주도록 하시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문건우에 놓인 안경을 집어드시었다.

류철은 무드기 쌓여진 문건더미들을 보며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밤을 거의 밝히시리라는것으로 마음이 무거워지었다.

로병대회 전기간 류철은 어느 하루도 진두찬에 대해 잊은적이 없었다. 진두찬이 앓은 좌석도 알아보았고 몇번인가 그의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상스러운것은 하루에도 수천통씩 날아드는 대회참가자들의 반영문속에 진두찬의것은 한장도 없는것이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 편지를 올렸다는것으로 쓰지 않는것인가, 결국 감정적충격이 너무 큰 경우 글을 쓰지 못할수 있다는것으로 그 의문을 지워버리고말았다. 대회 마지막일정은 위대한 수령님

과 경애하는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촬영을 하는것이였다.

이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긴급요청으로 제기된 어느 한 외국인사와의 면담을 뒤로 미루시고 기념촬영장으로 된 체육관에 나오셨다. 휴계실에 이르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먼저 사진촬영에서 무락되는 사람들이 없는가를 알아보시고 촬영석배치도안을 보자고 하시었다. 대렬사업을 보는 일군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앓으신 팔걸이결상알탁에 배치도안을 펼치고 항일혁명투사들과 특별한 공훈을 세운 오랜 로병들의 순위로 련번호를 짚음을 말씀드렸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몇몇 로투사들과 영웅로병들의 이름까지 물으시며 번호와 위치를 확인하시다가 웃음어린 눈길로 옆에 선 류철을 돌아보시었다.

《다들 강팀이니 진두찬동무는 뒤로 밀렸겠구만.》

대렬사업일군이 진두찬의 자리번호를 찾으려 명단을 뒤질 때 류철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대답올렸다.

《진두찬동무는 2조 1렬에 있습니다. 바로 이 번호입니다.》

류철은 자리배치도의 번호를 짚어 보여드리고 서둘러 대답을 이었다.

《저흰 그가 입대년도가 오래다는것도 고려했습니다.》

《고맙소.》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시며 번호위치를 여겨보시다가 둘러서있는 일군들을 향해 눈길을 옮기시었다.

《혹시 동무들속에 진두찬동무가 앞줄에 선데 대해 의문이 있을수 있는데... 이 동문 단신으로 백오십여명의 적을 제기고 미군포병지휘소가 있는 고지를 점령했던 영웅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몹시 보고싶어하는 사이랍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뿌리시며 자리에서 일어나시었다...

체육관은 폭풍같은 만세와 환호성의 진동속에 떠나갈듯 했다. 사진촬영이 끝나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휴계실로 다시 들어서시는 시각까지도 그 걱정어린 환호성은 끝날줄 몰랐다.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약간 엄숙하면서도 상기되신 얼굴빛이시었다. 류철은 대회 첫날 로병들의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받으실 때도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러한 표정이였음을 기억하였다. 넘치는 흥분과 걱정을 견잡지 못하실 때의 경애하는 장군님의 표정이신것이다.

뒤따르던 무력부의 한 일군이 오늘의 기념촬영에 경애하는 김정일 최고사령관동지까지 모심으로써 로병들은 일생 최대의 기쁨을 받아안게 되었다는것을 말씀드리자 그이께서는 저으기 민망스러운 기색으로 말씀하시었다.

《오늘같은 때가 나에겐 좀... 바쁩니다. 축하의 인사는 그들이 받아야겠는데 늘 반대로 되거든. 내 목소리가 수천명의 소리를 누르지 못하는것 안타깝습니다.》

마중하는 간부들속에서 류철을 띄여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손짓으로 찾으시였다. 방금까지의 흥분어린 안색과는 다른 심중한 표정이시였다.

《오늘안으로 진두찬동무의 눈에 대하여 알아보시오. 그는 바로 보지 못합니다.》

나직하게 울리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에 류철은 가슴이 철렁할 정도로 놀랐다. 그래서인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밖에 나가 차에 오르실 때도 어느때없이 심각하고 근심어린 모습으로 비껴왔다.

류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타신 차가 떠나가기 바쁘게 비데오촬영기자를 찾았다. 잠시후 비데오화면을 통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 진두찬의 앞에 이르실 때의 장면을 찾은 그는 그 장면을 세번 반복하여 돌려보았다. 그 과정을 통해 환호하는 인사에 답례를 보내시던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손길이 진두찬의 앞에서 약간 높이 쳐들렸던것과 그 순간 그이의 발걸음이 2~3초 동안 멎어섰음을 포착하였다.

그런데 두손을 땀범벅히 휘저으며 우는지 웃는지 모를 얼굴로 줄줄이 눈물을 쏟는 진두찬의 모습에서 시력부족의 기미란 전혀 찾아볼수 없었다. 무상의 행복과 영광에 도취된 로병의 감격만이 가슴후덥게 안겨왔을뿐이였다...

촬영장으로부터 숙소로 돌아온 진두찬은 정원의 으스스한 숲속 길상에 쭈그리고 앉아있었다. 떠들썩 봄비는 소음에 귀 기울이기도 하고 희미하게 얼른거리는 사람들의 군상을 지켜보기도 했다. 때로는 얼굴을 이지러뜨리기도 하고 병싯 웃기도 했다. 숙소까지 오는동안 여러 동무들의 인사도 받고 나무람도 받은 그였다.

《진동무. 축하하네.》

《여보,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동무만 출창 보시며 미소를 보내셨어.》

《특별히 손짓까지 하셨어.》

《나갈으면 경애하는 장군님께 무슨 인사말씀이라도 따로 울리는걸.》

진두찬은 처음 꿈에 취한 사람마냥 얼병병한 미소만을 그려보였다. 그러나 그들의 말뜻을, 《사변》의 진속을 리해하게 되자 가슴속엔 오열이 일며 통곡이 터져나갈것만 같았다. 크나큰 행복감과 함께 두번 다시없을 상실에 대한 비탄으로 심장이 비틀리우는듯 아파났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자기를 알아보셨는데 자기는 그것도 모르고있었으니 이이상 큰 불행과 비극이 어데 있겠는가. 하여 그는 뺨에서 내리기 바쁘게 동무들을 피해 이리로 온것이다.

얼마간 눈물을 쏟고나니 마음이 진정되었다. 처음 경애하는 장군님을 뵈왔을 때를 회상도 하고 화면에서 비인 모습과 초상화속의 영상을 일치시켜 오늘 촬영장에 나오신 그이를 상상으로 그려보기도 하였다.

그리고 안해와 가족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도 생각하였다. 물론 그는 자기가 시력장애때문에 경애하는 장군님의 모습만을 어렵듯이 뵈왔을뿐이라는 말은 하지 않을것이며 그이께서 자기를 알아보셨고 《오래동안 멈춰서계시기까지》한데 대하여 자랑할것이며 그 순간 자기는 그이의 자애넘친 눈빛과 얼굴표정까지 알아보았음을 말할

것이다.

진두찬은 자기를 찾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포장길에 두사람의 형체가 나타난것을 본 그는 황급히 눈물자국을 문질러닦으며 일어섰다.

(식사독촉인가. 젠장, 오늘같은 날 한끼쯤 번지면 어떻단 말인가.)

두찬은 속으로 두덜거리며 언젠가처럼 꽃발을 길로 본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눈에 정신을 모았다. 한발 앞서 온 대렬책임자가 뒤따르는 사람을 가리키며 당중앙위원회에서 왔다고 하는 말에 진두찬은 걸음을 떼다말고 굳어져버리었다.

《진두찬동무입니다?》

대여섯발자국앞에서 먼저 인사를 하며 묻는 일군의 어조는 더없이 부드러웠으나 진두찬은 어찌된 일인지 막연한 불안과 긴장감을 느꼈다. 쯔전에 들었던 동무들의 말이 뇌리를 스치며 이즈음 자기에 대하여 적지 않은 동무들이 의혹과 경원을 가지고 대한다는데 대해서까지 생각이 뻗었다.

진두찬은 대회 첫날부터 회의와 식사시간을 제외하고는 줄곧 숙소호실에 구겨박혀 움직이지 않았고 참관사업같은것도 몸이 불편하다는것으로 빠졌었다. 하여 가까운 친구들은 《락후분자》라 거니 《로쇠병》에 걸렸대거니 하며 비난도 했다.

《진동무에게 한가지 알고싶은것이 있어 왔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일군의 두번째 말에 진두찬은 피줄이 짙 내뻗친 두손을 맞잡고 어깨를 움츠러뜨렸다.

《저... 무슨 일인지요?》

《동무의 눈때문입니다, 동무의 시력은 0.8, 0.9로 되었는데 맞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정말입니까? 동문 그래 지금 내가 누군지 알아볼만 합니까?》

《아무렴요. 알아보구 말구요.》

진두찬의 맞춰였던 손이 풀리고 움츠러들었던 어깨가 펴이였다. 굳어졌던 얼굴에 느슨한 웃음까지 피어올랐다.

부장은 침묵속에 진두찬의 눈동자를 끝추 바라보았다. 허나 진두찬은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다.

《진동무, 그러지 마시오. 이젠 나의 물음이 아닙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의 눈을 걱정하고계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동무가 바로 보지 못한다고... 그래서 저를 보내신것입니다.》

진두찬의 장대한 몸집이 거센 폭풍속의 백양나무인양 떨었다. 입술과 온 얼굴근육은 경련하듯 이지러지였다.

《용... 용서해주십시오.》

울음뿔던 소리는 신음소리마냥 가늘게 새여나왔다.

이날 류철부장은 서글픔과 환희의 서로 상반되는 감정의 랑극에서 오갔다.

영원히 빛을 잃게 된 한 인간의 운명에는 서글픔이 왔으나 그 인간을 품어안은 따사로운 빛발과 그 빛발을 우러르는 인간의 결국한 마음을 새

롭게 찾아보게 된것은 명백히 감격이고 환희였다. 숙소문밖에까지 따라나온 진두찬이 경애하는 장군님께 눈이 멀게 된 사실만을 제발 보고드리지 말아달라고, 그러면 자기는 이세상 사람들앞에서도 죄인이 된다고 애원하듯 말할 때 그는 속으로 뜨거운것을 삼켰다.

오직 경애하는 장군님만을, 그이의 기쁨만을 위하는 이 나라 사람들의 고결한 열이고 가룩한 마음씨였기때문이었다. 옥류교를 건널 때 그는 차창에 비껴드는 저녁해의 잔광을 보며 이상스러운 감회에 젖어들었다.

빛의 조화, 저가는 노을은 아름다웠다. 미구하여 어둠속에 스러진다 하여도 아침이면 또다시 그 령령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드러낼것이다.

그런데 진두찬은?... 마음이 어설피졌다.

청사에 돌아오니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회의지도중이시였다. 부득불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기에게 진두찬에 대해 알아본 정형과 우연을 바래 취해놓은 치료대책을 보고드려줄것을 부탁하고 전화를 놓았다.

그가 낮동안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퇴근준비를 할 때 전화종이 울렸다. 그 어떤 예감에 끌려 다급히 송수화기를 들자 증폭된 음성이 찌렁찌렁 울렸다.

《서기한테 들었소. 사실이요?》

류철은 등줄기에 땀발이 서는것을 의식했다. 진두찬이 그토록 걱정하며 녀려하였고 자기 역시 근심속에 우려했던 일이 생겨난것이다. 류철은 경애하는 장군님께 아픔으로 안겨지실 그 피할수 없는 숙명앞에 마음이 무거워져 풀기없는 목소리로 서기에게 알려준 사실내용을 다시 되풀이하였다.

《...의사들의 말에 의하면 그것은 어쩔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물체의 형태를 어느 정도 보는것만도 다행이라고... 이제 완전실명은 시간문제라고 합니다.》

정- 전류흐르는 소리만이 났다.

류철은 이마에 흘려내리는 땀을 닦았다. 난치의 질환이라는것만 강조한 자기의 실수가 때늦게나마 돌이켜졌다.

《경애하는 장군님, 그 동문 의지가 강합니다. 그는 이번... 경애하는 장군님을 몸가까이 모셔 뵈웠기때문에 더 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 맹랑한 소리는 무엇때문에 합니까. 그가 나를 봤다는데 무슨 의의가 있습니까. 당장 못 보게 된다는데... 하루이틀도 아니고 장장 어둠속에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절벽을 휘패리는 거센 파도다. 류철은 흠칫했다. 다시 진동판이 저렁저렁 울렸다.

《그래 무슨 대책을 취했습니까?》

《안과전 문가들로 치료진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국적판도에서 알아보게 하시오.》

《알았습니다.》

《각국에 주재하고있는 우리 외교일꾼들에게는 알아보았습니까?》

《네?! 그건-》

《좋습니다. 그건 내가 맡읍시다. 당국제부와 보건부동무들에게 내가 파업을 주겠습니다.》

류철은 한 로병의 논문제가 국제적범위로까지 뻗어가는데 놀라움과 감탄을 금치 못하였다.

《지금은 인공장기도 만들어내는 과학의 시대인데 그런 치료에 필요한 기술과 약이 전혀 개발 안될순 없습니다. 필요하면 대표단도 파견하고 의사들도 초청해옵시다. 이런 경우엔 그 무엇도 아낄것이 없습니다.》

류철은 가슴이 널뛰듯 했고 온몸이 건똥 뜨는 기분을 느꼈다.

사랑의 대하!

《류철동무!》

경애하는 장군님의 음성이 한결 부드러워지시였다.

《이런데서는 각쟁이가 되면 안됩니다. 마음이 커야 되고 뜨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전쟁로병들은 비록 그 힘과 손의 도움을 더 받을수 없더라도 그들은 어제도 그랬지만 오늘도 래일도 언제나 우리들의 마음속 의지가 되고 힘이 되는 존재라는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나는 진두찬동무가 꼭 눈을 고치리라는것을 믿으며 바랍니다. 그때 나는 그를 다시 만나보려고 합니다. 그의 청을 들어줘야지요. 의사선생님들에게도 나의 이 뜻을 전해주시요. 회의시간이 되어 이만 끝내겠습니다.》

류철은 전화가 끝난 다음에도 송수화기를 붙든 채 내려놓을 줄 몰랐다.

9월도 다 간 어느날, 병원내정의 포도넝쿨밑에서 거닐던 진두찬은 과일구력을 들고 종종 걸음을 쳐오는 안해와 그뒤로 어슴비습 걸어오는 세 청년을 보았다. 이제 먼발치의 사람은 물론, 포도나무잎사귀의 형태까지 알아보게 된 진두찬이였다.

남편에게 다가온 안해는 바쁜 걸음을 놓아서인지 몹시 숨찬 태도로 뒤따라오다 말고 주밋주밋 서있는 세청년을 가리키며 속삭이듯 말했다.

《여보, 돌때문에 당신과 닮았다는 젊은이들이 예요. 텔레비존에서랑 신문에서랑 당신을 알고 또 당신소문을 미주알고주알 다 알고 찾아왔구려.》

진두찬은 인츰 그들을 알아보았다. 퉁퉁무례한 얼굴은 산뜻한 군복차림이였다. 그는 몹시 게면쩍은 기색이었으나 씩씩한 태도로 거수경례를 붙였다.

《영웅동지!》

뒤따라 세 청년은 약속이나 한듯 거의 동시에 합창하듯 소리쳤다.

《영웅동지! 우리를 꾸짖어주십시오.》

진두찬의 눈에는 다시 뿌연 장막이 내리드리웠다.

이번에는 눈물이 앞을 가려 보이지 않게 된것이었다....

주체83(1994)년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 (제 1 부)이 다시 나오기까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학작품창작에 대한 세심한 지도의 손길아래 수많은 작품들이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개작출판되어 오늘 독자들의 사랑속에 읽히우고있다.

그런 작품들중에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제1부)도 들어있다.

이 장편소설이 처음으로 창작되어 출판된것은 주체47(1958)년 5월이었다. 그후 이 소설이 20여년이 지나서 처음보다 몇배나 더 많은 부수로 발행되어 나오게 되는데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깊은 관심과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뜨겁게 어려있다.

지난 시기 문학작품창작부문에서는 결함이 있다고 비판된 작품들이 적지 않았으나 작품의 운명을 걱정하는 사람도, 작품을 수정하여 출판할데 대하여 제기하는 사람도 없었다.

주체60(1971)년 2월 어느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문예사상연구모임을 지도하시면서 일군들에게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비롯하여 고쳐서 볼수 있는 소설들은 고쳐서 출판하라고 교시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을 쓴 작가 천세봉의 가슴은 격정으로 세차게 끓뛰였다.

이 작품에는 심중한 결함이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어느날 이 소설을 각색한 연극을 보아주시고 당의 계급정책과 군중로선, 농업협동화방침을 외곡한 심중한 결함에 대하여 교시하시였다.

작품에서 마령감은 해방전에 일제식민지통치밑에 땅이 없어 지지리 못살다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신 땅을 분여받아 잘살게 된 열성농민이다. 그런 그가 지난날의 중농 부럽지 않게

잘 살게 되었다고 하여 소부르조아사상이 자라나서 당에서 내놓은 농업협동화를 달가와하지 않는것으로 형상하였던것이다.

이것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참된 삶과 행복을 누리게 된 우리 농민들의 진심에 대한 외곡이었고 전형으로도 될수 없는것이였다.

마령감의 성격이 외곡된 이 작품을 독자들이 읽게 된다면 우리 당의 계급로선과 농업협동화방침을 잘못 이해할수 있었다.

작품이 창작된 때로부터 10년가까이 흐르는 사이에 지도일군들은 물론 작가도 이 작품을 고쳐서 다시 출판하는데 대해서는 생각도 못하고있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안고 작가는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수정에 달라붙었다.

그는 마령감을 우리 당의 기본계급으로서 농업협동화방침을 반대하는것이 아니라 조합원들이 농사를 자기 집일처럼 주인답게 하겠는가하는 위구심을 품었다가 농업협동조합에 들어서 주인답게 일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개인리기주의에 물젖어 조합일을 주인답게, 성실하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깨워주는 사람으로 형상하였다.

마침내 소설은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하게 수정완성되어 주체68(1979)년에 출판되어 나오게 되었다.

참으로 다시는 빛을 볼수 없을번 했던 장편소설은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관심과 지도의 손길아래 다시금 빛을 보게 되었다.

장편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오늘 농업협동화운동을 진실하고 깊이있게 형상한것으로 하여 독자들속에 널리 읽히우고있으며 인기있는 텔레비존소설로 각색되어 인민들의 사랑을 받고있다.

최근에 이 텔레비존소설 《석개울의 새봄》은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사람들속에 더욱 사랑받는 작품으로 되었다.

두만강의 노래

주체90(2001)년 8월 어느날이었다.

로씨야련방에 대한 방문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조국에 돌아오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을 만나시어 외국방문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의 사연들을 이야기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사색깊은 음성으로 이번에 로씨야련방을 방문하러 갈 때와 조국에 돌아올 때 렬차로 두만강을 건넜는데 두만강은 자신에게 깊은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강이라고 말씀하시었다.

두만강! 두만강은 진정 뜻깊은 감회를 불러일으키는 조국의 강이다.

항일의 녀성영웅이신 김정숙동지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회령도 있고 어머님께서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설은 이국땅으로 가실 때 나루배로 건너가신 망양나루에도 있는 두만강이다.

김정숙어머님께서 부모님들을 따라 두만강을 건느실 때에는 물결우에 망국노의 설음이 비낀 원환의 강, 피눈물의 강이었다.

그러던 두만강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벌리실 때에는 투쟁의 강, 희망의 강으로 되었고 오늘에 와서는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되었다.

두만강의 어제와 오늘을 두고 추억하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이번에 두만강을 건너오면서 두만강과 관련한 노래에 대해서도 생각하게 되었는데 두만강과 관련한 노래로서는 계몽기가요 《눈물

젖은 두만강》밖에 없다고, 그 노래는 해방전 민족수난의 시기 우리 인민들의 서글픈 감정을 반영한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듣고보니 정말 두만강과 관련한 노래는 《눈물젖은 두만강》이 한곡 뿐이었다.

...

님가신 이 언덕에 단풍이 물들고
눈물진 두만강에 밤새가 올면
떠나간 옛님이 보고싶구려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언제나 오려나

일군들은 잠시 머리속에 구슬픈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보았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그러는 일군들을 바라보시며 우리는 이 계몽기가요에만 머무르지 말고 오늘의 시대적감정, 인민적감정을 반영하여 두만강을 노래하여야 한다고, 새 시대의 기쁨에 넘쳐흐르는 두만강에 대한 새로운 노래를 지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이날에 하신 가르치심을 가슴깊이 새기고 우리의 새 세대 창작가들은 락원의 강, 행복의 강으로 전변된 두만강을 노래한 가요 《추억의 두만강》, 《해빛밝은 두만강》, 《두만강 내 조국의 강이여》 등을 지었다.

세계작가일화

존 크리디

세계적으로 이름난 영국의 소설가 존 크리디는 되돌아온 원고를 제일 많이 받은 작가이다.

그는 서른다섯살때부터 영국의 거의 모든 출판사와 문학간행물에 수많은 원고를 써보냈지만 원고를 되돌려 보낸다는 통지서를 743회나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의 조소와 집식구들의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끈질기게 글을 썼다.

마침내 그의 재능은 편집자들에게 인정되었다.

첫 작품이 세상에 나온후 그의 작품들이 연방 쏟아져나왔다.

1973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총 4,000여 만자에 달하는 564권의 책을 써냈다.

그는 매번 되돌아온 원고를 자신에 대한 채찍질과 힘의 원천으로 삼았으며 마침내 세계의 이름난 작가로 되었다.

주체의 붉은 노을 누리에 펼쳐온 대동강의 해맞이 송가

장정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불후의 고전적 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를 창작하신 때로부터 4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다.

뜻깊은 이날을 맞는 우리들의 가슴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나날 눈내리는 전선길 굽이굽이와 현지도의 머나먼 로정들에서 맞으신 그 수많은 새벽들과 수많은 해돋이들을 생각하며 깊은 감회에 젖는다. 그 새벽들에 맞으신 해돋이들은 어찌면 그날 《대동강의 해맞이》에서부터 시작된것은 아닌지. 세상에 해돋이를 노래한 시와 가사들은 많다. 그것은 그만큼 해돋이 장면에 온갖 상징적의미를 부여할수있는 가능성이 크기때문일것이다.

자연에 해돋이가 있듯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인간생활에도 그리고 사회변혁의 로정에도 《해돋이》가 있다. 오래고 지친 노력과 실패의 고뇌속에서 마침내 성공의 희열을 맛보는 때의 《해돋이》순간도 있고 노예의 처지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드디어 해방의 날을 맞는 때의 그런 력사의 《해돋이》도 있는것이다. 밤이 지새면 아침이 오듯이,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이 어둠이 물러가면 마침내 해돋이, 해맞이의 순간은 온다. 그것은 자연의 법칙인 동시에 인간사회의 법칙이기도 하다. 《가는 길 험난해도 웃으며 가자!》는 구호는 그런 의미에서도 깊은 뜻을 담고있는 구호라고 생각된다. 그것이 날이 갈수록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강성대국건설의 래일에 대한 신심과 희망과 락관을 심어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고있는것도 거기에 다름아닌 자연과 사회의 이어질수 없는 리치, 해돋이, 해맞이순간의 환희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비껴있기때문이 아니겠는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서정은 본성에 있어서 구체적이며 섬세한 생활정서인것만큼 고유한 특성을 띠기마련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의 서정은 흔히 말하는 의미에서의 서정이 아니다. 그것은 가장 보람찼던 시절의 노래, 가장 량만적이고 가장 정열적이었던 시절의 송가이며 인생의 푸르른 언덕에서 청춘기를 맞으며 새삶과 새 희망을 지향하여 마중하는 가장 환희롭고 열정에 넘친 해돋이, 인간과 사회를 개조하고 자연을 정복

하며 이 땅위에 더욱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리상과 포부와 희망으로 심장이 불길처럼 타오르던 시절의 해돋이, 해맞이이다.

시 《대동강의 해맞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남산고급중학교 졸업야회가 있는 날 밤 작별을 앞두고 그렇듯 헤어지기 아쉬워하는 졸업생들과 함께 대동강반에까지 나가셨다가 거기서 새벽을 맞으시고 해돋이를 마중하시면서 졸업생들앞에서 읊으신 시이다.

눈을 감기만 하면 떠오르던 친근한 모습들, 그리고 늘 정답게 반겨주던 모교의 정문, 못잊을 학창의 나날 가지가지 생활의 추억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 펼쳐졌다.

노을처럼 아름다운 희망이 청춘들을 손저어부르던 시절이었다. 거창한 생활이 강물처럼 이 땅위를 굽이쳐 흘러가고있던 때였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잠 못드는 밤이였고 잊을수 없는 새벽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졸업생들에게 이제 우리들은 자기의 희망과 포부에 따라 서로 다른 초소로 떠나게 된다, 우리들이 가는 초소는 서로 달라도 우리모두는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달려간다, 우리는 불타는 심장을 지닌 청춘들이다, 혁명의 폭풍속에서 키워온 우리 청춘의 심장을 무엇을 위해 어떻게 불태워야 하겠는가,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속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들의 심장은 응당 그 사랑, 그 은덕에 보답하기 위한 충성의 길에 고스란히 바쳐져야 한다,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 청춘을 빛내여가자고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이 말씀은 곧 《대동강의 해맞이》의 사상미학적지향으로 되었다.

시에서는 동트는 대동강의 장엄하고 아름다운 해돋이를 시적화폭속에 생동하게 부각하면서 대동강의 해돋이처럼 그렇게 뜨겁고 그렇게 순결하고 또 그렇게 열렬한 충성심을 지니고 수령과 혁명, 조국을 받들어갈 정열과 희망과 신념이 노래되고있다.

명작에서 시적형상의 초점은 해돋이장면의 형상에 집중되고있다. 이 시의 모든 사상예술적내용들은 해돋이장면의 시적화폭과 긴밀히 련관되어있으며 이 장면의 서정적정황과 밀접히 통일되

여있다. 해돋이장면의 시적형상, 이것이 명작의 서정의 성격을 규정하는 특징이며 핵이다.

**동트는 대동강 해가 솟는다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
청춘도 희망도 노을로 되어
내 조국강산에 빛발쳐가리**

**락원의 대동강 해발넘쳐라
불타는 해돋이는 우리의 정열
세월의 폭풍도 함께 헤치며
수령님 받드는 전위가 되자**

**오늘은 대동강해돋이 맞고
래일은 공산주의 해맞이 하자
혁명의 길이여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을 펼쳐가리라**

얼마나 장쾌하고 얼마나 량만적인 해맞이서정인가.

대동강의 해맞이, 그것은 우리 청춘들의 미래의 삶에 대한 《해맞이》이며 그들의 환희와 량만, 불타는 정열에 대한, 그들의 변치 않을 신념에 대한 《해맞이》이다.

이 해돋이는 단순한 자연의 해돋이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울수 있고 인간의 정신이 얼마나 승업할수 있는가를 산 화폭으로 보여주는 상징이다.

거기에는 가장 장엄하고 가장 아름다운 순간에 포착된 인간정신의 미, 인간생활의 철리가 담겨져있다.

명작에서 노래된것처럼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이고 《불타는 해돋이는 우리의 정열》이다. 《동트는 대동강》의 전경이 장엄하다면 《락원의 대동강》의 전경은 또 얼마나 웅심깊고 아름다운것인가. 이글거리며 솟아오르는 태양의 빛을 받아 붉게 물든 하늘과 땅 그리고 노을빛을 담고 유유히 흐르는 대동강! 얼마나 아름답고 황홀한 장면인가.

자연은 그것이 인간의 사상정신세계의 상징으로, 산 화폭으로 그려질 때 그렇듯 아름답고 황홀한것이다.

여기에 이 《대동강의 해맞이》 서정의 매력있고 또 여기에 명작의 서정이 가지는 참다운 의미가 있다. 해맞이서정, 그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우리 조국의 번영하는 래일에 대한 확신이며 원대한 포부와 숭고한 리상과 더욱 아름다와질 미래에 대한 지향이다. 해돋이의 시적형상속에서 우리는 이 나라 청춘들의 창창한 미래를 보며 그들의 불타는 정열과 맹세를 보며 그

들이 이 땅우에 펼쳐갈 주체의 붉은 노을도 본다.

그러나 명작의 서정이 보다 심오한 의미를 가지는것은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이어이 실현해나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의 그날의 심장의 맹세가 시의 구절구절에서 뜨겁게 맥박치고있는데 있다. 이 심장의 맹세가 명작의 모든 사상정서적내용을 관통하는 기본시정신이며 시의 서정과 운율까지도 규정한것이다.

그것은 시에 생명유기체와도 같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있으며 생동성과 진실성, 심오성으로 충만되게 하고있다. 그리고 여기에 명작의 높은 사상정서세계가 있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의 사상에 예술적특성에서 중요한것은 이와 같은 심오한 사상정서세계가 깊이있게 노래되고있는것이다.

볼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지니신 독창적인 주체적문예사상과 가장 심오하고 풍부한 내면세계가 낳은 빛나는 창조물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학생시절부터 문학과 예술에 대한 폭넓은 지식을 습득하시고 시대와 현실에 대한 깊은 사색과 탐구로 몸소 우수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수많은 창작하시였다. 이러한 지적 및 미학정서적축적이 이처럼 훌륭한 시를 낳을수 있게 한 원천으로 되였다.

이 시의 높은 사상에예술성은 생동하고 진실한 언어형상에 의해 힘있게 담보되고있다.

알기 쉽고 간결한 시적표현속에 심오한 시대감정과 깊은 사상정서를 폭넓게 일반화하고있는것은 이 시의 중요한 특성의 하나이다. 이 시에서는 리해하기 힘들거나 직선적으로 표현된 언어형상을 찾아볼수 없다.

시에서는 가장 알기 쉽고 가장 간결한 시적언어표현속에 가장 심오한 시대감정과 가장 뜻깊은 사상정서를 담고있는것으로 하여 그 모든 언어형상이 시의 전반적서정을 강화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고있다.

《세월의 폭풍》, 《세상 끝까지》, 《주체의 노을》 등 표현들은 그 표현 하나하나가 알기 쉽고 간결하면서도 풍부한 형상성과 정서성을 가지고 있다.

형상성과 정서성은 알기 쉽고 간결한 시적언어표현의 필수적요소이다.

명작의 언어형상의 중요한 특성의 다른 하나는 시적언어표현에 비껴있는 회화성이다. 마치 한 폭의 명화처럼 눈앞에 펼쳐지는 해돋이장면은 시의 언어형상의 회화적표미와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시적언어형상의 회화성은 시에서 장엄한 해돋이장면을 그림으로 펼쳐놓는다. 《동트는 대동강》

의 전경이 펼쳐지는가 하면 그것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락원의 대동강》의 전경으로 변화하기도 하고 《찬란한 해돋이》장면의 화폭이 우리를 경탄시키는가 하면 그것은 다시 《불타는 해돋이》장면의 화폭으로 바뀌어지기도 한다.

이런 시구들에서는 회화적묘사가 변화되는 자연현상을 섬세하게 반영하고있다. 해돋이가 《우리의 마음》으로 때로는 《우리의 정열》의 상징으로 노래되는가 하면 노을이 때로는 《청춘》, 때로는 《희망》, 때로는 《정열》, 때로는 《주체의 노을》로 형상되기도 한다. 이런 비유는 시적 언어형상의 회화미를 보다 진실하게 하는데 이바지한다.

마음속에 그려지는 자연은 현실적인 자연 그 자체보다 더 회화적이다. 그것은 자연을 보는 사람들의 마음의 눈에 의해 재평가된 자연현상은 본래의 의미보다 더 아름답게 다듬어지기 때문이다.

이 시에서 회화미는 음악성과 결합되어있다. 시에 운율이 없으면 음악성도 없어지며 음악성이 없는 정서는 시의 서정으로 될수 없다. 3.3.5조의 정형시적운률구조를 가진 시의 모든 절과 절,

행과 행사이에서는 시구들이 대구적으로 조화되고있다. 1련의 《동트는 대동강 해가 솟는다》는 2련의 《락원의 대동강 해발 넘쳐라》와 1련의 《찬란한 해돋이는 우리의 마음》은 2련의 《불타는 해돋이는 우리의 정열》과 그리고 3면에서는 1행과 2행이 음향적으로 조화되고있다.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는 이와 같은 모든 사상예술적특성으로 하여 오늘도 선군혁명총진군에 펼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슴에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있으며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그들의 투쟁을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그날의 대동강의 해맞이를 오늘 강성대국해맞이로 되게 하시려는것은 우리 장군님의 의지이고 신념이며 웅대한 구상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나가는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들의 가장 성스러운 임무이며 영예이다. 잊을수 없는 그날 위대한 장군님께서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 《대동강의 해맞이》의 맥박이 우리 인민의 심장속에서 뜨겁게 고동치는 한 이 명작의 생명력은 영원할것이다.

말발굽소리

김영심

하늘이 타고 땅이 튀던
전화의 날
모든것은 전선으로 전선으로만
달려가는데

산언덕 넘어 기슭 에돌아
샘골집 찾아가는 군마 한필
무얼 신고서 저리 급히 달리나
이라 찌찌 말발굽소리 울리나

남편이 전선에 간 인민군대후방가족
안해가 첫아들 낳은 샘골집
허지만 젖이 없어 아기는 울어보채고
엄마도 안타까워 눈물짓는데

작전도우에 화살표 그으시던
강철의 령장 우리 수령님
그 사연 아시고 그 아픔 헤아려
염소젖 보내주자 하신 그 사랑

그 염소젖 어디서 난것이던가
전선의 모든 중하 한몸에 지니시고
수척해지신 우리 수령님 위해
친위병들 기르던 염소에서 짜낸 젖

그 귀한 뽕얀 젖
갓난아기에게 어서 보내주자고
수령님 뜨겁게 말씀하시여
매일같이 달려간 최고사령부 군마

승리는 불을 뿜는 포신에만 실려오나
승리는 적진 넘는 땅크에만 실려오나
련락병이 품어안고 달려오는 염소젖
저 작은 군마에도 덩실 실려오네

아, 포화속에서도
미래를 키워오신 위대한 수령님 사랑
천년이 가도 만년이 가도 못잊어
전설처럼 전하여갈 말발굽소리, 말발굽소리...

구성의 기교와 작품의 특색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를 두고-

림창덕

문학작품은 인간의 높은 지적창조물이다. 새롭고 독창적인 종자의 탐구, 특색있는 구성 기교의 발휘, 비반복적인 전형적성격창조, 자기식의 독특한 언어구사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작품의 개성과 특색은 어디까지나 작가들의 창작 능력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설계에 의하여 기초를 파고 기둥을 세우고 서까래를 거는 도식적인 건물공사와는 달리 문학작품창조과정의 다름아닌 창작적개성의 발현과정으로 되기때문이다.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작가는 자기의 사상미학적인도와 작품에 담아야 할 성격과 생활의 요구를 일치시키고 그것을 통일적으로 해결할수 있게 구성을 세워야 한다.》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리준길작)는 특색있는 구성기교로써 좋은 경험을 보여준 작품이다.

감옥이라는 하나의 공간을 리용하여 수십년간 혁명적신념과 지조를 고수한 통일애국투사의 성격을 형상함에 있어서 소설의 구성의 기교를 발휘하였다.

1년을 통하여 20여년을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의 구성상기교는 무엇보다도 옥중투쟁 1년을 통하여 비전향장기수의 20여년의 투쟁사를 보여준 함축미, 집약미이다.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불굴의 통일애국투사 비전향장기수들의 옥중투쟁기간은 평균 34년, 최고 45년이다.

소설의 원형 역시 통일애국의 길에서 불행하게 원썬들에게 체포되어 수십년간의 감옥생활을 하고 그 이후 악명높은 《사회안전법》의 희생물이 되어 다년간의 감옥생활을 또다시 강요당했던 통일애국투사이다.

작품은 이런 원형인물의 투쟁과 생활을 형상하면서 1년을 통하여 20여년을 보여주는 구성기교를 발휘하였다.

소설에서는 주인공 원익보가 적들에게 체포된 지 몇년후인 주체48(1959)년 설날부터 다음해 4

월까지의 생활을 통하여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의 사상정신세계를 보여주고있다.

작품의 이러한 사상미학적인도는 무엇과 관련되어있는가.

그것은 이 작품에 심어진 종자의 요구와 관련된다.

소설은 통일애국투쟁에 사랑선을 결합시켜 형상하면서 개인의 안일과 향락에 비할바없이 중요하고 최우선시되어야 할 조국통일문제의 절박성에 대하여 보여주고있다.

작품에서 주인공 원익보와 그의 애인 홍채련의 형상을 통하여 밝히고있는 사상적알맹이는 행복이 기약된 사랑의 길에서는 물러설수 있어도 통일애국투쟁의 궤도에서는 한걸음도 내려설수 없다는것이다.

그들에게 있어서 안락의 길에 들어서기는 그닥 어렵지 않다.

그러나 모든 비전향장기수들은 개인의 행복과 안락을 뒤로 미루고 모진 악형과 괴로움만이 있는 감옥에서 수십년간이나 자기의 신념을 지키여냈다.

그것은 일신상의 행복과 안락을 취하려면 인간의 양심을 버리고 나라와 겨레앞에 수치스러운 전향이라는 더러운것을 하여야만 되였기때문이다.

작품은 종자의 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인공 원익보와 애인 홍채련의 생활을 교차시켜 보여주면서 깊이있고 생활적인 예술적화폭을 창조해냈다.

어느해 설날 형무소 부소장에게 불리워나간 원익보는 그자의 책상우에 놓인 구겨진 신문지에서 전국대학생실력경연에서 1등을 한 미모의 처녀 홍채련에 대한 기사를 보게 된다.

이 일을 계기로 하여 펼쳐지는 홍채련과 그의 아버지 홍진국에 대한 회상, 주인공의 통일애국투쟁과 체포경위는 이야기의 복잡성과 산만성을 피하고 집약과 함축을 할수 있는 전체를 마련하였다.

다음장에서는 홍채련의 집 설날풍경이 펼쳐진다.

원익보의 체포직후 뇌출혈로 아버지가 사망하고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있던 홍채련은 마음씨 착한 아저씨가 자기 집에 하숙하고있는 사촌오빠 홍만식의 밀고에 의해 체포되었다는 무서운 사

실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순진한 너대학생 홍채련의 마음속 고인이 일어나게 되고 대학을 졸업한 그는 자책의 마음을 안고 《가짜안해역》을 하면서 원익보의 옥바라지를 하게 된다.

순수한 동정의 마음을 안고 시작했던 이 길이 처녀를 투쟁의 길로 나서게 하는 과정이었음을 소설에서는 인간학적요구에 맞게 형상화하였다.

원익보와 면회를 하는 과정에 통일애국투사의 불굴의 신념의 세계에 감동되고 매혹된 홍채련은 드디어 그의 진짜 안해가 되어 행복을 마련해줄 결심을 다지게 되었다. 자기가 마련한 사랑, 자기 회생을 각오하고 마련한 행복을 원익보가 거절하였을 때 홍채련은 처음에는 놀라고 원망하였지만 곧 주인공의 신념과 의지의 정신세계에 공감하게 된다. 미제의 하수인 리승만피뢰역도를 거꾸러뜨리기 위한 4. 19인민봉기의 선두에는 홍채련도 있었다.

이것이 소설의 전반적인 이야기줄거리이다.

작품에서는 그 이후의 생활을 대담하게 함축시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도 통일애국투쟁의 궤도로 줄달음쳐온 비전향장기수의 성격을 뚜렷이 부각하였다.

바다물을 통채로 마셔야 짜다는것을 아는것이 아니다.

작품이 수십년중에서 1년을 선택하여 구성을 조직한 기교는 오히려 순차적구성방식에 의거한 작품들에 비해 자기의 특색을 보다 더 재치있게 보여주었다.

주인공의 성격을 부각한 상대인물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의 구성기교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상대인물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주인공의 통일애국에 불타는 성격을 부각시킨것이다.

소설의 구성작업에서는 주인공과 운명적으로 밀착된 인물관계를 설정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어떤 인물을 주인공과 맞물리고 어떤 형상과제를 부여하는가에 따라 그 인물관계가 작품의 주제사상적과제해명에 보다 효과있게 이바지할수 있다.

장편소설 《내려설수 없다》의 인간관계는 원익보와 홍채련, 림성호, 림문향 등 긍정인물관계와 홍만식, 오상철, 송대걸 등과의 부정인물관계로 설정되었다.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기타 인물들과의 관계는

간략화하고 주인공과 안해 홍채련과의 관계를 기본으로 끌고나갔다.

상대인물 홍채련의 형상과제는 비전향장기수의 신념과 의지를 부각시키는것으로서 중요하고 무거운것이였다.

주인공 원익보와 홍채련은 운명적으로 뗄래야 뗄수없는 관계에 있다.

원익보의 성장과 생업유지에 홍채련의 일가가 련관되어있으며 원익보의 옥중투쟁에서도 홍채련의 역할이 작지 않았다.

홍채련이는 어린 시절부터 원익보를 알고 친근하게 대해왔으며 성장후에는 그의 사상정신세계에 공감하여 안해로까지 된 열정적이고 리지적이고 도달한 녀성이다.

작품에서는 이러한 격이 높은 상대인물을 작품 전반에 세워놓고 그의 모습에 주인공의 성격을 굴절시켰다.

즉 작가는 홍채련을 형상하는 방법으로 통일애국투사 원익보의 성격을 부각시켰다.

무엇이 순진하고 리성적인 처녀로 하여금 비전향장기수를 사랑하게 하였고 투쟁으로 나서게 하였는가를 밝히는 과정은 곧 비전향장기수들이 지닌 신념과 의지의 세계를 개방하고 그 높은 정신세계를 형상하는 과정으로 되었다.

즉 홍채련의 설정은 원익보를 보다 밝고 뚜렷이 형상하기 위한 《거울》의 설정이라고 할수 있다.

안락의 길이나, 통일의 길이나 하는 갈림길에서 주인공은 후자를 선택하고 불굴의 신념을 가지고 싸워 이겼으며 참다운 사랑도 되찾을수 있었다.

작품에서는 다양한 인물관계를 설정하고 심화시키면서도 주인공 -안해선을 기본으로 하여 형상하였다.

이 소설의 창작목적은 다름아닌 통일애국투사들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그 사상정신적원천을 해명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혁명교양에 참답게 이바지하는데 있다.

여기에서 어떤 주인공을 어떤 각도에서 형상해내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같은 비전향장기수들이라고 하더라도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한 기초우에서 투쟁하다가 체포되어 옥중투쟁을 벌인 사람도 있고 투쟁의 길에서 혁명적세계관을 확립해나가는 사람도 있다. 이러한 각이한 생활체험과 투쟁경로를 거쳐 옥중투쟁이라는 공통적인 생활을 한 비전향장기수들을 형상함에 있어서 그들의 옥중투쟁을 어떤 방식으로 형상하겠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시되지 않을수 없는것이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작가는 이야

기줄거리를 함축하는 수법과 함께 상대인물을 통하여 주인공의 성격적면모를 굴절부각시키는 효과적인 수법을 활용하였다.

작품에서 상대인물 홍채련을 통하여 굴절시킨 주인공 원익보의 성격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여 개인의 행복이나 안락보다 조국통일문제를 최우선시하고 그 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강毅한 혁명정신, 모진 시련과 난관을 겪으면서도 자기의 신념과 지조를 굽히지 않는 불굴의 투쟁정신이다.

작품은 이러한 주인공의 성격을 설명이나 주정으로으로써 형상해낸것이 아니라 상대인물 홍채련의 성격발전과정을 통하여 부각시켰다.

작품에는 물론 주인공의 성격발전과정도 형상되었다. 그가 조국광복회 조직원인 스승 립성호의 지도와 방조를 받으며 해방전에 벌인 반일투쟁이나 해방후 남조선에서의 민주화운동, 조국해방전쟁시기의 적극적인 활동 등이 그려져있다. 이 부분은 주인공의 회상으로 간략화되고 보다 중요하게 형상된것은 홍채련의 성격발전과정이다.

그것은 상대인물 홍채련의 성격발전과정에 곧 주인공-비전향장기수의 성격적특징이 비껴있기때문이다.

작품에서는 크게 네 단계로 홍채련의 성격발전과정을 보여주었다.

첫 단계는 주인공 원익보에 대한 소개부분이라고 할수 있다.

해방전 투쟁의 길에 나선 원익보가 홍채련의 집에 들렀다가 어린 그를 도와준 일이 있었고 주체42(1953)년 통일투쟁을 하던중 거처지를 찾아 《동화병원》에 가서 홍채련이를 만난 일이 있었다.

칠들기 전 홍채련의 시야에 비친 원익보는 인정 많고 마음씨 후한 《아저씨》의 모습이였다.

둘째 단계는 자기 사촌오빠의 밀고로 감옥에 끌려간 원익보에 대한 미안하고 죄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안해》로서 그의 옥바라지를 하는 나날에 그를 새롭게 이해하는 과정이다.

이 시기는 홍채련이 나이도 들고 사회적모순에 대한 분석능력이 상당히 체득된 단계로서 원익보를 동정이 아니라 이해하면서 대상할수 있는 형상적바탕을 가지고있다.

셋째 단계는 주인공의 정신세계에 매혹된 홍채련이가 진짜 안해가 되어 그 권리로 전향권고를 하였다가 부정당하고 원익보의 높은 정신세계에 보다 감동되어 그를 따라나서게 되는 단계이다.

《우리의 매 걸음걸음은 오로지 통일의 그날에

로 뻗은 그 하나의 궤도로만 줄달음쳐야지 단 한 걸음도 거기서 내려서는 안되오. 사랑도 마땅히 통일을 향해 마중가는 그 의로운 궤도우에서만 땀어져야 하며 절대로 그 궤도에서 내려서서야 안되지.》

죽는 순간까지 위대한 장군님의 전사로서의 도리를 다할수 있게 해주는것이 바로 자기가 요구하는 사랑이라고 절절히 써보낸 원익보의 편지는 지금껏 동정과 이해의 감정속에만 잠겨있던 홍채련이를 각성시켜 그를 투쟁의 대오에 내세우는 작용을 하였다.

리승만 《정권》을 거꾸러뜨리는 4. 19인민봉기의 선두에서 청년대학생들과 나아가는 채련, 그는 이미 어제날의 그 채련이가 아니였다.

넷째 단계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힘차게 싸우던 홍채련이가 감옥에서 원익보의 혁명적영향을 받아 보다 더 성장하여 투쟁의 걸음을 억세게 내어디디는 과정이다.

사회적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길에서 체포되어 령어의 몸이 된 채련이를 같은 수인으로서, 남편의 자격으로 원익보가 면회하는 장면은 실로 감동적이다. 녀성의 몸으로 감옥에서 모진 시련에 시달리면서 원익보의 모습을 그리며 견디여나가는 홍채련의 모습은 단순히 녀성투사의 형상만이 아니다. 거기에는 어제날 인간적인 동정과 사랑의 감정만을 지니고 주인공을 도와나선 한 녀성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에 굳건히 내세워준 통일애국투사의 모습도 굴절되어있다.

이처럼 소설에서는 함축과 굴절의 기교로써 작품의 특색을 살린 귀중한 경험을 보여주었다.

작품은 비전향장기수의 신념의 세계가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개방되지 못하고 묘사문학으로서의 특성을 옳게 살리지 못한것 등 인간학적품위를 잘 보장하지 못한 일련의 부족점도 가지고있다.

특히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깊이 파고들지 못하고 생활을 풍부하게 그리지 못한것으로 하여 작품이 메마른 감이 있고 상식화한감이 있는것은 이 소설의 형상적품위를 손상시킨 근본요인이라고 본다.

그러나 소설은 구성수법들을 훌륭히 선택리용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는것을 실천으로 확증해주었다.

앞으로 비전향장기수를 원형으로 한 장편소설 창작에서 보여준 귀중한 경험을 적극 본받아 선군시대가 절실히 요구하는 혁명적이며 전투적인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도록 할것이다.

금수산기념궁전 외랑에서

정동찬

비가 내립니다
창밖에 비가 내립니다
그러나 금수산기념궁전 찾아가는 길에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삼가 옷깃을 여미고 찾아뵙는
그리움의 성지
비가 와도 가고
눈이 와도 달려가는
수령님 계시는 곳

한생 들에서 살며
비내리면
내리는 비가 좋아
밭고랑 타고앉아 저무는줄 모르던 이 몸

방울비 구슬같이 돈는 창문으로
외랑의 승강기 흐름선에 실은 이 몸
송구스러워
어쩔바를 모릅니다

허나
한평생 누구보다 눈비를
많이도 맞으신 우리 수령님
비에 젖은 인민을 보시면
누구보다 가슴아파한다시며
궁전외랑 세워주신 장군님 사랑이여

아, 우리 수령님 한평생 걸으신 그 들길에
우리 장군님 걸고걸으시는 그 전선길에
언제 어디에
외랑이 있었습니까

비는 비대로 내리고
이 몸은 이 몸대로 혼흔히 실려가는데
이 말속에 내리는 더운 비소리
나는 듣습니다

비는 오곡을 키우는줄만 알았더니
인민의 마음 가꾸고 가꾸는
사랑의 비가 따로 있는줄
금수산기념궁전 외랑에서 내 처음 알았습니다

빨찌산식으로

박세일

우리 장군님은 결심하셨다
어버이수령님 열어주신 선군의 길
군대도 인민도 빨찌산대오로!
혁명도 건설도 빨찌산식으로!

백두밀영사령부의 붉은기를
내 나라의 푸른 하늘에 높이 날리시며
전선길을 주름잡아 달리시는
아, 오늘의 김대장

항일빨찌산이 나는 한흙의 미시가루인양
전선고지마다에서
선군혁명동지들과
쥬기밥을 나눠드시며...

질풍같이 달리는 야전차는 그대로
항일의 전장을 누비던 백마런듯
그안에서 쪽잡에서조차

인민사랑의 설계도를 펼치시고
조국수호의 화살표를 그으시며...

남패자에서 북대정자까지-
빨찌산이 굽이쳐간
필승의 그 정신으로
온 나라 군민을 불러일으키신 우리 장군님
《고난의 행군》의 진두에서 돌파구를
열어가시지 않았던가
보천보의 해불처럼 지퍼주신
성강의 봉화, 라남의 봉화로
제국주의압살책동을 불사르며
창조의 폭풍 터치셨거니

백두산의 용맹으로
통일의 원수들을 쳐갈기신 장군님
긴긴 세월 이 나라를 두동강낸
분렬의 장벽에 파렬구를 내셨나니

사전에도 없던 선군이란 그 말을
엄숙히 외우며 떠나온 나날이어
해방의 날 맞이하던 그 벅찬 환희로
통일의 해돋이를 맞이할 래일이여

아,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 장군님

엄혹했던 시련의 그 나날에
정일봉의 번개불 채찍인양 휘둘러
세계를 향해 빨리, 더 빨리
내 나라, 내 조국을
세월을 앞질러
썩- 내닫게 하셨도다!

어머님은 오늘도 신갈파에 계시여라

현재련

신갈과 신갈과
꿈결에도 그리운 내 고향
감회깊은 추억의 나래를 펼치며
정다운 네 품에 달려왔노라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가슴뜨겁게 안겨오누나
김정숙어머님의 사랑의 자욱
눈앞에 삼삼 어려오는 유서깊은 땅이여

오실 때에는 소문도 없이
자주색저고리에 깡장치마 산뜻이 입고
압록강을 건너 조용히 오셨건만
가실 때에는 온 신갈과땅을
혁명화된 마을로 만드신 어머니

낮에는 산언덕 밭이랑을 타고
너인들과 김도 매며 노래도 배워주시고
밤에는 야학방에 나오시여
까막눈을 환히 띄워주시니
온 동네가 사랑담아 정을 담아
찬사를 아끼지 않았더라
《우리 옥순이》라고

적들이 살판치는 삼엄한 경계속에서도
우물가와 물방아간 그 어디서나
너인들 가슴가슴에
투쟁의 불씨를 심어주신
어머님의 그 위업 어찌 다 헤아리랴

지금도 귀기울이면 들려와라
마을사람들속에 마음을 주고
《조국광복회 10대강령》 익혀주시며
김일성 장군님 계시여
이 땅에 해방의 새날은 밝아온다고
뜨겁게 이르시던 어머니의 그 음성

오늘도 눈앞에 안겨와라
광선사진관에서
석전양복점에서

오함덕객주집에서도
지하조직성원들을 만나주시고
반일성전으로 불러 이끄신 우리 어머니

떠나가실 때에는
온 마을사람들의 축복속에
신갈파나루를 건느시여
손저어주시던 어머니 모습
압록강물결위에 비껴있는듯
뜨겁게 정을 담아 하신 말씀
오늘도 이 가슴에 되새겨져라

백두산쪽에서 총소리 울리면
김일성 장군님을 모시고
이 정숙이도 잘 싸우고있는줄 알라고

아, 떠나시던 그날
백두산의 녀장군
김일성 장군님 친위전사의 그 모습 우러러
아이들도 어른들도 로인들도
그리도 헤여지기 아쉬워 따라서며
얼마나 뜨거운 눈물속에 당부했던가
-잘 가시라!
-다시 오시라!

신갈과 신갈과
꿈결에도 그리운 고향
내 오늘 다시 찾아
나루가에 섰노라니
어머님의 고귀한 한생이 어려오누나

아, 해가 가고 달이 가고
멀리 세월은 흘러가도
사무쳐오는 어머니생각이여
그날에는 깊어진 정을 주시고 떠났어도
진정 어머니는 가시지 않았어라
신갈과 못잇을 력사의 땅
그 푸른 언덕우에
영원한 친위전사의 모습으로
오늘도 오늘도 서계시여라!

동 지

조석영

내 한생 살면서
미더운 사람들과 정을 나누며
다정히 부르는 말이 있다

기쁜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먼저 부르는 말

-동지, 동지...
나이와 직업은 달라도
정을 담아 부르고
직위와 공로가 달라도
사랑과 믿음으로만 통하는 말

우리 장군님 따라
붉은기를 지켜오며
알았노라
부모를 떠나 살수 있어도
동지를 떠나 살수 없음을

고난의 그 시절
얼마나 훌륭한 동지들이
허리띠를 조이면서도
사경에 처한 동지를 위해
피와 살을 나누었던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먼저 간 동지의 자식들을 말아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었던가

자신의 고생으로
동지의 락을 바라고
자신의 희생으로
동지의 생을 이어주는
이런 사람들을
내 다른 말로는 부를수 없구나

《동지!》

동지는
붉은기를 지켜가는
우리 삶의 믿음이라는 말
동지는
만난을 뚫고 이기는
불패의 힘이라는 말

-동지, 동지...

위대한 장군님 따르는 길에서
생사운명 같이하는 동지!
이런 귀중한 동지들속에 사는
우리 삶이 제일이여라
우리 행복이 제일이여라

장군님의 전선일과

김 해

일요일
온 나라 인민들이 폭 쉬라고
날자마저 빨간 표식 되어있건만
자신에겐 없으신 일요일 휴식일
언제나 마음 전선에 두신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여

월요일
명승지를 찾으신 그날에조차
탐승길 여시며 오르신 산정에서
래일 새벽엔 전선으로 떠나야 한다시며

야전차의 조향륜에 선군세월 만태엽하시는
장군님의 전선일과 선군일과

화요일
한주일은 하루처럼 빠르다고
래일은 벌써 화요일이라 하시며
장군님 찾으실 천만갈래 초소길은
낮이나 밤이나 마음속에 걸어본 길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

수요일

초소에 계시면 하루가 순간인듯 짧고
초소를 떠나시면 순간이 하루인듯 길어
오시여 주신 사랑 가지며 남기신 사랑
다시 오마 하신 약속 사랑의 세월로 된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

목요일
찾으신 날만이 전선에 있고
떠나신 날이 없는 전선길 전선길
길옆의 샘물로 단 목을 추기시고
야전식리발로 시간을 얻으시는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

금요일
낮이나 밤이나 굶은 날 마른 날
장군님 야전차에 실린 선군혁명
조국의 안녕과 인민의 행복을

자신의 삶과 투쟁의 전부로 삼으신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

토요일
일년 삼백 예순닷새속에
일요일 명절날 얼마나 많던가
인민들은 일요일휴식을 생각할 때
전선려장을 든든히 갖추고 초소로 떠나시는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일과

오! 세월은 공정하다 했건만
왜 이 땅엔 두 세월이 흘러야 한단말인가
행복을 주고 지켜주는 장군세월!...
행복을 받고 누려가는 인민세월!...
이것이 내 조국의 무궁한 선군세월되어 흐르누나
장군님 전선일과 선군세월이어!

나의 집 창가에서

윤정길

해빛 부신 이 아침
창가의 화분들에 물을 줄 때면
가슴에 뜨거워라 그날의 사연
우리 수령님 오셨던 그날의 추억

인민의 행복이 꽃피는 거리
기쁨넘친 모습들이 보고싶으시여
거리를 돌아보시던 어버이수령님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지

일군들을 돌아보시며 물으시었지
양지바른 언덕의 널찍한 공지
좋은 자리를 왜 비워두는가고
이곳에 살림집을 지으면
인민들이 좋아할거라고 하셨지

-수령님, 그러면 맞은편 정권기관청사가
살림집에 눌러워 초라해보입니다
최스러워 올리는 일군의 아뢰임
그러자 번쩍 빛발치는
어버이수령님의 안광

-무슨 소릴 하는지요?
정권기관청사보다 살림집이 높으면
더 좋지 않겠소
당장 건설을 시작합시다!

일군들은 인민의 심부름군이라고
심부름군의 집이
인민이 사는 집보다 높으면
인민들은 일군들을 따르지 않는다고
준절히 깨우쳐주신 수령님

아, 그 사랑에 떠받들려
구름을 허리에 두르고
하늘 닿게 솟아오른 살림집
인민의 집이어

창문 열고 나서면
꽃구름에 등실 떠실린듯
손채양 없고 바라보면
태양은 더더욱 가까워 가까워

하늘가에 프락을 둔 나의 집
온 세상이 눈아래 굽어보는 절정에서
뜨거운 사연 그리움의 추억을 안고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인민이 산다

내 고향 거리만이 아닌
온 나라 인민이 사는 가장 가까이에
태양은 빛난다
은혜로운 해빛을 누리며
태양과 가장 가까운 곳에 인민이 산다!

전승기념탑 문어구에서 (외 2 편)

류명호

문안에 들어서면

전쟁!

문밖에 나서면

평화!

전쟁과 평화는

다정한 이웃도 아니건만

이렇게 가까이

문 하나 사이두고 있단 말인가

전화의 그날로부터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전쟁과 평화는

서로 멀어진적이 없었거니

생활에선 때로

멀리에 있다고 생각하던 그런것이

바로 그 순간에

불쑥 눈앞에 다닥치는 일이 얼마나 많던가

침략자들은 피에 주린 승냥이처럼

문을 두드리는 법을 모르고

주인의 의사를 묻는 법은 더더욱 모르거니

하거니 이 땅의 사람들은

전승기념탑

완전한 평화가 깃들지 않은 땅에서

마음의 총부력을 바싹 틀어진다

우리의 밤

너무나도 판이한

서로 다른 밤이 마주선 여기

나는 지금 여기서

1950년대와 2000년대의 밤을 마주본다

고요를 싣고 흐르는 보통강너머

평화가 깃든 저 창문

저기서 나의 안해와 아들이 웃음속에 잠들고

여기선 그날의 전사들이

락동강을 피로 적시며 침략자와 결사전을 하고...

저기 저 꽃향기 넘치는 유보도길

쌍쌍이 청춘들

꽃같은 사랑을 속삭이고

여기선 두눈에 불을 켜단 전사들이

청춘을 육탄으로 빚어 적화점에 날아들고...

오, 밤이여

전승기념탑의 밤이여

너는 나에게

전쟁을 모르고 자란 나에게

밤이란 무엇인가를 말해주나니

밤

평화로운 우리의 밤은

세월의 한구간이 아니다

50년대 영웅전사들이

후대들에게 남긴 생의 한구간이 아닌가

그렇다

우리의 밤은

침략자들을 죽음의 어둠속에 처박고

이 땅위에 평화의 밝은 밤을 안아온

이 나라 로병들의 빛나는 삶이

하늘가에 별로 펼쳐진 숭고한 세계!

여기 아닌 그 어디서

조국의 밤의 의미를

피처럼 진하게 가슴에 새길것인가

여기 아닌 그 어디서

행복이 깃든 우리의 창문들을

그렇듯 가슴 뜨거이 바라볼수 있으랴

평화로운 오늘의 밤

조국 위해 목숨바친 영웅들을

영원히 잊지 말라고

우리의 **김정일**동지

평양의 한복판에

50년대 준엄한 전화의 밤을 펼치시였구나

오, 전승기념탑의 밤이여!

전시가요

전승기념탑에

은은히 울려퍼지는 《전시가요》들

나에겐

그날의 영웅전사들이 부르는것 같아라

가슴속 피를 끓이는 저 노래

《결전의 길로》는

마지막 백병전을 준비하며

바위에 썩썩 보병삽을 갈던

1211고지 전사들이 부르는 노래인가

《조국보위의 노래》는

포연이 흐르는 전투의 실참

달아오른 포신을 식히며

철썩이는 파도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실어보내던

월미도 해안포병들이 부르는 노래인가

원썩들은 싸움에 앞서

인민군전사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혼이 빠지고

기가 죽어 비칠거렸거니

오,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이

고향과 조국에 대한 사랑이

피같이 뜨겁게 흐르는 《전시가요》들은

조국수호 3년간

미제를 때려눕힌

또 하나의 위력한 무기였더라!

그때로부터

세월은 흘러 멀리 왔어도

그날의 《전시가요》들은

어제도 오늘도

이 나라 사람들의 피속에 흐르고있거니

오,

시련많은 혁명의 고비고비를 넘을 때마다

그때마다 우리 인민은

《전시가요》를 높이 부르며

사회주의붉은기를 끝까지 지켜냈어라

50년대 영웅전사들의 삶이

사진처럼 찍혀있는 《전시가요》들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불멸의 노래로 세월을 넘어 울려퍼지려니

오, 전쟁을 이긴 이 나라 로병들

50년대 영웅전사들의 삶은

《전시가요》속에 길이 남아

조선혁명에 제대없는 병사로 복무하리라!

탄창은 못속여 (외 1 편)

권태여

전쟁판에서
언제 끼때를 가린적 있었던가
때로 꽃강냉이 한이삭으로
아홉끼를 때기도 하고

허기져 지칠 때도
탄창이 불려있으면
멸적의 날개는 접히지 않아

이래저래 배를 속여가며
끼때를 건너뛸 때도
탄창은 못속여
탄알을 재웠더라

결전의 사선에서
전사의 끼니는 무엇이었던가
오, 그것은 쌀알보다 총알이었다

전우의 탄알쌘지

혈전의 언덕에서
쓰러진 전우
나에게 넘겨주었네
못다 쏜 탄알쌘지 하나

식을줄 모르는
탄알의 그 숨결로
복수의 불벼락을 안겨준
그대의 생은 천만총구에 살아있나니

마지막숨을 몰아쉬면서도
나의 손에 쥐여준 못다 쏜 탄알쌘지
죽어도 놓칠수 없는
원썹의 파격을 짊어준 전우여

나는 오늘도
전우의 그 탄알쌘지를 안고 산다

막장의 가을

리덕진

땅우에는
눈비 와도
막장은 언제나
풍성한 가을

아, 어느해 7월이런가
금팔을 찾으신 우리 장군님
광부들의 보배손 뜨겁게 잡아주시고
환히 웃으시던 그 미소어려
광맥은 이리도 눈부신가

인차를 타고 20리
수직갱승강기를 타고 수백미터
예가 바로 나의 일터
금광광산 4. 5갱

쿵-쿵-
누를길없는 걱정을 담아
련속대발파소리 메아리쳐라
제대군인광부들의 목소리처럼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따로 있었던가
언제나 한계절속에
쇠돌을 캐는 이 가슴 환희에 휩싸다

고속도굴진
련속발파
착암기정날끝에 불꽃튀고
쇠돌은 폭포되여 쏟아져

쇠돌산을 이루거니

선군혁명총진군으로 질풍같이 달리는
환희넘친 땅우에는
정시로 달리는 기관차의 기적소리 정겨웁고
풍요한 들판의 이삭들이 설레인다

종구나
이 가슴벅찬 모든것을 떠받들고
광부의 가슴을 흔들며 울리는 발파소리
이럴 때면 막장은
농악에 들썩이는 분배장인듯

제대군인 청년갱장의 복장단에
유정한 민요가락 뿜으며
더덩실 흥에 겨워 어깨춤 절로 나고
위훈으로 부르는 선동원의 즉흥시에
막장이 부글부글 끓는
보람찬 일터여

아 위대한 장군님의 부름따라
10월의 대축전장으로 달리는
우리네 막장은 한계절이여라
광부의 땀이 무르익는
풍성한 가을이여라

복수자들의 어머니에게 드리는 시

김영애

두팔이 없는 너인이여
나는 알고있습니다
한 자식을 낳아 키우는것이
얼마나 힘든것인지

허나 나는 모릅니다 너인이여
두팔이 없는 몸으로
네 자식을 낳아키운 그 수고를

피와 살을 갈라준 자식을
품에 안아보는 권리마저
누릴수 없었던 너인이여
엄마품에 안기고파 우는 아기를
책상우에 눕혀놓고 당신이 물린것은
젖줄기가 아니라 복수의 피줄기였습니다

의수로 밥을 짓고 불을 때며
한겨울에도 두발로 빨래를 하며
당신이 키운것은
네명의 복수자들이였습니다
여덟의 억센 팔이였습니다

아 생각조차 치떨리는 전화의 그날
여덟살 어린 소녀의 몸에서
봄날의 꽃순처럼 자라는

두팔을 잘라버린 미제승냥이

그 야수들을 복수하지 않고서는 쓰러질수 없어
딸들의 이름도 《복수하리라》
천추만대 대를 이어 복수하라고
아들의 이름도 《원대》라고 지었습니다
네자식을 모두 병사로 내세웠습니다

장하십니다 어머니시여
원썬들 강요한 불행에 굴하지 않고
자옥자옥 원썬들을 이기며 걸어온 그 한생
원썬들의 만행에
복수자들의 총대로 대답한 너인이여

당신을 보며 깨닫습니다
침략자 미제와 맞서있는 이 땅의 너인은
어떻게 강해야 하는가를
이 나라 어머니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어머니 당신에겐 두팔이 있습니다
당신이 낳아 키운 네명의 복수자들
그들이 틀어잡은 네자루의 총대가
선군조국을 받드는
어머니 당신의 두팔입니다



류민호

1

내 어린시절의 추억속에는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아버지》를 찾아가던 일이 깊이 새겨져있다. 그것이 나에게서는 아버지와 유일한 《상봉》이었다.

나는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도 본적이 없었다.

내가 태어나 세상을 알아보기 시작하였을 때에는 벌써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던것이다.

아버지의 묘는 장원읍을 한 7리쯤 못미친 곳에 자리잡고있었다.

시내에서 장원까지 가는 버스를 타고 가노라면 나타나군 하던 《신하리》라는 파아란 바탕에 흰글을 새긴 정류소표식도 나의 기억속에 생생히 새겨졌다.

정류소에 내리면 아근에 큰 마을은 없고 대추나무가 서있는 곳에 집이 세채 있을뿐이다.

그 맞은편쪽으로 언덕을 내려서면 바닥에 동글동글한 돌이 한벌 깔려있는 작은 개울이 있는데 정검다리를 건너가면 자그마한 인민군대초소가 있다.

지금은 내가 전장우에 별을 단 군인이지만 어린시절 처음으로 눈에 익힌 군대의 모습은 그 초소에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한개 분대가량의 작은 유선통신초소였던것 같다.

그 초소를 옆에 끼고 최폭길로 오불꼬불 한참 올라가노라면 술포기들이 드문드문 앉아있는 평퍼짐한 야산기슭이 나지는데 거기에 잔디를 포근하게 덮은 묘가 하나 봉긋이 솟아있었다.

어머니는 늘 거기로 나를 데리고 가군 하였다.

그것도 몇십년을 두고 어김없이 찾아가군 하였다.

어머니는 그곳에 이르면 묘앞에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고 앉아서는 《한동무, 제가 왔어요. 남친이도...》 하고 인사를 하고서야 묘손질을 하고 제

상도 차리군 하였다.

철이 없을 때 나는 봉분우에 기여오르기를 좋아하였는데 그럴 때면 어머니는 기겁을 해서 나를 끌어내리군 하였다.

《이 녀석아, 여기엔 인민군대인 너의 아버지가 누워계신단다. 그런데 그렇게 우에 올라가 덩굴면 되겠느냐?》

《엄마, 그럼 그 인민군대아버지를 깨워서 데리고 가자. 힘들게 이 먼델 오지 말구, 응?》 하고 조르면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그렇게 할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니...》 하시며 눈물을 떨구군 하였다.

나는 어머니가 우는것이 싫어서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그런 말을 꺼내지 않았다.

그런데 이상한건 우리가 도착할 무렵이면 꼭 나이드 어머니 한분이 나타나군 하는것이였다. 대추나무가 서있는 집들중 두번째집에서 사는 그 녀인을 어머니는 날더러 큰 어머니라고 부르라고 하였다.

우리가 사는 다층살림집에도 큰어머니라고 부르는 어머니가 또 하나 있어 나는 이곳 큰어머니를 《대추나무집 큰어머니》라고 불렀다. 대추나무집 큰어머니는 늘 낮을 바꾸니에 담아가지고 올라오군 하였다. 그리고 바꾸니안에는 언제나 먹음직스러운 빨간 대추가 담겨져있었다.

큰어머니는 그것을 묘앞에 한접시 놓고 나머지는 내옷에 있는 호주머니들에 가득가득 채워주군 하였다. 그 대추를 나는 집에 돌아와 다음날까지도 먹었다. 참으로 맛있는 대추였다.

어머니는 큰 어머니와 함께 상돌에 음식을 정성스레 차려놓은 다음 술을 잔에 가득 부으면서는 《한동무, 많이 들어요!》하고 마치 산사람들에게나 이야기하듯 말하군 하였다.

그래서 나도 술을 붓고 절을 할 때면 《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군 하였다.

큰어머니는 말없이 조용히 옆에 앉아있는적이 많았다.

그곳을 떠날 때면 어머니는 한참이나 그앞에 서있곤 하여 큰어머니가 먼저 내 손목을 잡고 잔디밭을 걸어들어오는 때가 많았다. 개울까지 내려가 큰어머니가 나에게 세면을 시켜주고 얼굴을 간간히 닦아줬을 때에야 어머니는 두눈이 붉어져서 따라오곤 하였다.

《어머니, 해가 지기전에 어서 뺄스를 타자요.》 하고 내가 말하면 큰어머니는

《집에 가야 기다릴 사람도 없는데 우리 집에서 자고 가렴.》 하고 권하곤 하였다.

사실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란 말은 고사하고 아버지를 보지도 못하고 자랐다.

다만 《어머니》란 말 하나밖에 몰랐다.

《우리 아버지 어떻게 됐나요?》 하고 물으면

《아버지는 전쟁시기 전사했단다.》 하고 대답했

고

《아버지는 어떻게 생겼었나?》 하면

《아버지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몸이 박달나무 처럼 단단했지... 그리구 강이나 호수에서도 물에 뛰어들어선 맨손으로 팔뚝같은 물고기를 잡아내곤 했단다. 오죽하면 중대에서 너의 아버지보구 물고기잡이명수라고 했겠니. 한번은 분대가 강상류에서 물고기잡이를 하였는데 아버지가 큰 가물치를 잡아냈는데 그 세차고 큰 놈이 손안에서 대가리가 부서졌더구나. 손아귀가 정말 썰지...》 하고 어머니는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그냥 이어가곤 하였다. 옆에서 듣는 사람들도 옛말을 듣듯이 재미나게 들곤 하였다.

나는 어릴 때에 벌써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의 이름은 한석일이고 나이는 어머니보다 두살 우이며 고향은 강원도라는것을 알고있었다. 나의 이름은 아버지가 남진이라고 지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의 얼굴만은 알수 없었다. 사진이라곤 한장도 없었던것이다. 손톱만한 증명서사진조차도 없었다. 하여 나는 내 얼굴을 거울에 비쳐보며 아버지의 얼굴이 어떻게 생겼으리라고 상상해보곤 하였다.

내포래 아이들도 모두 보면 자기 아버지를 닮았기때문이었다.

그것이 내 어릴적의 추억이며 아버지에 대해 아는것의 전부이다.

나는 어머니에게서 아버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어린시절에는 어머니가 때때로 해주는 토막이야기들로 만족했고 자라서는 어머니의 가슴을 아프게 할가봐 묻는것을 피해왔다.

그리고 언젠가는 어머니가 모든것을 이야기해줄 때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때를 기다렸다.

그러나 나는 지금 어린시절 추억을 더듬으며

어머니와 같이 찾곤 하던 아버지의 묘소를 혼자 찾아가고 있다. 내가 혼련을 나간 사이에 어머니는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자주 함께 걸던 이 길을 오늘은 나 홀로 걷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나는 지금 너무도 큰 수수께끼를 안고 간다. 나는 어머니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장안에 있는 손때묻어 반들반들해진 작은 함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열어보니 그속에는 전후시기 어머니의 제대증과 여러가지 애용품들이 들어있었다.

제대증에 있는 어머니의 흉안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입대년월일에 나의 눈길이 멎었다.

1950년 6월 27일이라고 되어있었던것이다.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나의 생일은 1950년 10월 24일이다. 그렇다면 어머니는 입대하여 조국해방전쟁이 한창이던, 그것도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에서 나를 낳았던것이 아닌가.

나는 이제까지는 어머니가 나를 낳은 후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입대하였으며 그래서 나를 대추나무집 큰어머니에게 맡기고 떠났다고 알고있었다. 그런데 제대증에 보면 어머니는 나를 군대복무를 시작한 후에 낳은것이 아닌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가. 도저히 있음직하지 않은 일이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한적이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들이 흔히 나이들면 꺼내기 좋아한다는 나를 낳을 때의 이야기도 한적이 없었다.

아버지에 대해서도 군대복무기간의 생활, 전쟁시기의 몇달에 대하여 자주 이야기하였다.

때때로 나는 어머니가 무슨말을 할듯말듯 망설이는듯 한 느낌을 받은적은 있었다.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돌아보면 나를 지켜보다가 시선을 내리우던 때도 있었고 때로는 무슨 말을 할듯 나를 불렀다가는 그만두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에 와서 떠오른 생각이고 그때는 그저 무심히 지나쳤을뿐이었다.

어머니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었을가. 《좀더 후에》하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어머니는 뇌출혈로 집에도 들어와보지 못하고 퇴근길에서 사망했다. 그 어떤 말 한마디도 남기지 못했다.

내가 아는것이란 어머니가 새과랑게 끓였을 때부터 홀로 나 하나를 키우느라 많은 고생을 했다는것이다.

어렸을 때를 생각해보면 배고팠던 일이나 남보다 못입어서 서러웠던 기억은 전혀 없었다.

나는 소학교를 거쳐 중학교 그리고 군대복무생활 그다음 군관학교 지금은 구분대지휘관.

나를 배치하던 일군들도 고개를 기웃거린적이

없었으며 입당할 때도 나의 경력에 대하여 이런저런 말이 오간적이 없었다.

어머니는 외모 역시 여성으로서 빠진데가 없었다.

자식에게는 누구나 할것없이 어머니가 가장 아름다운 여성이라지만 어머니는 사실 미인이었다.

얼마든지 채가할수도 있었으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학교다닐 때 마을년장자들이 시집갈 생각이 없는가고 묻곤 하던 소리를 들은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그때마다 어머니는 이렇게 대답하곤 하였다.

《나에겐 사랑이 한개밖에 없으니 나눠줄게 없어서 어떻게 할가요.》 하고 웃어보이곤 하였다.

그리고 또 하나 나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것이 있으니 그것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다.

지금 장원으로 가는 나의 가방에는 어머니의 제대증과 함께 함통에서 나온 옛날 전사모자가 들어있다.

그 모자의 안에는 희미해질대로 희미해진 《한석일 1950년 8월 20일》라는 글자가 찍여져있다.

나는 그 글자들을 판독하느라고 술한 시간을 들었다. 그것은 아버지의 모자였다.

그 날자는 아버지가 그 모자를 받은 날, 즉 입대년월일일것이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와 군대에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었다. 그러면 어머니가 아버지와 만난것이 아무리 빠르다 해도 8월 20일. 내가 태어나기 두달전이란 말이 아닌가. 그러면 나는?... 나는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나는 혼란에 빠졌다. 이 의문을 풀어줄 어머니는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하여 나는 오늘 대추나무집 큰어머니에게 그 사연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결심하고 떠났다.

그는 이 수수께끼를 풀어줄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니, 그는 틀림없이 그 수수께끼의 내막을 알고있을것이다. 나의 걸음은 더욱 빨라졌다...

2

묘소에 당도하여 나는 늘 어머니가 하던대로 꿇어앉아 《아버지, 제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셔서 제 혼자 왔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렇게 말하고나니 저도 모르게 눈곱이 젖어들었다.

(정말로 저세상에 가서라도 그렇게 못잊어하던 아버지를 어머니가 만날수 있다면 좋으련만...)

한생을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살아온 어머니,

어머니는 한해에 두번씩 이곳에서 아버지와 상봉하곤 하였다. 그것이 기나긴 한평생 아버지와 의 《상봉》이였다.

어떤 때는 외아들인 내 점심밥탁에도 《참견》

못하던 희한한 음식들이 불쑥 묘소에 오기 전날에 나타날 때가 많았다. (물론 그 모든것이 나에게 차례지기는 했지만.)

밤새 어머니는 자지도 않고 지지고 볶으면서 새날을 맞곤 하였다.

언제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라도 하는듯 정성을 다하였다...

비석에 씌여있는 아버지의 사망년월일이 오늘따라 새삼스럽게 나의 눈을 찔렀다.

1950년 10월 25일, 내가 태어난 다음날에 아버지가 전사한것이다. 이것을 모두 우연한 일치고 해야할지.

아버지, 어머니가 전사생활을 할 때 내가 태어났으며 아버지는 태어난 다음날 전사하였다는 이 모든 점을...

어머니의 입대년월일과 아버지의 사망년월일은 그 어떤 비밀을 안고있다.

아마 큰어머니는 그것을 알고있을것이다.

어머니는 1954년 가을 전상자병원에서 퇴원하여 내가 있던 여기 큰어머니네 집으로 곧장 왔고 병을 치료하면서 얼마간 얹혀 살았다고 하지 않았는가...

잔디 밟는 소리가 들려 돌아보니 느슨한 웃음을 띤 큰어머니가 언제나와 같이 바구니를 끼고 걸어오고있었다.

턱 높었다. 주름도 더 깊어졌고 하판도 더 뽀족해보였다.

《큰어머니, 나오시기에 수고했습니다.》 하며 나는 바구니를 받아들였다.

큰어머니는 내뒤통을 새삼스레 살피더니 쓸쓸하게 말했다.

《오늘은 자네 혼자 왔구만...》

《큰어머니, 건강은 어떠세요?》

《나야 이젠 팔손이 래일인데... 그런데 자네 어머니 그렇게두 땡땡하더니 갑자기...》

나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이야기를 몇마디 했다. 부대에서 연락을 받고 가보니 어머니는 로상에서 뇌출혈을 해서 말 한마디 주고받지 못하고 운명했던것이다.

《글쎄 유언도 한마디 남기지 못했는지...》

큰어머니가 그 나이에도 낫을 꺼내들고 벌초를 하려고 하는것을 내가 그의 손에서 낫을 앗아들고 벌초를 깨끗이 하였다.

그리고 가져온 음식을 차려놓고 늘 어머니가 하던대로 술을 부으면서 《아버지, 많이 드세요》 하는 인사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큰어머니에게 음식을 권했다.

그는 음식을 맛있게 들었다.

어지간히 시간이 흐르자 나는 먼저 말을 뗐다.

《큰어머니, 어머니가 사망하자 사품들을 정리하면서 보니까 어머니의 군대입대가 1950년 6월인데 내 생일은 10월이니 좀 리해안되는 일이 있

구만요...》

큰어머니는 내 말을 들었는지 못들었는지 잠시 아무런 표정도 없이 먼산만 바라보고있었다.

나는 큰어머니가 모든것을 알고있음을 알아차렸다. 묘장등에서 새 한마리가 눈알을 데룩거리며 우리를 바라보더니 후루룩 날아갔다.

큰어머니는 새가 멀리로 사라진 후에야 뜨적뜨적 입을 열었다.

《자네 어머니 전쟁이 끝난직후 병도 채 낫지 않았는데 병원에서 뛰쳐나와 우리 집에 왔더구만.

자네가 보구싶어서 하루도 있기가 힘들더라면서 말이야. 우리 집에 와 자네를 품에서 떼놓지 않구 나와 마주앉아 해를 넘기며 이야기를 했지. 자네에 대한 이야기를 골백번두 더 들었지.》

큰어머니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기억을 더듬어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3

당시 나의 어머니인 민진숙전사와 아버지인 한석일전사가 속한 부대는 사령부직속 통신대대였다고 한다. 원래 직속 통신대대들은 부대들과 사령부간 방향선 통신을 보장하게 되어있으나 부대들의 진격속도가 하두 빨라서 그 체계가 혼탁이 될 때가 드문했다.

그래서 정연한 대대와 중대, 소대와 분대간 연계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분대가 때로는 독립 임무를 수행할 때도 있었다.

민진숙전사가 속한 분대가 락동강기슭에 당도했을 때가 바로 그러했다. 락동강도하를 위해 각 부대들이 강기슭의 진지를 차지했을 때는 분대가 보병들과 함께 도하준비를 하고있었다.

민진숙은 분대의 교환수로서 교환대를 지고 다녔다. 밤이 깊어서 분대는 보병련대의 락동강도하전투에 합세하였다.

분대장은 교환대와 교환수를 림시음폐호에 남겨놓고 거기에 한석일전사를 보조겸 가선수로서 떨켜놓았다. 이 조치는 몇시간을 넘두에 둔것이였다.

분대원들이 권선기를 메고 교대교대 전화선을 늘이며 락동강도하를 시작했다.

대안에서의 치열한 전투는 밤부터 새벽까지, 다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어졌다.

진숙과 석일은 음폐호에서 분대장의 전화를 초조하게 기다렸다.

때는 한창 수박이 익을 때였다.

불을 피워서 밥을 짓지 못하는 조건에서 음폐호에서 주변밭에 널린 수박으로 끼니를 예웠다.

동쪽을 따라 무연하게 펼쳐진 밭에는 온통 수박밭이였는데 드문드문 강냉이가 서있었다.

두 전사는 도하를 할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분대장의 명령이 오기를 기다리고있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통화검열만이 몇차례 있을뿐 도하명령은 내리지 않았다. 초조하게 기다리다가 지쳐서 한석일은 꺼떡꺼떡 졸기까지 하였다.

두 전사는 별로 할 말도 없었다.

그런데 웬일인가. 대안에 산발적이기는 하지만 보충사격소리가 간간이 들려왔다. 《분대가 어떻게 됐을가요?》

걱정스러운 진숙의 물음에 한석일은 애매한 대답을 했다.

《혹시 통신선이 끊어진건 아닐가?》

《복선으로 늘였는데 설마 두 선이 다 두절될수야 있겠어요?》

그들은 근심속에 날과 날을 보냈다.

어느날 기다리던 전화종이 울렸다.

진숙은 너무 반갑던 나머지 목이 메여 미처 응답도 못했다.

《민동무요? 나 분대장이요!...》

《분대장동지, 나 진숙이에요요!》

너무 반가와 규정도 잊고 소리쳤다.

자지러진 총성이 수화기에서까지 들려왔다.

전화는 다시 끊어졌다.

잠시후 따르릉... 찰칵하고 가입자판이 떨어졌다.

진숙은 급히 접속구를 쫓았다.

《진숙 들습니까!》

《나 분대장이요. 명심해들소. 부대는 전략적으로 일시 후퇴하게 되오. 교환대를 철수해가지고 한석일동무와 천불산으로 가오. 거기서 만납시다... 가만, 만약 거기서 우리와 만나지 못하면 중대가 집결되었던 평주 302고지에서 만납시다. 급히 철수하십시오.》

《알았... 분대장동지!》

진숙은 목이 짝 메였다.

언제나 생사운명을 같이하던 분대와 멀리 떨어지는것만 같아 눈물이 났다.

이것이 분대와의 마지막련결이 될줄이야 어떻게 알았으랴. 그후에도 그들에 대한 소식은 전혀 알수 없었다.

아마도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용감하게 싸웠을것이라는 믿음이 남았을뿐이였다.

그때 진숙은 분대장의 전화가 다시 오지나 않을가 하여 접속구를 차마 인차 뽑지 못했다.

그러나 전화는 다시 없었다.

이때 린접부대 지휘관의 목소리가 수화기에 크게 울렸다.

《교환대, 왜 철수하지 않는가? 빨리 부대를 따르시오!》

진숙은 정신을 가다듬고 한석일전사에게 분대장의 명령을 전달했다.

석일의 얼굴이 순간 해쓱해졌다.

《어서 철수합시다!》

《혹시 그래도 분대가 올수 있지 않을까?》

석일은 어쩔 줄 몰라 당황해하였다.

진숙이 먼저 교환대를 철수하자 석일도 권선기에 늘었던 피복선을 급히 감기 시작했다.

그때 보병들도 대오를 짓고 후퇴의 길에 오르는 모습이 보였다.

산기슭에 산개했던 포병들이 견인차에 포를 물리는 모습도 보였다. 부대들은 후퇴의 길에 올랐다. 진숙은 교환대를 지고 한석일은 권선기를 메고 음폐호를 떠났다.

걸으면서도 혹시나 분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여 남쪽 강안을 보고 또 보며 뒤산으로 향했다.

4

3개 도의 지경을 넘었지만 두 전사는 지경조차 몰랐다. 걸으면서 제일 난관은 가을비가 계속 내리는 것이었다. 가을비가 구질구질하다고 하더니 정말 로상에서 며칠씩 비를 맞아보니 그 말뜻을 속속들이 알수 있었다.

옷은 젖어 천근만근 무겁고 발은 질퍽거리는 흙에 빠져 몇걸음에 10리를 걸은듯 맥을 빼는 행군, 거기에 굶주림까지 겹쳐들었다.

굶어죽지 않고 그래도 갈수 있는것은 한석일의 아무곳에서나 먹을것을 찾아낼줄 아는 류다른 솜씨의 덕이었다.

진숙은 도시에서 자라나서 집에서 낚알로 만든 음식이나 알았지 산과일들이나 강에서 먹을것을 찾는 일은 전혀 낯설었다.

그런데 한석일은 산에 들어서서는 산열매와 풀뿌리, 들판에서는 또 들판대로 여러가지 먹을 양식을 찾아냈다.

그리고 개울에 들어서면 맨손으로 더듬질을 해서 물고기를 잡아내기도 하였다.

민진숙에게는 그가 마치 요술사처럼 보이기도 했다.

진숙의 감탄이 너무 지나쳤던지 한석일은 어느 하루 물고기를 구워먹으며 시무룩한 기색으로 자기의 어린시절 이야기를 했었다.

석일의 어머니는 4남매를 낳았으나 셋은 죽고 자기 하나만 남았다는 것이었다.

한석일은 어머니가 돈벌이를 떠난 아버지를 찾아 자기 하나를 업고 팔도강산을 헤맨 이야기며 고생 끝에 아버지가 있던 어느 광산을 찾아가니 아버지의 분묘만이 그들을 맞아주었다는 이야기, 분묘를 앞에 놓고 통곡하던 어머니의 피눈물나는 과거 이야기를 하였다.

그렇게도 산전수전 다 겪으며 애쓰던 어머니마저 로상에서 병을 만나 세상을 떠났다.

그는 인간으로 태어났을뿐이지 생활은 들짐승이나 다름없었다. 그에게 차레지는 것이란 이 세상에서 내버려진 것들뿐이었다.

그 나날 그는 그 어디서나 먹을것을 찾아내는

야생동물과 같은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조선인민군의 남진으로 인한 해방이 아니었다라면 그는 영원히 그렇게 한생을 바쳤을 것이었다.

20살이 된 오늘까지 따뜻한 정을 모르고 살아온 한석일이었다.

그는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생활한 몇달이 인간다운 생활경력의 전부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몇번이고 자기는 이 고마운 제도를 지키는 군대로 한생을 살겠다고 다짐하곤 하였다. 그들이 간난신고 끝에 어느 이름모를 산기슭에 당도하여 힘겹게 나무숲을 헤쳐가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시꺼먼 그라망 2대가 덮쳐들듯이 쩌지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내리쬔었다. 하늘을 쳐다보니 적비행기는 소나무우듬지를 스칠듯이 날면서 산너머로 기총탄을 난사하며 날치였다. 비행기배때기에서 검은 폭탄들이 떨어지는 것도 험등히 보였다.

뒤이어 파-광하는 굉장한 폭음과 함께 산너머에서 삼단같은 연기기둥이 하늘로 치솟아올랐다.

그들은 허둥지둥 산우에 올라 고개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집이 불타고있었다. 두채밖에 안되는 길가 집에 무엇이 있다고 저렇게도 기총탄도 모자라서 폭탄까지 퍼붓는단 말인가.

둘은 약속이나 한듯 그 불붙는 길가집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분명 집안엔 사람들이 있었겠는데...》

한석일은 혼자소리로 중얼거리며 땀다 달렸다.

진숙도 뒤질세라 교환대를 들썩거리며 입을 옥물고 따라서 달려갔다.

첫번째 집은 직탄을 맞았는지 형체도 없이 벌써 재가루가 되었다. 두번째 집에서는 삼단같이 불길의 온집을 휩싸고있었다.

그들이 당도하자 옥옥하는 불타는 소리속에서 어디선가 분명 아이의 자지러진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이울음소리요. 들리지?》

《맞아요. 아이예요!》

석일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찾아 이리저리 헤덤비었다.

진숙은 불길이 너무 세서 집결지로 다가서지도 못했다.

그런데 석일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요. 이 집이요!》

진숙은 그리로 달려갔다. 집안에도 불이 달려문밖으로 불길이 날름거리고있었다. 석일은 문을 열어제꼈다. 확-불길이 마주 쏟아져나왔다.

다가서던 진숙은 갑자기 꺾-숨이 막혀 자빠질듯이 뒤로 물러섰다.

그런데 석일은 무작정 집안으로 뛰어들었다. 집안은 온통 불길천지였다. 금방 천정이 무너져

내릴것만 같았다.

진숙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석일동무, 빨리요! 위험해요!》

진숙은 다급히 소리치며 그래도 용기를 내어 집앞으로 다가서 보았으나 도저히 집안으로는 뛰어들 엄두를 낼수 없었다.

이때 《물러서요!》 하고 소리치며 석일이가 달려나왔는데 그대로 불덩이가 튕겨나오는듯 하였다.

모자에도 군복어깨와 잔등에도 시뻘건 불이 날름거리고있었다.

진숙은 정신없이 그에게로 달려가 그의 몸에 달린 불을 꺾다. 진숙의 손은 물집투성이가 되었다. 석일은 아기를 가슴에 안은채 쓰러졌다.

아이는 발버둥치며 금방 숨이 넘어갈듯 자지러지게 울어댔다.

진숙은 석일의 몸에 달린 불을 끄고 그에게 물었다.

《아이는 어떻게 찾아냈어요?》

《이 애가 글썽 불속에서 혼자 울고있지 않겠소. 아이포단에 불이 달리기 시작했더라 말ियो.》

말하는 사이에 집은 불에 타서 풍덩 무너져내렸다.

그 집들에서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수 없다. 두채의 집에서 살아남은 생명이란 오직 갓난아이뿐이었다.

《어서 산으로 오릅시다!》

얼마후에야 그들은 아이를 안고 다시 산으로 올랐다.

산속에 이른 석일은 서늘한 그늘아래 아기를 눕혔다. 아기는 불에 그슬린 포단에 누워있었는데 발버둥질을 하며 애처롭게 울어댔다.

한석일은 아기의 우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아기의 모습을 보는 진숙의 마음은 쓰리고 아팠다. 젖도 없이 이 한지에서 어떻게 한단 말인가. 진숙은 아이를 안고 일어서 토박토박 두드려주었다. 그러자 아이는 울다 지쳤는지 아니면 어머니의 품으로 알았는지 잠시 울음을 그쳤다.

잠시후에는 스르르 눈을 감더니 잠들었다.

한석일의 얼굴에 미소가 떠올랐다.

《나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애를 어느 집에 맡겼다가 전쟁이 끝나면 찾아서 내 한평생 이 애의 아버지가 되어주겠소. 지난날 그 몸쓸 세상에서는 우리 형과 누나들이 다 불쌍하게 죽었지만 우리 세상에 태어난 이 애에게는 살아야 할 권리만 있소. 행복하게 살아야 할 권리가 말ियो. 난 이 애를 부러운것 없이 키우겠소. 불쌍하게 죽은 우리 형제들의 나이까지 합쳐 오래오래 살도록 하고싶단 말ियो.》

석일은 결심이 어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진숙은 그를 새삼스럽게 쳐다보았다.

그의 가슴속에 그렇듯 뜨거운 진정이 불타고있는줄은 몰랐다.

그날 밤이었다.

큰길로 지나가는 적들의 대렬도 뜸해졌다.

그러나 주변산들을 돌아치는 수색대놈때문에 불을 피울수가 없었다.

날강냉이로 끼니를 대충 에울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배가 주린 아기가 깨어나 또 울기 시작했다.

한석일은 땀을 철철 흘리며 아이를 안고 돌아갔지만 아이는 더 세차게 울어댔다. 배고파 우는 아이를 무엇으로 얼려낼수 있단 말인가.

《이거 야단났구만... 빨리 산을 넘읍시다. 마을이 나지겠지요.》

두 전사는 급히 산을 뚫아올랐다.

나무들사이로 별이 여무는것을 보니 밤이 깊어진것 같았다. 그러니 퍼그나 시간이 흘렀던것이다. 추위와 굶주림으로 하여 아이의 정상은 말이 아니었다.

산속은 얼마나 높고 깊은지 가도가도 캄캄한 나무숲만이 막아섰다.

한석일은 캄캄한 나무숲속에 아이를 내려놓았다.

아이는 지쳐서 이젠 울음소리마저 제대로 내지 못하였다.

《이러다가 여기서 아이가 잘못될것 같소. 불을 좀 피워주요.》

《불을요?》

《아이를 돌봐야겠소. 빨리 불을 피워주요.》

진숙은 숟가락기를 모아놓고 성냥을 그어댔다.

불은 확-하고 순간에 피여올랐다.

석일은 아기를 들여다보더니 근심에 싸여 말했다.

《입술이 다 검어지기 시작했구만. 이러다간... 안되겠소.》

《그럼 어떻게 해요.》

진숙은 속이 떨렸다.

《일없소... 걱정마요!》

순간 석일은 손수건을 적시여 손가락을 깨끗이 씻고나서 손칼로 손가락을 썩 베었다.

붉은 피가 툭툭 떨어지는 손가락을 우는 아기의 입으로 가져갔다. 굶주린 아이는 정신없이 빨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아이가 잠잠해지자 석일은 부스럭거리며 배낭에서 봉대를 꺼내는것이였다.

진숙은 목이 메여올라 고개를 숙였다.

《한동무, 어서 떠나요. 인가를 찾아보지요.》

서둘러 두 전사는 떠났다. 그들은 온밤 산밭을 타고 북으로 북으로 걸었다.

이튿날 중낮때에야 인가를 찾게 되었다.

집은 세채뿐이였다.

한석일은 대문이 담겨져있는 가운데집으로 아기를 안고 다가갔다.

그 집대문에 청솔가지뭉침이 걸려있었기때문이었다. (예로부터 아이가 푸른 소나무처럼 언제나 푸르싱싱하라는 뜻에서인지 아이가 태어나면 청솔가지를 꺾어다 대문에 걸어놓곤 하는 풍습이 있었던것이다.)

《여기서 기다리오. 내 들어갔다가 나오겠소.》

진숙은 총을 안고 밖에서 주변을 살피었다.

5

큰어머니는 오래도록 말없이 개울쪽을 바라보더니 이야기를 다시 시작했다.

《그때 총을 멘 전사가 아이를 안고 성큼 마당으로 들어서는게 아니였겠니. 나는 깜짝 놀랐지. 그 전사는 나를 놀래운것이 미안한듯 음성을 낮추어 말하더구만. <놀라지 마십시오. 인민군대입니다. 미제놈폭격에 불타는 집에서 이 애를 구원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젖을 먹지 못해서... 이 애를 살려주십시오!》 아이를 안고있는 그의 손가락은 온통 붕대를 감았더구만. 처음엔 부상당한것으로 알았지. 아이를 받아안아보니 입술이 파랗게 질려있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더군. 그런데도 젖을 물리니 오물오물하면서 빠는것이 아니겠나. <아기가 살겠수다.> 하고 내가 말하자 그 전사는 기쁨에 젖어 문밖에 대고 《진숙동무, 아이가 살아났소!》 하고 소리치더구만. 나는 그때에야 밖에 녀자군대가 있다는것을 알게 됐지.

젖을 배불리 먹은 아이는 인차 잠이 들더구만.

그때 아이를 안고 온 전사가 하는 말이 <아주머니, 이 애를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좀 맡아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놈들을 물리치고 나옵니다.> 내가 머리를 끄덕이니 두 전사는 눈물이 글썽해서 거뿔거뿔 고맙다고 인사를 하더구만.

그들이 떠나려 할 때였네. 밖에서 갑자기 개들이 짖어대며 어지러운 발자국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오는게 아니겠나.

나는 깜짝 놀라 어쩔줄 몰라하는데 그 전사가 밖을 살피더니 <진숙동무, 놈들이요. 몇놈 안되오. 자동총을 이리주요.> 하고 문가로 달려나가더구만.

녀전사는 <석일동무!> 하고 부르며 따라나서지 않겠나. 그러자 그 전사는 막아서면서 이렇게 웨치듯 말하더구만. <아이가 있지 않소. 놈들은 내가 맡겠소. 아이를 돌보오!> 하고는 바람처럼 뛰어나갔지. 쿵쿵한 한 총소리가 한동안 울리다가 똑-그치더군.

나는 아이를 안은채 밖으로 나갔지. 대추나무

아래와 난가리옆에 적들이 죽어 너부러져있더구만.

한참만에야 저 둔덕의 큰 대추나무아래 있는 녀전사를 띠어보고 달려갔다네.》

큰어머니는 줄지어 서있는 대추나무쪽을 가리켰다. 정말 유묘하게 큰 대추나무 한그루가 맨 오른쪽에 그날의 증견자인양 서있었다.

《달려가보니 총탄에 맞고 피투성이가 된 전사를 안고 처녀군대가 애타게 부르더군. <석일동무, 석일동무!...> 녀전사의 애타는 부름에 그는 겨우 눈을 뜨더구만. 그리고는 눈으로 분명 아이를 찾은 눈치였지. 내가 아이를 그앞에 내밀자 아이는 그때도 그냥 자고있었네.

힘없는 손으로 아기의 손을 잡더니 그는 말하더구만. <진숙동무, 이애 생일도 모르니 우리가 구원한 날로... 합시다. 이름은... 남진이라구 하고... 아, 내가... 내가... 이 애의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했는데...이 애가 크면 고마운 조국을... 지켜 총을 잡게 해...주요.》 하고는 자기가 잡았던 아기의 손을 겨우 들어서 자기 가슴에 안고있던 총우에 놓아주더구만.

그리고는 맥이 진한듯 고개를 떨구더구만.

그때 녀전사가 애타게 이름을 부르며 흔들었으나 종시 깨어나지 못했지. 그때 그 녀전사는 슬프게 울고 또 울었지. 나도 눈물을 많이 흘렸네.

<한석일동무. 믿으세요. 내 동무를 대신해서 이애의 어머니가 되겠어요! 그리고 동무의 부탁대로 하겠어요. 믿으세요. 믿어주세요!> 녀전사는 그를 붙안고 진정을 바쳐 약속했지.》

잠시 생각에 잠겼던 큰어머니는 말을 이었다.

《그 녀전사가 바로 자네 어머니네. 희생된 전우앞에 다진 약속을 한생 깨끗이 지켰다네. 정말 쉽지 않은 사람이지.》

큰어머니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졌다. 한석일아버지는 나에게 생을 이어주고 이름을 지어주었으며 총과 첫 인연을 맺어주었다.

녀전사 또한 나의 친어머니가 되어 한생을 바쳤다.

내가 병사생활을 할 때 한달이 멀다하게 자상스레 써보내던 편지, 내가 군관이 되자 정든 도시를 훌쩍 떠나 산골군인사택마을에 와서 전사들 식탁에 찬 한가지라도 더 놓아주고싶어 아글타글 애쓰던 어머니.

어머니의 온넛은 오직 군복입은 나에게 다 바쳐졌다.

정녕 나의 이 어깨에서 빛나는 별들에는 어머니의 정성이 고스란히 고여있다.

...한석일아버지, 민진숙어머니, 그들은 나의 친부모였다.

《최대의 애국도 수령결사옹위에 있고 최대의 충정도 수령을 위하여 한목숨 바쳐 싸우는데 있다.》

김 정 일

실화문학

보답의 길

김우경

주체92(2003)년 9월 초순 어느날, 어버이수령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기념궁전의 외랑으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수평승강기를 타고 경건히 흘러가고있었다.

해돋이전 숲속의 고요와도 같은 승엄한 정적과 은은한 빛에 휩싸여서인지 옷차림도 나이도 각이했지만 얼굴에는 하나같이 정숙하고도 승엄한 빛이 어려여있었다.

그들모두의 심장은 지금 이름 못할 크나큰 격정과 흥분으로 하여 사뭇 세차게 뛴뛰고있었다. 그들에게서 공통적으로 한눈에 띄우는것은 누구의 가슴에서나 금별메달이 빛나고있는것이였다. 그들은 선군시대전국영웅대회에 참가한 대표들이였다.

그들은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어버이수령님을 뵈게 될 그 시각이 다가올수록 자신들의 축복받은 삶에 대해 돌이켜보고있었다.

내가 과연 어버이수령님앞에 나설만한 일을 하였는가?...

그들속에는 김창하동무가 일하는 단위 본사에서 사장으로 사업하는 리동근도 있었다.

그는 선군시대전국영웅대회가 열리기 바로 며칠전에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고 대회에 참가한 대표였다.

보통기에 다부진 체격, 수북하고 유별나게 술이 많은 눈썹과 우뚝한 코...

그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삶의 진가와 의미, 옛사람들이 말하곤 하던 고생끝에 락이 온다는 식의 피동적인 삶이 아니라 창조와 투쟁으로 위훈을 세우고 어떤 일에서나 불가능을 모르는 영웅적인 삶에 대해, 그 삶의 희열과 아름다움에 대해 새삼스럽게 돌이켜볼수록 기쁨보다도 자책이 더 앞서는 마음을 어찌할수 없었다.

내가 과연 이 영광의 대오에 설만큼 일을 하였는가.

수평승강기에 몸을 싣고가는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생각되였다. 외랑의 밝은 빛발속에 흘러온 자신의 한생이 생생히 밟혀왔다.

그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이 나라의 모든 아이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게 태어났고 평범하게 자라났다.

종달새가 하늘높이 떠서 즐겁게 우짚던 어느 봄날, 어린 동근은 동네아이들과 함께 뒤산에 흐

드러지게 피어난 진달래를 꺾으려고 바위크령으로 기여올랐다.

그가 팔을 뻗쳐 꽃방울이 많이 맺힌 진달래가지를 꺾어들었을 때였다.

《동근아!-》 하고 찾는 처녀애의 목소리가 귀청을 때렸다.

《너희 집에 사람들이 많이 와서 널 찾아.》

동근은 바위크령에서 미끄러져내려와 종주먹을 쥐고 집으로 달려갔다.

(왜 날 찾을까?)

줄곧 이런 의문이 갈마들어 미처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씻을 생각도 못하였다.

아버지친구들이 가끔 찾아온적은 있었으나 그 사람들이 밖에 나가 노는 자기를 찾은적은 여직 한번도 없었다.

사립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낮익은 사람들이 그를 맞아주었다.

웬일인지 그들의 얼굴엔 침울한 빛이 어려있었다. 어머니는 무릎에 얼굴을 묻고 울고있었다.

어떤 불길한 무서운 일이 생긴것이 분명하였다.

《어보. 당신없이 우린 어떻게 살아요?-》

어머니는 실성한 사람처럼 넋두리를 하더니 영문을 모르고 겹기에 질려있는 어린 동근을 와락 끌어안았다.

《동근아, 네 아버지없이 우린 어떻게 산단 말이나?》

그는 너무도 울어서 눈이 툭툭 부은 어머니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기가 무서워 두눈을 꼭 감고 머리를 떨구었다.

어제밤 고기잡으러 나갔던 아버지가 풍랑을 만나 그만 잘못되었던것이다.

그처럼 나를 사랑했고 어머니와 말다툼 한번 한적없던 아버지가 우리모두를 남겨두고 아무말없이 세상을 떠날수 있단 말인가!

어린 동근도 눈앞이 캄캄했다.

정말 아버지없이 우린 어떻게 산단 말인가?

탄부였던 외할아버지도 해방전에 굴이 무너져 숨을 거두었다고, 그래서 아버지를 잃은 외가집은 줄지에 온 식솔이 거지가 되고 고아가 되어 낮이나 밤이나 눈물속에 죽지 못해 살아왔다고, 그러니 너희들은 언제나 아버지의 말을 잘 들어야 한다고 어머니는 늘 입버릇처럼 말하곤 하였

다.

어머니의 그 말을 생각하니 절로 설음이 북받쳐올라 어린 동근은 또다시 작은 가슴을 세차게 들먹이며 피 울었다.

《아버지!-》

다음날 아버지를 마을뒤산에 안장했다.

진달래가 피어나 온산을 더욱 붉게 물들이고 하늘에서 해는 밝게 웃고있었으나 그는 해빛이 밝고 따스하다는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

그날밤 그의 어머니를 위로해주려고 앞집할머니와 옆집녀인이 찾아왔다.

이튿날 새벽에는 마을녀인들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독에 가득 채워주었고 아침에는 수산사업소 당일군들과 아버지와 함께 배를 타던 아저씨들이 찾아와 장작을 패주고 울바자를 고쳐주었다.

이렇게 한달이 가고 두달, 석달이 지났지만 그들을 위해주는 동네사람들의 인정의 생은 마를줄도 줄어들줄도 몰랐다.

수척해진 어머니의 두눈에서는 설음의 눈물이 아니라 고마움과 감동의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의 말처럼 그의 형제들은 등지털린 새들처럼 뽼뽼이 흩어지지도 않았고 밥을 빌어먹는 거리지가 되어 동양도 다니지 않았으며 고아는 더우거나 아니었다.

어머니는 눈굽을 짖으며 자식들에게 《애들아, 이웃들과 동네사람들의 이 신세를 눈에 흠이 들 어간들 어찌 잊겠니? 사람은 신세를 졌으면 언제든 꼭 갚아야 한단다. 그게 사람의 도리이지.》 하고 말해주곤 하였다.

어린 동근은 자기네 집일을 진심으로 돌봐주는 동네사람들이 무척 고마왔다.

고마운 마음이 덧쌓일수록 동근은 고기잡이를 나갔던 배를 마중하러 나온 자기를 대견하게 여기며 도래굽이를 함께 돌아오면서 하던 아버지의 말이 가슴속에 젖어든다.

《이 바다도 저 사람들도 얼마나 좋으냐. 이 행복을 찾아주시고 지켜주시는분은 우리 수령님이시다. 옛날엔 <배군> 이라고 천대받고 칠성관을 지고 다니던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 되지 않았냐. 동근아, 넌 이걸 알아야 한다. 네가 크면 어련히 알겠지마는 우리 수령님을 어버이로 모시고있기에 우리가 주인이 되고 행복을 누리게다. 하기에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 우리 수령님을 먼저 생각하고 수령님을 받드는 일에 모든것을 바쳐야 한다.》

추억의 심연속에서 그는 저도모르게 손바닥을 펴본다. 외랑의 밝은 빛이 별스레 따스하게 느껴져서였다.

바로 이 빛이 아닐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뿌려주시는 밝은 빛이 아버지를 잃은 어린 나를 포근히 감싸안아주었고 마음속 작은 그늘마저 가셔주지 않았던가,

그는 점차 철이 들면서 자기네 가정을 돌봐준 그 고마운 정이 바로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

우리의 조국이며 마를줄 모르는 인정의 바다우에 차넘치던 해빛은 다름아닌 우리 수령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었다.

고마운 조국의 사랑, 우리 수령님의 은혜에 이한몸을 다 바쳐 기어이 보답하리라!

그 길이 바로 자기 가정이 위대한 수령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라는 깨달음속에서 그는 손에 총을 잡고 용약 조국보위초소로 떠났다...

그가 군사복무를 마치고 제대될 때였다.

누구나 그가 어머니가 계시는 그리운 고향으로 가리라고 생각했다. 그렇듯 고향을 사랑하고 자기 가정을 진심으로 도와준 정다운 고향사람들을 그리워하였으며 고향에 대한 자랑을 가슴가득 안고산 그였던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대명령을 받았을 때 부대일군들은 그의 요구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그는 서해안에 있는 고향이 아니라 과학원에 보내줄것을 요구했던것이다.

《과학원분원으로 가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있는 혁명사적보존연구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의 이 결심은 얼마전에 청봉숙영지를 답사하고 돌아왔을 때에 굳어진것이였다.

태고연한 수림속에 자리잡은 청봉숙영지에서 그의 발걸음을 땔수 없게 한것은 나무에 새겨진 불멸의 글발들이였다.

그 구호들중에는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께서 쓰신 구호도 있었다.

천년거목에 새겨진 삼천만인민을 반일항전으로 부르는 불같은 호소.

그 글발들은 전체 조선민족이 영원히 보존하고 빛내어나가야 할 귀중한 재보였다.

그러나 그 글발들은 수십년세월의 풍상에 흐려져있었다.

그것이 리동근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저 귀중한 글발, 혁명선렬들의 심장의 웨침을 천년만년 그대로 보존할수 없단 말인가.

항일선렬들이 찾아준 이 땅에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세워주신 이 사회주의체도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가는 우리가 그 글발들을 먼 후손들에게까지 전하지 못한다면 어찌 위대한 수령님의 자식된 도리를 다 했다고 할수 있단 말인가.

그는 혁명사적지 해설강사를 통하여 그 글발들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는 연구소가 과학원에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연구사업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고있다는것도 알게 되었다.

리동근은 결심했다. 만일 제대되어 군복을 벗는다면 그곳에 가서 자기의 모든 힘과 지혜를 바치리라고 그 길이 바로 일찍 아버지를 잃은 자기와 자기네 가정을 따듯이 돌봐주고 키워준 어버이수령님의 품인 고마운 조국을 위한 떳떳한 보답의 길이라고...

부대의 일군들은 그의 결심을 지지해주었다.

진심은 언제나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법이다.

드디어 그는 자기의 소원대로 혁명사적보존연구소에 배치받았다.

그때 그는 하늘의 별이라도 판것만 같았었다.

그렇다. 그때 그는 기쁨에 넘쳐있었다.

힘든줄을 모르고 일했다. 엿그제 전문학교를 졸업한 애어린 처녀의 심부름도 즐겨하였고 연구사업에 필요한 일이라면 그 무슨 일이건 가리지 않았다.

혁명사적보존연구소에서 일하던 주체83(1994)년 7월, 그는 청천벽력같은 비보에 하늘이 무너지는것과 같은 충격으로 가슴을 쥐어뜯었다.

《아버지없이 우린 어떻게 산단 말이나?》하던 어머니의 그 절통한 부르짖음이 세월의 언덕을 넘어 또다시 그의 가슴속에 파고들었다.

그것은 그대로 이 나라 인민의 망극한 곡성이었고 통분한 심장의 웨침이었다. 위대한 수령님 생존시에 단 한번도 기쁨을 드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은 그의 심장을 창끝처럼 아프게 찔렀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속에서 인생의 참된 삶을 누려온 전사로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해 모든 것을 다바치는것은 너무도 응당한 도리이고 영예이며 영광인것이다.

그는 위대한 장군님의 높은 신임에 의하여 한 기관의 사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그는 첫 시작부터 일판을 통이 크게 벌려나가기로 결심했다.

그는 자군에 자체로 광산을 개발하기로 마음먹었다.

물론 그것은 갓 조직된 분사의 능력으로 보아 쉬운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그곳에 매장되어있는 유용광물을 개발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절실히 필요한 사업이었다.

그는 가능과 불가능을 저울질하며 망설이고있을수 없었다.

그는 즉시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때 그는 오직 하나 우리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위한 일, 우리 장군님께 기쁨드릴수 있는 일- 그것을 그는 그 어떤 가능성이나 타산보다도 은혜를 입은 인간으로서 무조건 해야 하는 지상의 의무로, 순결한 량심이 내린 전투명령으로 여겼었다.

만리를 가려는 사람에게는 천리도 지척인 법이다.

상급당조직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은 그는 곧 현지답사를 떠났다. 나가보니 조건은 생각했던것보다 더 엄혹했다.

광산개발지로 점찍은 그곳은 산세가 매우 험한 미개척지여서 길이란 기껏 산짐승을 추적하여 사냥꾼들이 다니던 오솔길뿐이었고 그것마저 어떤 곳에서는 깎아지른듯 한 벼랑이 앞을 가로막아 몇십리를 에돌지 않으면 안되는 말그대로 처녀지였다.

광산을 개발하자면 먼저 도로를 내고 전기를

끌어와야 했다.

무조건 해야 한다고 결심하고 떠난 그였으나 현지에 나와보니 자연 망설이지 않을수 없었다.

(내가 너무 욕망만 앞세운것이 아닐가?)

현지답사의 첫날밤 인적없는 심산속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는 온밤을 뜬눈으로 지새웠다.

이따금 들려오는 산짐승들의 울음소리에 귀기울이느라니 리동근은 마치 자신이 절해고도에 와 있는듯이 생각되었다.

그는 밤하늘에서 빛나는 령롱한 별들을 올려다보았다.

밤하늘이 저리도 아름다운것은 바로 저 별들이 자기 온몸을 태워 그 빛으로 창공을 장식해주기 때문이 아닌가.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한생을 고스란히 다 바쳐오신 우리 수령님을 위해 그 어떤 난관도 이겨내야 하는것이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된 우리들의 본분이고 의무일진대 이를 위해 자신을 깡그리 불태우는것은 가장 숭고하고 아름다운 삶인것이다.

미구하여 어둠을 가시고 산마루를 노을빛으로 붉게 물들이면서 떠오르는 태양의 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그는 결심했다.

(기어이 자체의 힘으로 광산을 개발해야 한다!

그래야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적으나마 기여할수 있다!)

그 아침해빛은 유난히도 밝고 따사로웠다.

깊은 산속에서 맞는 그날의 아침해는 그에게 우리 수령님처럼, 우리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처럼 안겨왔다.

마치 그가 이 심산속에서 방황하고있음을 아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는듯, 빛을 주시는듯...

마침내 광산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겹겹으로 닥쳐오는 난관은 상상을 초월하였다.

걸음걸음이 엄혹한 자연과의 치열한 싸움이었고 자신과의 타협없는 투쟁이었다.

리동근은 말을 많이 하지 않았다. 그는 연설을 좋아하는 성미가 아니었다.

그는 다만 돌격로를 열어나가는 어렵고 힘든 일의 맨앞장에 언제나 자신을 세우려고 애썼고 자신을 채찍질했다.

그 나날 부족되는 자재를 해결하기 위해 수십리 밤길을 걸은적은 그 얼마였고 폭우가 쏟아져 내려 불어난 산골짜기의 내물을 무거운 배낭을 멘 채로 건너간적은 또 몇번이었던가.

그러나 세찬 격류에 떠내려오는 돌에 무릎을 상했을 때도 기진하여 땅우에 쓰러졌을 때도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것은 신음소리가 아니라 항일혁명투사들이 눈보라를 헤치며 부르던 《적기가》였다.

그는 어디에 있건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를 지켜보신다는 생각을 한시도 잊은적이 없었다.

노력과 헌신은 드디어 은을 냈다.

광산은 개발을 시작한지 1년도 채 못되는 사이에 자기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고 마침내는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되었다.

그때 그는 무한한 긍지로 가슴을 들먹였다.

(기어이 해냈구나.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고 이 날을 맞이했구나.)

허나 그것은 난관과 시련의 시작이었을뿐이었다. 조업을 시작하여 얼마되지 않던 그해 여름에 갑자기 들이닥친 대홍수로 하여 광산은 순식간에 말그대로 폐허로 되어버렸다.

자연은 너무도 무정했고 횡포했다.

그들이 한대한대 이를 악물고 심산속에 세워놓은 전선대들은 모조리 넘어졌고 한치한치 이어나간 전기줄들은 끊어졌다.

어떤 곳에서는 허리가 부러져나간 전선대토막들이 뚱뚱 허공중에 매달려있기도 했다.

갱입구마다에는 폭포처럼 쏟아져내린 홍수로 집채만 한 바위돌들과 뿌리채 뽑힌 나무들, 감탕이 혼합된채로 밀려와 수라장을 이루고있었다.

문제는 살풍경한 지상보다도 침수된 갱이었다.

시시각각으로 물이 차오르고있었다.

봉락된 그 갱안에는 귀중한 채굴설비들이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너무도 허망창한 참경을 목격하는 리동근의 술진 눈썹밑으로는 그답지 않게 주먹같은 눈물이 떨어져내렸다.

한마디로 사태는 너무도 파국적이고 극도로 절망적이었던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인가.)

몇번이나 안타까이 자기의 마음속을 두드려보았으나 좀처럼 방도가 생길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자기의 얼굴을 지켜보는 종업원들의 눈을 피해 사무실로 돌아왔다.

앉으나서나 허무한 생각뿐, 어떻게 되어 내가 이 막바지에까지 떨어지게 되었던가 하는 생각뿐이었다.

그는 애써 현실을 잊고싶었다.

아무 근심걱정 모르고 자라던 어린 시절이 문득 떠올랐다.

진달래 붉게 피던 고향의 뒤산 그리고 그 산에 있는 아버지의 묘가 보여왔다.

그러자 그는 고향마을사람들이 떠올랐고 자기를 키워준 조국의 은덕이, 아버지가 곱씹어 말하던 우리 수령님의 자애로운 사랑이 다시금 돌이켜졌다.

그렇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그토록 마음쓰시는 우리 수령님의 유훈관철에 조금이나마 이바지하겠다는 그 한마음으로 우리는 여기로 달려왔고 마침내 이 광산개발을 시작한것이 아니었던가.

이 성스러운 사업에 자신의 모든것을 서슴없이 바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나로서 너무도 응당한 도리이며 아버지없는 우리 가정을 진심으로 도와주고 이끌어

준 고향사람들에 대한 의리이고 보답인것이다. 온 나라 인민이 바치고바치는 그 순결한 지성에 자신의 성의를 더하는것이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을 받으며 살아온 우리들의 응당한 도리가 아닌가.

우리 수령님의 유훈관철과 장군님의 기쁨-그것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현실로 전환시킨 최대의 원동력이였다.

그 어떤 명에나 보수를 생각지 않고 오로지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관철을 바라는 인간이라면 절대로 중요하거나 쓰러지지 않는 법이다.

일어서자. 일어나 용기백배 나아가자!

오늘의 시기에는 지난날처럼 가능성에서 기적을 창조할것이 아니라 불가능에서도 기적을 창조해야 한다.

물길굴을 다 뚫을 때까지는 조국의 푸른 하늘을 보지 말자고 한 안변청년발전소 군인건설자들이 지닌 결사관철의 정신이 있다면 이 난관에서 못일어날 까닭이 있으랴!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라 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의 참뜻을 심장에 되새기는 그의 마음은 자책감으로 하여 더욱 무거웠다.

다시 일어나자. 시작이 절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것이 아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전환시켜준것은 그 어떤 객관적인 조건에 대한 타산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와 용기였다.

강의한 의지가 있고 용기만 높다면 반드시 길은 열리고 타산은 절로 서는 법이다.

(하지만?...)

또다른 근심이 솟구쳐오르는 그의 의기를 내리눌렀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 하나의 생각이나 욕망이 아닐가?)

광산종업원들이 걱정되었다.

이 외진 산속에 와서 너무도 지치고 피로한 그들이기때문이었다.

하지만 행복구는 분초를 다투는 일이었다.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과연 이 난관을 이겨낼수 있을까?)

이때 문기척소리가 나더니 누군가가 들어섰다.

《사장동무. 이거 사무실이 완전한 <공해>입니다.》

종업원들앞에서는 우스개소리를 곧잘해도 그앞에서는 언제한번 톡말을 해본적이 없던 당비서 장영철의 말이었다.

리동근은 그때에야 채털이에 담배꽂초가 수북이 쌓여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창문부터 활짝 열어놓았다.

《비서동무!》

서로 그들의 눈길이 마주쳤다.

장영철이 그의 손을 잡아 일으켜세웠다.

《나 갑시다. 사장동무를 종업원들이 기다립니

다.》

밖으로 나온 리동근은 문앞에 모여있는 종업원들을 보고 놀랐다.

《사장동무, 어서 작업지시를 주시우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끝까지 관찰하자고 이 외진 심산에 광산을 꾸릴 결심을 한 사장동무를 언제나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있습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받들겠다는 그 결심이 없어야 어떻게 이 험지에서 일할 생각을 다 하겠나말이우다.》

나이많은 아바이의 말이였다.

《사장동지, 저도 갱복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는 결혼식에 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도 작업지시를 주십시오. 》

갓 들어온 제대군인총각이 말했다.

종업원들은 모두 그를 지켜보고있었다.

아니, 그의 심장에서 내리는 《명령》을 듣고있었다.

《고맙소, 동무들. 정말 고맙소!》

그는 코마루가 쟁해났다.

그의 술진 눈섭밑에서는 눈물이, 불덩어리가 떨어져내리고있었다.

아, 얼마나 미더운 혁명동지들인가!

순간이나마 그들을 믿지 못했던 자신이 끝없이 저주스러웠다.

《비서동무, 정말 고맙소.》

기업소가 처음 조직될 때부터 서로 도와주고 의지하며 위대한 장군님을 받드는 길에서 한생을 변함없이 살자고 약속하고나선 장영철의 손을 그는 꼭 잡았다.

당비서의 믿음어린 눈길을 온몸으로 느끼며 힘차게 갱으로 걸음을 옮기는 리동근의 심장은 어느때없이 세차게 고동쳤다.

갱을 복구하는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그는 현장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고 전투를 지휘했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끝내 의식을 잃고 현장에서 쓰러졌다.

장영철이 달려오고 노동자들이 그를 에워싸고 목이 쉬도록 찾고 찾았으나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그가 의식을 차린것은 퍼그나 시간이 흐른뒤 함숙 침대우에서였다.

《좀 어떻습니까.》

장영철의 물음에 리동근은 《내가 왜 여기에 와 누워있습니까?》하고 되물었다.

하더니 침대에서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듯이 현장으로 나갔다.

여러사람이 앞을 막아섰으나 그는 발길을 돌리지 않았다.

《나는 이 광산을 다시 복구하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소. 나에게는 그럴 권리가 없단 말이요.》

그의 이 말은 노동자들의 심장에 불을 달아주었다.

침식을 잊고 일을 걸싸게 해대는 그들은 말그대로 불덩어리들이였다.

그는 종업원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였다.

《사람이 그 누구에게 신세를 지고 그것을 갚지 못하고 죽으면 죄로 되는거요. 하물며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덕을 받아안은 내가 조금도 보답하지 못하고 죽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데 있겠소.》

마침내 그들은 것처럼 불가능하게 생각되던 광산복구를 두달남짓한 기간에 완전히 끝내고 다시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되었다.

리동근은 외랑을 지나 궁전홀에 들어섰다.

밝아오는 아침노을처럼 찬란한 빛발속에 계시는 아버지수령님의 자애로운 모습.

순간 그는 심장이 툭 멎는듯 했다.

《아버이수령님!-》

목놓아 부르고싶었으나 웬일인지 목이 꺾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수령님의 립상앞으로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나갔다.

《아버이수령님!

자나깨나 사무치게 그리웠습니다.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하루에도 그 몇번 마음은 금수산기념궁전으로 달리였으나 아버지수령님을 뵈뵈이 뵈울수 있게 일을 하지 못해 선뜻 발길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수령님의 사랑에 만분의 하나도 보답하지 못한 저에게 오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과분하게도 공화국국민의 최고영예인 로력영웅 칭호를 안겨주시고 대회에 대표로까지 불러주시였으니 제가 받아안은 장군님의 이 은혜를 아버지수령님께 아뢰이고싶어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나날이 더해만지는 아버지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할수 있겠습니까.

제 한생 보답의 길에 생의 마지막순간까지 서있겠습니다.》

아버이수령님을 그리며 그이의 유훈을 심장으로 받들어가는 이 나라 수천만 사람들중의 한사람인 그는 깊이 머리를 숙여 인사를 드리였다.

보답은 인간의 가장 초보적인 도리이며 근본적인 품성이다.

진심을 바쳐 걷는 보답의 길은 전사의 참된 삶의 길이며 위훈의 길, 영광의 길이다.

당과 수령께 충직한 위훈의 징표인 금별메달이 앞가슴에서 빛나는 그를 우리 수령님께서는 이미 알고계신듯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계시였다.

7월의 웨침

배경휘

7월이다.

지금으로부터 52년전 우리는 위대한 조국해방 전쟁승리를 맞이했다.

전승의 날을 맞으며 거리에 나서니 활기면 사람들의 모습들이 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가벼운 바람에 설레이는 나무잎새소리도 조국을 위해 귀중한 생을 바친 인민군전사들의 숨결처럼 나의 가슴을 울려준다.

그렇다. 전쟁의 승리는 결코 저절로 오지 않았다. 이땅의 훌륭한 아들딸들, 수많은 유명무명의 영웅전사들의 위훈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어제 나는 나의 옛 사단장을 찾아갔었다. 때마침 그의 집에는 가렬한 전화의 날 불타는 락동강을 함께 건넌던 옛 전우들이 와있었다.

그들은 숨얼한 얼굴로 전축에서 울려나오는 노래에 귀를 기울이고있었다.

지금은 보기도문 전축이었다.

가렬한 전투의 저기 저 언덕

피흘린 동지를 잊지 말아라

노래를 듣노라니 불타던 땅, 화염이 타래치는 언덕으로 공화국기발을 추켜들고 돌격해가던 인민군전사들의 모습이 눈앞에 어려왔다.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겨있는데 옛 사단장은 이야기했다.

《참, 문경고개전투가 힘겨웠지...》

그는 그때의 가렬했던 전투장이 눈앞에 펼쳐진 듯 눈길을 멀리에 두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

주체39(1950)년 여름, 전선동부에서 기세좋게 남진하던 인민군대가 문경고개밑에서 전진을 멈추었다. 험준한 천연요새에 의거한 적들의 강력한 방어에 부딪혔던것이다.

하루에도 몇차례의 공격을 들이댔다. 말그대로 전투로 날이 밝고 전투로 날이 저물었다.

인민군용사들은 원쑤에 대한 불타는 적개심을 안고 자기의 한목숨도 서슴지 않고 용감히 싸웠다.

그러던 어느날, 피어린 전투로 하루해가 저물어가던무렵 뜻하지 않은 소식이 전사들에게 전해

졌다. 귀전을 스치는 아츠러운 파편소리에도, 하늘땅을 뒤집는듯 한 폭음에도, 하루에도 몇십번 맞고 보내는 죽음앞에서도 끄떡하지 않던 그들이였지만 이 소식에 접하고는 모두 놀람과 불안, 커다란 자책에 잠기었다.

그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장군님께서 최전연인 수안보에 나오셨다는 소식이였다.

적들과 총구를 마주 댄 수안보, 그 최전연에 경애하는 **김일성**장군님께서 나오시다니...

언제나 평양하늘을 바라보며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바라던 전사들에게 이 소식은 너무도 뜻밖이였다.

그들은 몰랐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떤 비범한 전략전술적구상을 안고 전선에 나오셨는지 몰랐다.

허나 오직 한가지,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에 자기들의 희망과 행복, 조국의 미래가 있다는것, 하기에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목숨을 바쳐서라도 지켜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인민군전사들은 전선에서의 한순간의 지체가 어떤 커다란 대가를 치러야 하는가를 깨달았다.

중대, 대대들에서 공개당총회들이 열리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드리는 맹세문이 채택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안녕을 위하여, 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우리 조국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우리는 돌격전으로 나아갑니다.

경애하는 **김일성**장군 만세! 조선로동당 만세!》

모두들 일어나 구호를 웨쳤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한목숨 바칠 각오가 담긴 구호들이였다.

충성으로 불타는 맹세를 안고 습격조들이 떠나갔다. 런대군악대도 나팔대신 보충을 들고 결사전에 나섰다.

수천년세월 원시림이 우거졌던 문경고개가 며칠사이에 포화에 불타고 폭탄에 뒤집혀져 번번한 바위산으로 변했다.

부서진 바위를 팜과 피로 적시며 한치한치 인민군전사들은 고지대로 치달아올랐다.

《돌격앞으로!》

돌격선에서 쓰러진 전우들은 마지막숨을 몰아

가며 간절히 부탁했다. 반드시 고지를 점령하고 우리의 운명이신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시는 최전연에 나오시지 않게 해달라고.

산악같이 일떠선 인민군전사들의 돌격앞에 적들은 났을 잃고말았다.

드디어 고지에는 람홍색공화국기가 날리었다.

세월이 흘러 어느덧 전승의 축포가 오르던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났다.

세대가 바뀌어 내가 제대된지도 근 20년, 이제는 나의 아들들이 초소에 서있다.

옛 사단장의 아들들도 모두 인민군대의 지휘관들로 자랐다. 맏아들은 안변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영웅이 되었고 둘째아들은 어느 한 땅크부대 지휘관으로 자라났다. 그들도 아마 이 전승의 날 초소들에서 아버지와 그 전우들이 목숨도 서슴없이 바쳐 싸운 위훈에 대하여 생각하고있을것이다.

옛 사단장이 일어섰다. 그는 전축의 소리판을 바꾸었다. 은근하고 부드러운 선율에 이어 노래 《그때처럼 우리가 살고있는가》가 울려 퍼졌다.

노래를 들으며 모두들 깊은 생각에 잠기었다.

고요한 밤하늘에서 변함없이 반짝이는 별들, 그 무수한 별들을 바라보며 못잇을 전우들의 당부를 되새겨보았다.

과연 우리가 그때처럼 살고있는가.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돌격앞으로!》의 힘찬 구호를 웨치며 고지에도 치달아오르던 그 날처럼...

그렇다.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돌격앞으로!》이 구호를 부르며 1950년대에 싸워 승리한 것처럼 오늘도 이 수령결사옹위의 구호를 부르며 우리는 승리해갈것이다.

승리의 7월은 영원히 우리에게 되새겨줄것이다.

옛 화약창고앞에서

곽명철

이름은 화약창고였어도
그날엔 화약이 아닌
102어린이들이 간혀 있었다

상상이나 했으랴
아직은 엄마의 따뜻한 품에서
어느 한시도 떨어져본적 없는 아이들
한점 온기도 없는
차디찬 창고안에
짐작처럼 던져져 울게 될줄을

그 102아이들속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음을 아는 아이가
과연 몇이나 되었거나
전쟁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는 철부지 어린것들이
오, 양키들의 적이 되었다

벽을 조심히 쓸어만지면
지금도 이 손에 묻어날듯싶구나

배고파 울고
엄마를 찾아 목이 쉬도록 울고울며
손톱이 닳도록 창고벽을 허벼
줄줄이 흐르던 아이들의 그 붉은 피가

아, 정녕 미제가 아니었다면
이 화약창고와 인연이 없었을 아이들
대를 두고 복수해야 할
철천지 그 원썬들로 하여
102아이들의 숨결이
오늘도 화약창고에서 들려온다

오, 어찌
이 화약창고가 비였다고 말하라
주먹을 부르짖고 다가서는
나의 눈엔 보여오누나
오늘도 증오의 눈빛 번뜩이며
찾아오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복수의 화약을 다져주고있는
102아이들의 불같은 그 모습

탄광마을 풍경

리정수

탄광마을의 아침이다. 동컨하늘가에 해가 솟아 올라 밝은 해살을 뿌리며 새날을 축하한다.

밤새 지하막장에서 탄부들과 함께 땀을 흠뻑 흘린 즐거움을 안고 맞는 새날의 아침은 류다른 정서를 안겨준다.

탄광마을을 옆에 끼고 흐르는 시내물가에서도, 멀리 바라보이는 산기슭에서도 대지의 부드러운 입김인양 흰 김이 피어오른다. 우리 나라 그 어디 가나 흔히 볼수 있는 아침풍경이다.

그 흰 김을 헤치며 탄부들이 출근길에 오른다.

새로운 혁신을 약속하는 출근길이다.

소년단기를 앞세운 탄광마을학생들의 대렬이 거리 한복판에 나타났다.

학생들은 노래를 부르며 손에 든 꽃다발을 열광적으로 흔든다. 집집에서 뛰어나온 조무래기들이 좋아라 대렬을 따라선다.

길옆에 주련이 늘어선 집집마다 열려진 문가에 탄광마을녀인들의 모습이 보인다. 모두 머리수건에 앞치마를 둘렀다.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어우러져 끈김이 서리는 문가에서 녀인들은 하나같이 자기 아이들을 찾느라 목을 빼여든다.

《에그, 아예 막장안으로 들어간 아버지들을 신이 나게 했으면 좋을텐데.》

《그러다 막장이 터져나가겠어요.》

《석탄이 터지면 터지겠지 막장이야 왜 터지겠나.》

《원 사람들두, 온 탄광마을이 끓고있는데 이렇게 구경만 하겠나? 자, 빨리 하던 음식차비나 하자구.》

《알았어요. 할머니.》

여기를 찾을 때마다 의례히 보게 되는 정경이다.

부엌으로 들어가려던 할머니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가창대렬이 지나간 길건너 마을쪽을 기웃이 건너다본다. 키가 크고 몸이 좋은 중년의 사나이가 마을녀인들속에 끼워 손세를 써가며 무슨 설명을 하느라 고개를 주억거리고있다. 출근길에 붙잡혔는지 아니면 우정 찾아들었는지 알수 없으나 몹시 바빠하는 거동이다.

《여보게 부지배인, 술한 녀인들속에 싸여 뭘하나?》

한 녀인이 할머니의 말을 받아 썩 나선다.

《말두 말라요. 월계획을 마감하는데 우리들이 경안에 들어가면 탄 캐는데 지장이 된다나요. 그

래가지구서야 무슨 음식경기겠어요. 이런 일이야 매달 벌어지는 일인데...》

부지배인이 그 녀인을 밀어내며 이쪽에 대고 하소연을 한다.

《할머니, 탄광마을의 좌상어른이 잘 조치해주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끓으면 우리 후방부의 체면이 뭐가 됩니까. 우리도 다 준비하고있습니다. 그리고 음식경기는 또 됩니까? 우린 그런 경기를 조직한 일도 없습니다.》

《이보라구, 이젠 어쩔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야, 음식경기도 우리가 스스로 하네. 풍족치는 못하지만 한삽의 탄이라도 더 캐려고 막장을 떠나지 않는 남정들에게 보내는 우리 가족들의 지성이야. 우리 생활을 넘려해서 부지배인이 그런다는걸 우린 아네. 하지만 끓어야 하네. 안해가 불을 지피고 풍구질을 해야 남편이 끓고 남편이 끓어야 탄광이 끓고 탄광이 끓어야 온 나라가 끓을게 아닌가.》

부지배인은 미처 대답을 찾지 못하고 머리를 기웃한채 서있다.

문고리를 잡았던 할머니가 고개를 돌리며 소리친다.

《심판걱정은 말게. 이 경기야말로 공정한걸세. 음식그릇엔 이름이 없네. 탄부들이 밑바닥을 깨 깨 비운 그릇의 입자가 우승자일세.》

그리고는 제 흉에 겨워 어깨를 들썩이며 문안으로 사라졌다.

녀인들도 찬성이라는듯 좋아라 떠든다.

《에, 내 공연히 끼여들었다가 경을 치는군.》

부지배인이 긴 팔을 휘저으며 황황히 걸어갔다.

《안녕히 가세요, 부지배인동지. 그리고 남편들과 우리들은 언제나 한마음이라는걸 알아두세요. 우리도 인차 따라들어가요.》

등을 밀어주듯 짜랑짜랑 울리는 녀인들의 목소리...

얼마나 좋은 아침인가.

나는 들끓는 큰길에서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흘러가는 광경을 깊은 감명속에 바라본다.

녀인들은 모두 자기들의 집으로 사라졌다. 거리도 삽시에 조용해졌다. 그러나 집집에선 김을 내뿜는 가마와 함께 막장의 남편들에게로 달리는 녀인들의 마음도 끓고있을것이다. 그 녀인들의 마음을 남편들은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심장으로

느낄것이며 그것은 온 막장을 도가니로 끊게 할 것이다.

나는 남편들과 한마음한뜻이 되어 한생을 보내는 탄광마을녀인들의 아름다운 마음과 사심없는 헌신에 대하여 생각한다. 탄부들의 머리우에서 빛나는 안전등으로부터 작업복과 내의. 신발에 이르기까지에는 탄광마을녀인들의 그 부드럽고 다심한 손길, 정성스러운 마음이 배여있을것이다.

석탄전선이라는 전호속에 남편들과 나란히 선 탄광마을녀인들의 마음은 언제나 저탄장에 높이 쌓아지는 석탄산에 가있었다. 쉬임없이 흘러나오는 석탄폭포-그것은 경애하는 장군님을 받드는 그들의 충성심의 높이였다.

하기에 누가 시키지 않았어도 그들은 험한 산을 뚫아 동발목을 베어내려 막장에 보내주었다. 아침마다 남편들의 손에 들려주는 밥판에 찬 한 가지라도 더 담으려 마음을 쓰고 곤히 잠든 남편을 깨울세라 청얼거리는 아기를 업고 뜨락에 나와 남편도 아기도 함께 잠들라 조용히 자장가를 부르는 탄부의 안해들. 그들은 푸른 하늘과 멀어지는 수천척 지하막장에 언제나 자기들의 마음을 남편들과 함께 따라세우고있었다.

새해공동사설을 높이 반들고 석탄생산을 늘여 강성대국건설의 대고조의 앞장에서 힘차게 달려 나가고있는 남편들과 한마음되어 사는 녀인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드는 그 길에 탄부인 남편들과 함께 나란히 서있는 그들이였다. 이름모를 할머니의 목소리가 귀전에 공명을 일으키며 울린다.

《탄광이 끊어야 온 나라가 끊을게 아닌가.》

다른 설명이 필요없다. 녀인들의 작은 가슴은 온 나라를 안고있었다. 그들은 벌써 여기 탄전에서 기세차게 돌아가는 발전기의 동음과 질풍같이 내닫는 전기기관차의 구울음소리를 듣고있으며 쏟아지는 쇠물폭포와 세멘트, 비료폭포, 불밝은 수도의 거리에서부터 북방의 산간마을과 바다가 마을 집집들의 창가를 보고있다. 그것은 강성대국으로 치솟은 사랑하는 조국이였다.

그 마음도 합쳐 한밤에도 우리 탄부들은 많은 석탄을 조국땅우에 퍼올렸다.

나는 폭포되어 쏟아지는 석탄을 쥐여본다.

억대우같은 사나이들이 수천척 지하막장에서 쉬임없이 퍼올리는 석탄은 그들을 감싸주는 녀인들의 손길처럼 부드럽기 그지없다.

기다린 마음

리수원

오실 날만 손꼽아 기다렸더니
한해가 저무는 이날에
아버이장군님 소문없이
어랑천발전소 건설장에 또 오셨어라

첫 자욱을 찍으신 그날은
삼복의 무더운 날씨라고
어랑천이 흐느끼듯 흐르며 전하였는데
오늘은 설달 엄한의 날씨라고
팔향산 흰눈이 속삭이는가

언제에 환한 미소를 보내시며
대단하다고, 한해사이에 큰일을 했다고
그리도 기뻐하시니
머리 흰 일군도 애젊은 건설자도
태양같이 빛나는 그 영상 우러르며
감격으로 가슴 들먹였더라

기초를 파던 그날에도
다 쌓지 못한 언제를 보시는 오늘에도
그리도 만족해하시는 우리 장군님!
그 기쁨과 만족이
우리의 사생결단의 힘이였더라

우리의 승리의 붉은기였더라

준공의 테프를 끊으려 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맞이한듯
그이의 빛나는 영상 우러르니
언제의 물결우에 꽃보라 날리고
그이의 우렁우렁한 말썽속에
발전기의 세찬 동음이
금시라도 우리 가슴 흔들며 울려갈듯

오신 먼길의 피로는 생각지도 않고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
세월을 주름잡으며
또다시 비약의 나래를 펼쳐주실
위대한 손길을 기다렸어라

아, 그 손길따라
장군님 찍으시는 그 자욱우에
기다리고 기다린 우리의 마음속에
언제가 솟고
발전기의 동음이 울리누나
조국의 만년재보가 일떠서누나

병사들의 자각

장기성

힘준한 최전연고지들과 파도사나운 바다가, 이 나라의 수많은 초소들을 총대로 굳건히 지켜가고 있는 병사들을 두고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다.

엄혹한 추위와 찌는듯 한 무더위, 폭설과 폭우 가림없이 언 땅에, 습지에 배를 붙이고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가는 우리 군인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자각이 깃들어있는것인가.

나는 1960년대 병사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지도도를 거둬 받는 영광을 지닌 우리 부대 병사들은 아버지수령님의 안녕은 조선혁명의 운명이고 자신의 운명임을 심장깊이 자각하고 순간의 해이도 없이 초소를 철웅성같이 지키고 훈련을 실전으로 간주하며 일당백의 장수힘을 키워왔다.

그 나날들을 나는 자신의 경력에서 가장 빛나는 구간으로 자부한다.

하여 나는 아들과 딸이 자라 군대입대를 희망할 때 아버지가 썼던 그 영광의 초소에 그들도 섰으면 하고 마음속으로 은근히 바랐었다.

하지만 소원대로만 되는 일이 아니어서 아들은 최전연의 한 부대로, 딸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북방의 한 구분대로 떠나갔다.

군사복무를 성실하게 잘하거라. 초소를 책임적으로 지키거라, 어디나 다 더없이 중요한 조국의 초소이다.··· 이렇게 나는 선대병사다운 당부와 조언을 편지마다 써보내곤 했다.

그들이 성장하여 이제는 둘 다 군관이 되었다.

편지로 보낸 사진속의 군관복차림의 미덥고 립름한 모습을 보고 또 보며 나는 커다란 기쁨과 긍지를 느끼곤 한다.

아들이 군대에 입대하여 집을 떠날 때의 일이 절로 떠오른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혁명령도의 거룩한 자욱을 새겨나가시던 《고난의 행군》 시기 자기가 서야 할 자리는 인민군대라고, 군대에서도 최전연구분대라고 큰소리치며 떠나간 아들이었다. 아직은 응석기를 채 털어버리지 못한 자식을 군대로 떠나보내자니 걱정되는바가 없지 않았지만 아들자신의 각오가 높고 긍지 또한 당당하니 어지간히 위안이 되기도 했었다.

나는 딸이 군대로 나가는것은 바래워주지 못하였다. 장기간 출장을 떠나있다 돌아오니 뜻밖에도 딸애는 군대로 나가고 집에는 안해 홀로 남아

있었다.

신병으로 앓아눕기도 하는 어머니를 두고 초소로 떠나기 저어하는 딸애에게 안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땅에 태를 묻고 자란 청년이라면 누구나 다 총을 잡고 초소에 서야 한다, 그것이 이 나라 청년의 응당한 의무이다, 어머니를 곁에서 돌봐주는것이 딸로서 지켜야 할 도리겠지만 가정보다, 어머니보다 먼저 조국을 생각해야 한다, 그러니 어머니걱정은 말고 어서 떠나거라. 이렇게 안해는 딸의 등을 떠밀어 인민군대에 입대시키었다.

더없이 의로운, 성스러운 길로 떠나간 딸이 기특했고 그의 마음을 이해하고 호응해준 안해가 고마왔다.

이렇게 집떠날 때부터 뜻과 각오가 굳었던 딸이기에 군대에 나간지 여덟달만에 부대를 찾으신 아버지장군님 앞에서 전투훈련모습을 보여드려 분에 넘치는 평가를 받고 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촬영까지 하는 영광을 지니였으며 오늘은 중대정치지도원으로 성장한것이다.

나는 아들딸모두가 총을 잡고 복무의 년륜을 새겨나가는것을 자랑으로, 긍지로 생각한다.

예로부터 나라방위는 국사중의 제일국사이고 애국중에 제일애국이라 하지 않았는가. 더우기 오늘의 군사복무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수호의 전초병으로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총대로 받들어나가는 가장 성스러운 애국이고 충성인 것이다. 하여 온 가정이 총을 잡은 군인가정, 아들딸 8남매, 6남매모두를 군대에 내보낸 총대가 정들이 우리 사회의 존경과 사랑을 모으고있는것이 아닌가.

얼마전 나의 아들과 딸이 마치 약속이나 한듯 같은날 저녁에 얼마간의 사이를 두고 집에 들어섰었다.

먼저 들어선것은 딸이었는데 군관학교를 졸업하고 휴가차로 집에 들렀던적이 있어 그와의 상봉은 레사로운것이였다.

얼마후 아들이 나타났을 때 해후의 감격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였다. 아들은 집 떠나서 수년만에 처음 들어서는 걸음인데다 군복입은 오누이의 상봉이 예상밖이었기때문이였다.

환성이 터져오르고 두서없는 질문이 오가고 웃고 떠들고··· 안해는 너무도 반갑고 기뻐 음식준비를 할 생각도 감감 잊고···

대화는 주로 남매간에 진행되었다. 둘 다 다음 날까지 부대에 돌아가야 하여서 회포를 나눌 시간은 그밖밖에 없다고 했다. 수년간이나 쌓인 부모자식들간, 남매간의 회포를 풀기에는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였다.

그래서 안해는 아들과 딸이 자기와 함께 부엌으로 나가 음식을 만들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했다.

그러나 아들의 생각은 달랐다.

《나는 이제 꼭 다녀와야 할데가 있습니다.》

그는 만수대언덕에 올라 어버이수령님의 동상에 인사를 드리고 오겠다는것이였다.

《나 역시 오빠생각과 같아요. 어서 함께 가요.》
딸애의 맞장구였다.

그 말을 들으며 나의 가슴은 뭉클했다.

아.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에게로 닿아있는 군인들의 마음!

나는 창가 화분에 만첩으로 피여있는 붉은 꽃송이들을 꺾어 아들과 딸애의 손에 들려주었다.

《그럼 다녀오거라.》

안해의 말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자정이 넘도록 돌아올줄 몰랐다.

우리 집에서부터 만수대언덕은 옥류교를 건너 왕복 한시간정도면 충분한터였다. 그런데 집을 나간지 세시간이 가까와오도록 나타나지 않는 것이였다.

무슨 일이 생겼을까?

우리 내외가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기에 지칠무

렵해야 그들은 집에 들어섰다.

왜 그렇게 늦었는가 물으니 그들은 만수대언덕을 내려 평양역까지, 거기서 천리마거리를 걸어 보통문까지 그리고 옥류교를 건너 집에까지 수도의 밤거리를 걷고 또 걸으며 경애하는 장군님을 잘 받들라 하신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가슴속에 새기고 또 새겼노라고 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는 당중앙위원회를 사수하는 심정으로 발목이 시도록 걸었다는것이였다.

나의 가슴은 뜨거워났다.

수년만에 어쩌다 잠시 고향집에 들렀건만 안온한 가정적휴식은 안중에 없이 위대한 장군님의 친위병된 자각으로 수도의 중심거리를 걷고 또 걸은 그 마음! 이것이 어찌 우리 아들과 딸의 심장만이라. 이 나라의 수많은 고지들과 바다와 하늘의 수많은 초소를 지켜선 군인들의 한결같은 자각인것이다.

그렇다. 자기가 지켜선 초소마다를 위대한 장군님의 안녕을 지켜선 초소로 간주하고 순간의 안일해이도 없이 총대로 굳건히 지켜가는 이런 미더운 군인들이 있어 우리 조국은 굳건하고 위대한 선군정치가 펼쳐지는 조선은 사회주의성세로 빛을 뿌리고있는것이다.

전군이 친위병된 자각으로 지켜가는 철벽의 초소들!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우리 병사들!

나는 뜨거운 마음으로 아들과 딸을 대견히 여겨보았다....

가사

푸른 책상 작은 결상

정릉순

흘러간 세월은 다시 오지 않아도
푸른 책상 작은 결상 마음속에 찾아오네
별빛같은 눈동자 선생님만 바라보며
내 나라의 말과 글을 거기 앉아 배웠네
아 모교의 푸른 책상 작은 결상
조국을 알게 해준 인생의 첫자리여

성공의 화려한 자리에 앉아도
푸른 책상 작은 결상 그 언제나 못잊네
오늘도 조국앞에 학생으로 앉혀주며

인생의 바른 자세 말없이 가르치네
아 모교의 푸른 책상 작은 결상

조국을 알게 해준 인생의 첫자리여
모교를 사랑하고 선생님을 존경하라
푸른 책상 작은 결상 언제나 속삭이네
선생님만 따르던 깨끗한 마음으로
내 조국을 받들어 한생을 살리라
아 모교의 푸른 책상 작은 결상
조국을 알게 해준 인생의 첫자리여

《일본군국주의자들은 지난날 우리 나라를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해아릴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들씌운 불구대천의 원수이며 오늘도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쳐 날뛰는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김 일 성

수필

소쩍새우는 밤

량성원

깊은 밤, 이제 얼마 안있으면 새벽이 되어오는
깊은 밤중에 어데선가 문득 들려오는 소쩍새의
울음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나는 처음 자기 귀를 의심하였다.
(도시에서 소쩍새소리라니?)

그러나 그것은 분명 소쩍새의 울음소리였다.

어린 시절 고향마을을 뒤동산에서 밤마다 울곤
하던 귀에 익은 그 소쩍새의 울음소리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어젖혔다.

바로 나의 눈앞에서 실실이 무성한 버드나무숲
언저리에서 분명 소쩍새가 목청을 돋구어 울고있
었다.

산림지대가 가까운 교외인데다가 도시룩화가
잘 되어 많은 새가 날아들어 지저귄다지만 소쩍
새가 날아들어 운다는것은 흔치 않은 일이었다.

예로부터 소쩍새란 고적하고 한적한 곳에서만
우는 새로 알려져있다. 그 소리 또한 듣기에도
애절하고 마디마디 피를 토하는듯 하여 옛사람들
은 그 소리를 들을 때면 늘 자기들의 불우한 처
지와 기구한 운명을 두고 생각하는데 습관되어왔
다. 지난날 한 시인은 접동새(소쩍새를 일명 접동
새라고도 한다.)를 《아홉이나 되는 오랍동생》을
남겨놓고 죽은 누나의 원혼이라고 하면서 오랍동
생들을 죽어서도 못잊어, 차마 못잊어 야삼경 남
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겨가며 슬피운
다고 노래하였다.

내가 살던 고향마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다.

지금도 기억에 생생한데 귀옥이라고 이름처럼
아름답게 생긴 한 처녀가 있었다. 이름도 아름답
고 용모도 아름다웠으나 얼굴은 늘 피기가 없고
온갖 시름이 두렵게 깔려있어 그의 정상은 죽어
서 접동새가 된 그 《진두강 가람가(강가라는 뜻)》
의 누나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처녀의 집은 우리가 살던 집 맞은편 양지바른
산기슭에 있었는데 말이 집이지 허청간이나 다름
없었다. 그런데 그 보잘것없는 집에 유일한 《가
보》가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능금나무
한그루였다. 사과보다 좀 작은 그 열매의 맛은

참으로 향기롭고 유별하였다.

귀옥이라는 처녀는 나보다 10년 우였는데 아이
들을 무척 사랑하였다. 우리에게 옛말도 자주 해
주었고 혹시 먹을것이 생기면 치마폭에 싸가지고
나와 나누어주기도 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를 《귀옥누나》라고 부르며 따랐다.

그의 아버지는 종신불구로 일생을 어둡침침한
봉당바닥에 누워있었고 마음씨 곱고 인물고운 귀
옥누나가 어머니와 함께 돌각담을 두치고 피를
심어서 입에 풀칠을 하며 살았다. 그것마저 떨어
지면 산에 가서 송기를 벗겨오고 물구지와 쉼뿌
리를 캐왔으며 봄철에는 햇잎들을 뜯어다 우려먹
곤 했다.

해마다 가을이 되면 《귀옥누나》의 집 능금나
무에는 알찬 열매들이 맺혀 해빛에 빨간빛을 반
짝이였다. 그러나 그 능금열매도 그 집 사람들은
한알 맛보기 어려웠다. 그의 어머니는 그 능금
알들을 짱그리 따서 광주리에 담아가지고는 읍거
리에 있는 장마당에 가져다팔고 소금이나 성냥
같은것을 사와야 했다.

그 집에서 능금나무열매를 따는 날이면 마을의
아이들이 한마당 모여들었다. 장이 서는 날이면
그 집에서는 꼭꼭 그 능금을 따다 팔았는데 누
나와 그 집어머니는 더덕더덕 기운 홀이불을 퍼
놓고 능금알들을 따 모으기 시작했다. 그때면 아
이들이 무슨 신기한 구경거리라도 만난듯 목을
빼들고 넘겨다보곤 하였다. 그러나 그 술한 애들
속에서 누구 하나 능금알을 손에 쥐거나 달라고
조르는 애가 없었다. 그 집에서 그 능금나무가
얼마나 귀중한것인가를 애들도 너무나 잘 알고있
었기때문이다. 마지막에 그 집 누나는 어머니 몰
래 능금 몇알을 치마폭에 감췄다가 제일 작은 아
이들의 손에 하나씩 쥐여주곤 했다.

나도 그때 몇번 누나가 주는 능금알을 집에 가
지고와서 동생들과 쪼개여 먹었는데 그 맛이 왜
그렇게 달던지 지금 생각해도 이상할 정도였다.

그러던 그 능금나무집에 하루아침에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다. 동구밖에서 난데없는 일본

군 군용자동차가 한대 나타나더니 우리에게 능금알을 쥐여주던 그 마음씨 곱고 용모고운 누나를 통나무 끝듯 머리채를 휘감아쥐고 질질 끌어 적재함꼭대기에 올려던졌다. 적재함우에는 귀옥누나또래의 처녀들이 벌써 여러명 타고있었다.

마을사람들이 적재함에 매달려 처녀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하였으나 자동차는 사정없이 발동소리와 함께 동구밖으로 빠져나갔다.

마을의 조무래기들은 너무도 급작스레 벌어지는 일에 영문을 몰라 수수대울바자짚으로 숨을 죽이고 내다보았다.

어차피 날은 저물고 적막한 밤이 마을에 찾아왔다. 참으로 기막히고 절통한 밤이었다. 달빛은 처량하게 삼라만상을 비쳐주고 마을의 사람들은 울분과 설음을 안고 온밤 잠들지 못하고 몸을 뒤채기고있었다. 귀옥이의 원통한 정상을 두고 울고 또 자기들의 운명에 언제 그러한 참변이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에 떨며 울었다.

바로 이날밤 소쩍새가 밤새도록 피맺힌 울음을 터치었다. 동구밖 들메나무에서 앞뒤산 산기슭을 옮겨가며 밤새도록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귀옥누나의 정상을 절규하는듯, 분통한 그 사연을 하늘땅에 하소하는듯 날이 새도록 소쩍새는 목놓아 울었다.

그런데 그러한 절통한 사연을 안고있는 소쩍새가 바로 나의 눈앞에서 울고있다니?

나는 소쩍새소리가 들려오는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아름답고 황홀하였다. 밤은 깊어도 밝은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오고 어데선가는 약동하는 건설장의 동음도 들려온다.

(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철없이 뛰여다니다가 그 누나가 쥐여주는 달콤한 능금알을 짹짹한 코물과 함께 먹으며 좋아하던 나의 머리에도 어느덧 흰서리가 내리었다.

그러나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해도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귀옥누나였다. 그때 그 군용자동차에 실려갔던 누나들이 일본제국주의자들의 악명높은 《녀자정신대》라는데 끌려갔다는것을 펴 후에 철이 들 무렵에야 알았고 그 피이한 이름이 일본 군놈들에게 꽃같은 인생을 짓밟힌 20여만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의 비참한 운명이였다는것도 썩 후에야 알게 되었다. 그때마다 나는 그 사랑스러운 누나를 악착하게 짓밟은 일본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심을 금할수 없었다.

일본군 《위안부》로 갇은 만행을 다 겪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한 할머니가 일제의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 증언장에서 누나가 그 치욕스러운 지옥에서 빠져나오려다가 무참히 살해되었다고 하였을 때 나는 며칠밤을 잠 못들며 이를 갈았었다. 그 울분, 그 증오심은 많은 세월이

흐른 오늘에도 그대로 남아있다. 소쩍새 우는 이 밤 나는 또다시 일제에 대한 치솟는 격분으로 가슴이 끓고있다. 이것이 어찌 나 하나만의 심정이겠는가!

세월이 아무리 흐르고 세상천지가 아무리 변한 다해도 변할수도 아물수도 없는 아픈 상처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남아있다. 망국과 수난의 그 세월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제침략자들의 칼과 총과 채찍에 맞아 비참한 운명을 고하지 않으면 안되었던가! 무고하게 간 불쌍한 사람들의 원한이 구천에 사무쳐있고 아직도 잠들지 못한 령혼들이 산과 들에 방황하고있다. 가엾은 귀옥누나의 령혼도 무주고혼이 되어 이 세상 그 어디에서 헤매이고있는지 그 누가 알랴?...

그런데 바로 이러한 비참한 운명을 우리 인민에게 강요한 일제놈들이 아직도 기가 살아서 날치고있으니 이 아니 통분할 일인가! 이러한 치욕과 수난을 들썩운 지난날의 죄악을 사죄하고 용서를 빌 대신 오히려 철면피하게 그 무슨 《의혹》과 《위협》에 대해 떠들다가 요즘은 《탐치문제》와 듣기에도 피이한 《가짜유골》설까지 조작하여 존엄높은 우리 공화국의 권위를 허물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으니 이런 뻔뻔스럽고 날강도적인 본태가 어데 있단 말인가. 이것이야말로 도적이 매를 드는 파렴치하고 악랄한 행위가 아니란 말인가?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우리 나라 령토의 한 부분인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생억지를 쓰는가 하면 후대들에게 공정하고 옳바른 사관을 인식시켜야 할 력사교과서를 자기들의 침략성과 더러운 과거죄행의 행적을 은폐하기 위해 외국서술하는 놈들이 바로 일본군국주의자들이다. 이런 놈들이 최근에는 또 이른바 《국민감정》이라는것을 빗대면서 《국민대집회》라는것을 벌여놓고 일본인들속에서 대조선적대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무분별하게 날뛰고있다. 천추를 두고 사무친 우리 인민의 반일감정은 어데 두고 가소롭게도 그 무슨 《국민감정》이라니 이보다 더한 언어도단이 어데 있겠는가!

나는 새삼스럽게 끓어오르는 격분을 누를길 없어 방안을 거닐었다.

소쩍새소리는 그치지 않고 계속 울리고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놈들의 천인공노할 만행을 만천하에 고발하는듯 그리고 그놈들과는 끝까지 결산하여 피값을 받아내야 한다는 결사의 의지를 심장속에 다시금 심어주려는듯 끝없이 끝없이 들려오고있었다.

백두령장의 담력으로 기상떨치는 선군조선의 위력은 기필코 놈들에게 천백배의 보복을 안기고 우리 인민의 피맺힌 원한을 풀고야말것이다. 귀옥누나의 원한을 풀고야말것이다!

을파소

고구려 고국천왕은 선왕 신대왕의 둘째 아들이었다.

신대왕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형을 대신하여 왕위에 올랐다. 그것은 고국천왕이 성품이 바르고 도량이 커서 대를 이을 왕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고있었기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즉위한지 몇년후,

고구려는 안팎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였다.

궁중에서는 왕후 우씨의 친족인 중의대부 패자 벼슬을 하는 어비류와 평자벼슬을 하는 좌가려 두사람이 오래동안 동지를 틀고앉아 왕후의 세도를 믿고 국정을 좌지우지하였다. 그 결과 조정에서는 국가정사가 극도로 문란하여 벼슬아치들끼리 무리를 지어 벌리는 싸움질이 그칠 날이 없었으며 탐관오리들은 나라의 곳곳에서 꺼리낌없는 가렴잡세로 란장판을 벌려놓고있었다.

그중에서도 어비류, 좌가려 일족의 행패는 심하였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도 없이 백성들의 가산과 논밭을 임의로 가로채고 한때의 흥에 겨워 남의 집 처자들을 탈취하는 등의 만행을 식은죽먹기로 하였다.

백성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들의 불만과 원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리고 한편 고구려의 국경에서는 적들이 언제나 고구려에 대한 야망을 품고 호시탐탐 침공의 기회를 노리고있었으며 왕의 형은 왕위에 대한련련한 생각으로 그들과 내통하여 공공연하게 적들의 앞잡이로 나서고있었던것이다.

왕은 고구려가 처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나라의 정치가 세도쟁이들의 손에 의하여 좌우되는것을 없애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만일 그러지 않는다면 안으로 백성들의 처지가 어려워지고 밖으로는 적에게 침공의 기회를 주어 만회하기 어려운 사태에 직면하리라는것이 누구에게나 불보듯 명백하였다. 그리하여 왕은 단연 어비류, 좌가려의 무리를 벼슬에서 떼어버리고 그들의 죄를 물어 처형까지 하려고 하였다.

이것을 좌가려가 먼저 눈치를 챘다.

그는 부족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켜 궁중으로 쳐들어왔다.

그러나 반란은 곧 평정이 되었다.

그와 함께 왕은 4부에 명령을 내렸다.

《요즘 우리 나라의 형세가 문란하여 벼슬의 길이 사람의 덕망에 의하여 열려질 대신 오로지 세도를 가진 사람들사이에 연줄을 타고 오락가락한 나머지 그 해독을 입은자가 비단 백성만이 아니라 조정에까지 루가 미쳤으니 이는 오직 나 한사람의 잘못으로 아노라.》

그리고 이제부터는 4부의 부족들이 국정을 맡아볼 사람을 스스로 천거할 길을 열었다. 그뿐아니라 특히 그런 신망이 두터운 인재가 있다면 그의 가별이나 지체를 묻지 않는다는것이다.

백성들속에서 환성이 울랐다.

그리하여 4부사람들은 서로 론의를 한 나머지 왕에게 동부의 안류라는 사람을 추천하였다.

안류는 그때까지 조정에서는 그리 알려지지 않았으나 백성들속에서는 물론 4부사람들속에서도 가장 신망이 높은 사람이였다.

왕은 곧 안류를 불러 말하였다.

《내 이번에 각 부 백성들을 통하여 국정을 맡길만 한 사람을 걱정하니 그들은 한결같이 그대를 천거하였소. 그대도 아다싶이 자고로 백성들의 마음은 곧 하늘의 마음이라 하였은즉 백성들이 그대를 나에게 천거한것이 어찌 우연한 일이라 할것이요. 그러니 이제부터 나를 도와 정사에 참내하되 모름지기 백성들의 뜻을 받들어 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오.》

그리고 그날로 곧 조정에 나와 일을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안류는 처음부터 그것을 사양하였다.

《대왕의 분부가 그러실진대 어찌 그 어지신 뜻을 함부로 거역하겠소이까. 허나 저는 사람됨이 어리석어 도저히 그런 중임을 담당할 능력이 없는것으로 아뢰웁니다. 하기는 제가 각 부 백성들과 얼마간 뜻이 통하는바 없지 않사오나 어찌 나라일을 함께 의논할수 있겠소이까. 그러니 달리 적당한 인재를 찾으심이 어떨가 하웁니다.》

그러면서 그는 을파소라는 사람을 천거하였다.

《듣건대 압록강가 좌물촌이란 곳에 을파소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류리왕을 모시던 어진 재상의 후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조금

도 자기의 지체에 대한 자량이 없을뿐아니라 일찍부터 세상일에 뜻을 두지 않고 혼자서 밭을 갈고 곡식을 심어서 가꾸며 살아가고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천성이 강의하고 지략이 남다르다 하오니 대왕의 기대와 백성의 념원을 위하여 인재를 찾는다면 그를 내놓고 다시 없는것으로 아됩니다.》

왕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는 곧 사람을 좌물촌으로 보내여 그 뜻을 말하고 나와주기를 청하였다.

《상감의 분부가 그러시다면 어찌 백성으로 이를 거역하겠소. 아무튼 한번 나가보기로 하지요.》
을파소는 부득이하어 그에 응하였다.

그는 곧 왕궁에서 온 사람을 따라갔다.

그의 차림은 여느때와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낯은 관과 흙이 묻은 해어진 옷, 느릅나무껍질과 같이 거친 손이 어디로 보나 시골에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는 촌사람이었다.

왕은 그를 정중하게 맞으며

《내 선생을 이렇게 나오라고 한것은 다른 뜻이 아니요.》 하고 절절히 청을 하였다.

《내 일찌기 선왕이 남긴 뜻을 받들어 만민의 우에서 정사를 베풀제 원래 덕이 박하고 재질이 부족한지라 나의 힘으로써는 도저히 백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길이 없음을 마음아프게 생각하고 있었소. 그러다가 선생이 나라를 크게 도울 재주를 지니고도 헛되이 산골에 숨어산다는 말을 듣고 선생의 도움을 받을가하여 이렇게 나오라고 하였는데 다행히 선생은 나의 이 소청을 저바리지 않으니 비단 나하나만이 아니라 널리 만백성을 위하여 즐거운 일이라 할것ियो. 청컨대 선생의 도움을 받고저 하니 힘을 다하여주시오.》

그런 다음 왕은 중외대부에 다시 우태(우의정)의 벼슬을 주려고 하였다.

그의 생각에는 국가가 처한 형편으로 보아 비록 왕의 부탁이 없다 하더라도 일찍부터 생각이 없지 않았으나 중외대부의 벼슬과 그 직권으로써는 도저히 당면한 위기를 처리할수 없을것 같았다. 그에게는 자기의 큰뜻을 충분히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그에 해당하는 자리가 필요하였던것이다.

이윽고 을파소는 입을 열었다.

《대왕의 각별한 분부이시라 어찌 백성된 몸으로서 거역할 생각이 있겠소이까마는 소신의 부족한 힘으로써는 도저히 대왕의 엄령을 감당하기가 어렵겠사오니 대왕께서는 그런 큰일을 벌리시자

면 달리 지혜로운 사람을 찾으시와 그에게 부족을 느끼지 않을 높은 벼슬을 주시는것이 앞서는 일인가 하옵니다.》

그는 솔직하게 자기의 의도를 말하였다.

그의 뜻을 짐작한 왕은 서슴지 않고 다시 그보다 훨씬 높은 벼슬을 을파소에게 주었다.

《만일 선생의 벼슬이 부족하다면 내 어찌 벼슬 자리를 주지 않으리요.》

그리하여 을파소는 곧 정사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왕의 시책을 받들어 먼저 높은 관리들과 왕의 인척들이 정사를 마음대로 처리하는 폐단을 없애고 새로운 체계를 세우기에 힘썼다.

그러니 높은 관리들과 왕족들사이에서는 물론이 일어났다.

《이제 을파소의 처사를 보건대 나라의 정치를 개혁한다는 명색으로 조정의 위신과 종실의 존엄을 무시하고 한갓 백성들의 요구밖에 들어주는것이 없으니 이는 백성을 교만방자하게 하여 나라의 처지를 그르칠 근본으로 될줄로 아됩니다.》

이렇게 왕에게 힐난을 하는자가 한두사람이 아니었다.

그렇지만 왕은 그런 말을 용납하지 않았다.

《국상의 처사에 대하여 이러쿵저러쿵 시비질을 하는자는 귀천의 여부를 묻지 않고 당자는 물론 그 일쪽까지 죄를 물올터이니 그리 알라.》

왕은 어디까지나 을파소의 처사에 찬동하여 그를 지지하였다.

을파소는 감격하였다. 그는 가까운 친우에게 자기의 소견을 말하였다.

《사람이란 때를 만나지 못하면 스스로 물러가 촌백성으로 될것ियो 때를 만나면 나아가 봉사함이 땃땃한 일인지라 이제 상감께서 나를 신임하심이 이와 같이 두터우실진대 내 이에 보답하기에 어찌 물불을 가리리오!》

그는 왕을 도와 지성을 다하였으며 정사와 엄격한 상벌을 베푸는데서 누구에게나 귀천을 가림이 없었다.

왕은 만족하였다. 그는 안류를 불러서 말하였다.

《내 그대의 말이 없었던들 어찌 을파소 같은 훌륭한 재상을 얻을수 있었겠는가. 오늘 내가 을파소와 함께 얻은 공적을 론할진대 또한 공의 공적이 없다고 아니할수 있으리오.》

그리고나서 그에게 대사자의 벼슬을 주었다.



정광홍 작

김기범 역

《웬일이요? 두빈 동무.》

라장청 중대장은 문을 열고 들어서는 사나이를 보자 깜짝 놀랐다.

물날은 신발을 신고 령장도 없는 퇴색한 군복을 입고 서있는 그의 얼굴은 펍 수척해서인지 별로 컴컴해보였다.

무슨 일로 해서 저렇듯 침울해서 뺨을 실룩거리기만 하는가.

몹시 궁급해난 중대장은 급히 두빈을 자리에 앉히었다.

이끄는대로 털썩 주저앉은 두빈은 멍하니 60미터 포탄깎지로 만든 등잔만 바라보았다.

중대장은 그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음을 제격 알아차렸다.

《두빈이, 고향에서 무슨 일이 생겼나? 직방 말하라니까. 여보게!》

그러자 두빈은 한마디한마디 또박또박 힘주며 말했다.

《저에게 표창을 주십시오.》

표창? 제대된지 이제는 2년나마 된 병사가 다시 부대에 와서 훈장을 달라고 제기하다니? 원참. 통담을 해도 정도가 있지!

그러나 고민의 흔적이 짙은 그의 기색은 결코 통담이 아님을 말해주고있었다.

2년전의 일이었다.

로산전투라면 중국사람이면 다 아는 치렬한 싸움이였다.

여기서 라장청의 중대는 1028고지를 빼앗는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

런대정치부에서는 병사들의 군공을 표창하여

적병 두놈을 죽인 병사에게는 3등공신, 세놈을 죽인 병사에게는 2등공신, 일곱놈이상을 죽인 병사에게는 1등공신의 칭호를 주기로 결정했다.

그때 4분대장이였던 두빈은 분대원들을 이끌고 선참으로 적참호에 뛰어들어 육박전을 벌렸다.

혼자서 다섯놈을 까부신 두빈은 그만에야 적들의 수류탄파편에 두다리에 부상을 입고 이마의 오른쪽부위에 총탄이 스치였다.

그가 세운 공로는 2등공신이 되기도 남음이 있는 당당한 위훈이었다.

그러나 평가사업이 진행되자 런대정치부에서는 다시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즉 인원수의 25%만 훈장을 받을수 있다는것이였다.

두빈의 중대는 모두 94명이였으니 새 규정에 따르면 23명정도밖에 표창이 차례지지 않는것이였다.

과연 어느 군관, 어느 병사를 막론하고 죽기로 싸우지 않은 사람이 있었던가.

모두가 한사람같이 사생결단 총창으로 원썬들을 무찔렀고 복수의 총탄으로 불벼락을 안겼다.

이 싸움에서 또 얼마나 많은 병사들이 영영 전우들의 곁을 떠났던가.

물론 그들중에는 적 한놈 죽이지 못하고 희생된 전우들도 없지는 않았다.

중대정치부에서는 새로 나온 규정을 놓고 갑론을박하며 좀처럼 표창명단을 아귀짓지 못하고있었다.

그러던중 점차로 군관들보다 전사들에게 우선 훈장을 내신하고 특히는 희생된 렬사들을 많이 내신하자는데로 의견이 모아지게 되였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두고 중대안에서는 좋지 못한 말들이 떠돌기 시작했다.

바로 이러한 때 두빈이가 중대정치부에 찾아와 이렇게 제기했다.

《저 대신 희생된 동지들에게 표창을 주십시오.》

고지탈환전투에서 당당한 공로를 세운 두빈이였건만 그는 장렬하게 목숨을 바친 전우들이야말로 자기보다 우에 놓아야 할 렬사라고 간주해오고있었다.

더우기 찾아온 렬사의 가족들이 낯설은 묘비앞에 마주서서 눈물을 흘릴 때 두빈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달려왔던것이다.

그의 제의는 전혀 뜻박이어서 중대장 라장청을 아연케 했다.

그후 두빈은 크고작은 회의들마다에서 《모범군인》의 전형으로 평가되었으며 온 중대가 그의 양보를 두고 한동안 떠들썩했다.

이렇게 되어 두빈은 《평범한 병사》로 제대되어 고향에 돌아갔다.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돌아와 기가 막히는 요구를 하고있다.

사실말이지 라장청은 두빈이가 다른것을 제기했으면 얼마든지 들어줄수 있었다.

영예군인증이라든가 치료비 같은것이라면 몰라도 2등공신칭호를 달라고 하니 이보다 난처하고 안타까운 일이 또 어디 있겠는가.

게다가 제대된지 2년이 지난 그에게 누가 표창을 주겠다고 꽤히 응하랴.

그러나 두빈은 한사코 떼를 쓴다. 2등공신이 아니래도 좋으니 3등공신칭호라도 달라, 받기 전엔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다는것이다.

중대장은 하는수없이 받아들였다. 《중소. 좀 토론해보지요.》

그러자 갑자기 두빈의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두빈은 다시 옛 중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는 분대마다 돌아다니며 정돈되지 못한 침구류를 보면 제손으로 바로잡아주기도 하고 부엌발이 가물에 마르면 물통을 메고 나서군 하였다.

두빈이가 제일 생각해주는 병사들은 추억도 정다운 4분대였다.

분대원들은 모두가 신입병사들이였고 분대장조차도 두빈이가 모르는 젊은이였다.

분대원들도 역시 그를 따랐고 자기들의 속생각도 꺼리낌없이 말할 정도로 친숙해졌다.

《두빈동지, 표창은 왜 다시 받으려고 합니까?》

분대장이 눈을 깜박이며 온 중대의 관심사로 된 문제를 가식없이 물었다.

《당원이 되는가, 표창을 받는가 하는거야 다 정치적평가에 불과하지요. 실리를 따지면야 왜 동진 그때 공로를 양보하는 대신 소대장직위를 달라고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라면 그렇게 했겠습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애송이병사들도 있었다.

그 병사의 아버지는 어데서 렬관을 운영하는데 앞으로의 일을 내다보고 아들을 군대에 보냈다고 한다.

돈은 많아도 권세가 없으면 맥을 추지 못한다는 아버지의 선견지명을 고스란히 믿고있는 이 병사는 전쟁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 큰 간부가 될것을 꿈꾸고있었다.

《나라면 말입니다, 치료비를 듬뿍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암팡진 병사가 말참네를 하였다.

《동무들이 될 안다고 그래. 영?》

불쑥 화를 내는 두빈의 모습앞에 그들의 목은 순간에 자라목이 되어 움츠러들었다.

두빈은 자기의 속을 활 터놓고싶었다.

그러나 그의 입술짹으로 새어나온 말은 간단하기 그지없었다.

《우리 고향에선 공신들을 존대한다 말ियो.》

매일 두빈은 낡은 군복을 단정히 입고 군모도 규범대로 쓰고 다니었다.

마치 언제라도 훈장받을 준비가 되어있음을 과시하는듯 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날은 지나가도 종무소식이였고 그로 하여 그는 밤잠도 이루지 못하고 뜬눈으로 새워왔다.

마침내 자제력을 잃고만 두빈은 중대장을 찾아왔다.

《중대장동지. 제가 말한 일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소.》 중대장은 눈섭을 찌프렸다.

(날 얼려넘기려 하는가?) 두빈의 마음은 무척 아팠다.

그러나 중대장은 결코 얼려넘기려고 하지 않았다.

련대정치부에 두빈의 일을 상정시키자 한사람이 죽도 밥도 아닌 미적지근한 소리를 하였다.

《이제 또 두빈동무와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하겠소?》

음미해보면 이런 군력사에 없는 전례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두빈은 천근만근 무거운 발을 가까스로 옮기었다.

4분대장은 병실에 홀로 남아있는 이전 분대장의 눈에서 구슬같은 눈물이 똑똑 떨어지는것을 보았다.

원췌의 총탄이 머리뼈를 부시고 두다리를 부상당하였을 때에도 신음소리 내지 않던 모범전투원이 울고있다.

영웅의 눈물은 총알보다 무겁다고 했다!

두빈의 그 피로운 심정을 헤쳐보기로 하자.

두빈은 가슴가득 부푸는 희망을 안고 고향으로 달려갔다.

후방에서는 로산전투참가자라면 제일 반겨맞아 주고 존대해주었다. 그러나 그보다도 병사를 더 가슴높이게 한것은 아름다운 처녀였다,

일구월십 자기를 기다리고있을 애인, 전호벽에 기대어 하늘가에 그려보던 처녀, 두빈은 어서 빨리 집에 가서 그 처녀와 함께 가정을 이루고 새 사업을 힘에 부치도록 해제끼고싶었다.

나홀길을 내쳐 달려오다싶이했어도 피곤이란 조금도 모르는 두빈이를 마을사람들이 떨쳐나서 맞이했다.

로산의 병사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사처에서 모여든 사람들로 하여 병사의 주변은 립추의 여지없이 붐비었고 달을 둘러싼 별마냥 두빈은 한 가운데 퍼터버리고 앉아 전투담을 시작했다.

이야기가 끝나자 기다렸다는듯이 질문소나기가 내렸다.

로산의 산세가 어떻소, 비탈이 가파롭다는게 사실이요? 놈들은 죽은 사람을 잡아먹는다는데 그게 정말이요? 비오듯 퍼붓던 질문들이 이제는 바닥이 나기 시작할무렵 누군가 물었다.

《두아저썬 공신이나요?》

두빈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러자 선망과 존경의 눈빛들이 하나둘 실망과 의심의 눈길로 바뀌기 시작했다. 알고보니 두빈은 영웅도 아니고 훈장 하나 없는 그저 허풍쟁이에 불과했군!...

강철같은 두빈이였어도 그때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더우기 분통이 터지는것은 새 일감을 달라고 현사무실을 찾아갔을 때 그곳 직원이 던진 말이였다.

《지금은 일자리가 다 찼소. 좀 후에 봅시다.》

《여보시오, 당신들은 로산에서 싸운 병사들을 우선적으로 대해주어야 한다는걸 모르요?》

그 직원은 이 《평범한 전사》를 결눈질로 훑어보며 끔직끔직 말했다.

《동무! 우린 공신들만 우선 배치하고 환영한단 말이요. 동문 아무 공도 세우지 못했지.》

《세웠소! 그러나 난 양보했던 말이요, 양보!》

《양보?》

두빈의 말을 그 사람은 참으로 이해할수 없었다.

공로는 두빈이가 세웠는데 평가는 다른 사람이

반게 하다니? 세상에 이런 얼토당토한 일도 있는가?!

결국 두빈은 하는수없이 집에 돌아와 농사일을 손에 잡았다.

산골농사가 아무리 힘겹다 해도 고생속에 자랐고 싸움에서 단련된 두빈이에겐 힘든 일이 아니였다.

하지만 속담에 믿던 도끼에 발잔등 찍힌다는 말이 있다. 두빈이라는 재목을 찍어뜨린 도끼는 바로 두빈이의 애인이였다.

처녀는 영웅남아다운 기질을 가진 대장부를 바라고있었다. 두빈의 모습에서 한명의 《호걸》을 보았고 미래의 《영웅》을 사랑했다.

그러나 지금 눈앞에 나타난 두빈은 아무런 공로도 세우지 못했을뿐아니라 도리어 몸에 부상만 가득 입고 나타난 졸장부였다.

처녀의 부모들과 형제들이 그리고 동무들이 글을 쓰고 반대했다.

《그런 사람과 아예 결혼할 생각을 말아라. 남자란 전투장에 나갔다가 공신이 되여야 남자지!》

《로산전투에 참가해서 작은 훈장 하나 받지 못한 녀석이 무슨 구실 한단 말이냐.》

《그 사람은 겁쟁이인 모양이야.》

《아니요. 난 겁쟁이가 아니란 말이요!》 라고 속으로 부르짖는 두빈의 비통한 웨침은 한갓 시라소니의 변명으로밖에 되지 않았다.

끝내 처녀는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갔다.

처녀와 이웃들의 행동은 두빈을 온밤 자지 못하게 했다.

두빈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후회했고 자기 자신을 마구 욕질했다. 다시 부대에 가서 공신칭호를 받아오자, 그래서 그 처녀에게, 마을사람들에게, 현사무실의 그 직원에게 똑똑히 보여주자. 이 두빈이가 어떻게 싸웠는가를!

바로 이렇게 되여 두빈이는 부대로 온것이였다....

두빈의 신상에 일어난 일을 잘 아는 라장청중 대장도 차마 그를 되돌려보낼수 없었다.

그러던차에 전투명령을 받았다.

싸움터로 떠나는 대오속에는 두빈의 모습도 보였다.

이번 싸움에서 큰 공을 세워 보란듯이 훈장을 번쩍이며 고향에 가려는 투지가 그의 얼굴에 서늘하게 비껴있었다.

부대가 명령받은 지점에 이르자 적들은 마침이라는듯 습격을 했다.

온밤 진지는 지척도 가려보지 못할 정도로 안개가 가득히 덮이였다.

획획 날아드는 총탄과 수류탄으로 보아 큰 규모의 격전임을 짐작할수 있었다.

4분대가 받은 명령은 진지의 제일 앞코숭이에 있는 봉우리를 사수하는 것이었다.

캄캄칠야, 짙은 안개, 세찬 바람, 정적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여기저기서 화광이 충천했다.

오랜 싸움군인 두빈은 이번 싸움이 한두번의 맛볼질로나 그만둘 그런 규모의 전투가 아님을 직감했다.

오직 두빈이만이 다가오는 처절한 싸움을 느낄 수 있었다.

《침착하라구, 동무들.》 두빈은 분대장인듯이 말했다.

《놈들도 죽기를 싫어하거든. 수류탄과 탄알들을 준비하라구.》

《포사격에 주의할것!》 분대장이 달려오며 매전사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두빈의 앞에 이르자 분대장은 빙긋이 웃었다.

《두빈동지, 동지는 우리들에게 진짜배기 싸움군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난 동지가 부럽습니다. 마음놓으십시오. 이번 싸움이 끝나면 동지를 꼭 공신으로 우리가 제기하겠습니다. 상부에서 주지 않으면 제가 받은 것이라도 말입니다.》

불시에 적들의 포사격이 시작되었다.

보이는건 자욱한 먼지, 들리는건 신음소리와 비명소리였다.

《빨리 엄폐호로!》 분대장이 결쾌있게 명령하였다.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총탄이 그의 복부를 뚫었다.

아버지가 려관주인이라는 애송이병사가 분대장의 몸이 피에 젖는것을 보고 엉엉 울기 시작했다.

《제기랄! 울지 말어. 빨리 엄폐호로!》 두빈은 썩 소리치고나서 분대장을 안았다.

하해지는 입술사이로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전 일없습니다. 두빈동지, 우리 분대를 맡아지휘해주십시오. 그들의 운명이 동지의 손에 쥐여있습니다. 동지의 공로는...》

말소리가 들릴락말락 약해지더니 멎고말았다.

심장도 더는 뛰지 않았다.

숨을 거둔 전우를 내려다보는 두빈의 가슴은 분노로 터질것만 같았다.

《아! 으흑...》

4분대장에게는 앞을 못보는 아버지가 계신다고 했다.

앞 못보는 늙은이는 지금 고향에서 공을 세우고 돌아올 아들을 기다리고있다.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자기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신 아버지를 여생이나마 편안히 모시겠다고 늘쌍 외우던 젊은이가 이렇게 눈을 감지 못한채

숨을 거두었다.

이제 와서는 고향으로 갈수 없게 된 렬사여!

림종을 앞둔 분대장의 머리에 떠오른것은 자기 분대원들의 생명과 두빈의 표창내신문제가 아니었던가. 무수한 물줄기들이 캄캄한 밤하늘을 갈기갈기 찢었고 쉽없이 터지는 포탄소리에 고막이 터져나갈 지경이었다.

고지는 가득히 파헤쳐진 구덩이와 파편들이 지저분하게 한벌 덮였다.

대지가 몸을 비틀며 몸부림쳤고 산이 통채로 무너져내리는듯 싶었다.

포격이 끝나자 적들이 게바라올라왔다.

참호는 날날이 파괴되었고 남은 전사는 불과 5명뿐이었다.

분대장의 희생, 애인의 배반, 마을사람들의 경멸, 이 모든것이 한꺼번에 우욕- 떠오르자 두빈은 벌커덕 자리에서 뛰쳐일어나 앞에 있는 바위로 달려갔다.

그가 휘두르는 총구에서 총탄들이 노성을 치며 튀어나왔다.

총구에서보다 더욱 세찬 물줄기가 두빈의 두눈에서 뿜어져나왔다.

적들의 사격이 모두 그에게로 집중되었으나 두빈은 두려운줄 몰랐다.

이상한 예감에 흠칫 뒤를 돌아보니 그 애송이병사와 암광진 병사가 뒤에 바짝 붙어있었다.

《돌아가오, 어서! 자기 위치를 버리면 처벌하겠소. 어서!》

그는 목청껏 고향쳤다.

두 병사는 그의 명령에 복종했다.

그들은 함께 적들을 답새겼다.

불쑥 두빈은 정갱이가 호되게 얼어맞아 마비되는것을 느꼈다. 그는 쓰러졌다.

중원부대가 달려왔고 싸움은 끝났다.

중대장은 담가에 실려 후송되는 두빈의 피투성 이상처를 살펴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번 전투에서 그의 중대는 거의 3개 중대가량의 놈들을 살상했다.

4분대만도 30여놈을 쓸어눕혔다.

그러나 희생도 많았다.

진지에서 철수하는 인원은 한개 소대도 되지 못하였다.

두빈의 상처는 그닥 심하지 않아 십여일후에 퇴원할수 있었다.

련대정치부에서는 이번 싸움에서 특출한 용맹을 떨친 그에게 2등공신칭호를 수여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밖에도 여러명의 모범전투원들이 세운 공로에 따라 평가들을 받았다.

련대의 결정을 듣고 라장청은 물론이고 4분대

전사들과 중대성원들이 모두 두빈이를 축하해주었다. 뜻밖에 찾아든 기쁨으로 해서인지 두빈의 표정은 덤덤해있었고 지어 멍청해진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모두들 그럴수 있으리라고 너그럽게 생각했다.

련대에서는 모범전투원들을 축하하는 소박한 연회를 마련했다.

뒤끝에 훈장들을 수여하기 시작했다.

한명 또 한명 주석단앞을 지나서 오는 전사들의 가슴마다에서 훈장들이 빛을 뿌리었다.

그런데 두빈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거듭 불렀으나 보이지 않는것은 마찬가지였다.

급해난 중대장은 제가 직접 나서서 찾기 시작했다.

그 누군가가 배낭을 메고 떠나가는 두빈이를 보았다고 알려주자 그는 충충히 두빈의 병실로 뛰어갔다.

먼저 눈에 띈것이 책상우에 있는 한장의 편지였다.

《중대장동지, 간절히 부락합니다. 제가 받게 될 2등공신칭호를 희생된 4분대장의 묘비에 붙게 새겨주십시오.》

라장청의 얼굴은 환한 달아올랐고 가슴은 아팠다. 세차게 고동치는 심장이 이제라도 뛰어나올것 같았다.

무엇때문에 두빈은 자기에게 차려진 공신칭호를 또다시 양보하는가. 그가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칭호가 아닌가. 바로 그것때문에 겪지 않아도 될 곡절을 겪어야 했고 마시지 말아야 할 피로움의 쓴 술도 마시지 않았던가.

라장청은 다는 몰랐다.

자기에게 다시금 2등공신칭호가 수여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두빈이가 제일먼저 생각한것은 나라를 위해 목숨바친 련사들이었다.

더우기 눈앞에 밝혀든것은 4분대장이었다.

그래서 연회에 참가하기 앞서 그는 홀로 조용히 희생된 전우들의 묘를 찾았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탓에 련사들은 제대로 꾸러져있지 못했다.

매 봉분앞에 하나의 나무표말, 이것이 전부였다.

그 비목마다에는 애국렬사의 이름, 번호, 직무, 출생지와 나이, 희생된 장소와 시간이 써여져있었다. 공신칭호를 받은 전사들인 경우에는 붉은 글자로 칭호와 그 등급이 새겨져있었다.

싱싱한 송진내가 풍기는 하나의 나무표말앞에 이르자 두빈은 모자를 벗고 묵묵히 서있었다..

(분대장동무, 날 향해 쏜 총탄을 동무가 막았구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무덤은 내것이 되었을거요.)

그는 묘비를 눈이 아프도록 바라보았다.

묘비에 새겨진 글들이 흐물흐물거리는데싶더니 마치 분대장의 몸에서 솟구치던 붉은 피방울처럼 보이였다.

그러더니 그 피방울들이 주르륵 흘러내려 하나의 단어를 이루며 굳어지는것 같았다.

《2등공신》

두빈은 뿌잇해지는 눈을 닦으며 다시 묘비를 바라보았다.

순간 그는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렇다. 그 묘비에는 온통 까만 글자뿐이였다.

다시 살펴보았으나 붉은 글자는 한글자도 없었다.

《으흑!》

두빈은 무릎을 꿇고 4분대장의 비목을 어루스고 또 쓸었다.

눈물방울이 툭툭툭 두빈의 가슴을 적시였다.

《상부에서 주지 않으면 제거라도 양보하겠습니다.》, 《분대병사들의 운명이 동지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분대장의 마지막말이 귀를 파고들며 두빈의 가슴을 갈가리 헤쳐놓았다.

고향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눈먼 아버지보다도 두빈이 자기와 애어린 병사들을 먼저 걱정한 젊은이! 아마 그래서 눈도 감지 못한채 숨을 거두지 않았을가.

두빈은 뒤로 한걸음 물러서서 옷매무시를 바로한 다음 천천히 오른손을 판자노리에 갖다붙였다.

영원히 잠든 전우에게 최대의 경의를 담아 경례를 하는것이다.

그리고는 편지 한장 남긴채 고향으로 떠나가고 만것이다.

라장청은 멀리서 아물아물 사라져가는 옛 전우의 모습을 보며 말없이 서있었다.

그의 뒤에는 중대병사들이 다가와서 떠나가는 두빈이를 뜨거운 눈길로 바라우고있었다.

문득 병사들은 자기의 옛 전우를 향해 경례를 하는 중대장을 보았다.

그러자 약속이나 한듯이 모두가 경례를 하였다.

병사에게 드리는 중대장의 경례, 로병에게 드리는 신입병사들의 경례, 희생된 련사들이 산 그에게 드리는 경례, 이것은 아직 그 누구도 받아보지 못한 값높은 표창이였다.

현대 영국의 대표적인 극작가 버너도 쇼우

쇼우는 94년간의 전 생애를 부르주아지의 정신적, 도덕적 타락, 제국주의 약탈성을 폭로 비판하는데 바친 극작가이다.

쇼우는 1856년 5월 26일 아일랜드의 더블린에서 출생하였다. 그의 아버지는 자그마한 사무소의 소관리였는데 수입이 변변치 않아 온 가족이 음악교원으로 일하던 어머니의 수입에 매달리게 되었다.

쇼우는 14살에 토지매매사무소에 취직되었다. 이 시기 그는 절대다수의 근로인민이 겪는 불행과 고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시기에 첨예화되었던 아일랜드민족해방투쟁에서 커다란 자극을 받게 되었다.

1876년 런던에 올라온 쇼우는 약 10년동안 독서와 사회문제연구에 몰두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설집작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이 시기 쇼우는 맑스의 저서들을 탐독하는 과정에 사회와 역사를 대하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었으며 생활의 목적과 의의를 어느정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쇼우는 당시 영국로동운동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다준 기회주의적이며 개량주의적인 단체인 《웨이비안협회》의 한 성원으로 되었다. 이 개량주의적단체에서부터 받은 악영향으로 하여 쇼우는 오래동안 프로레타리아혁명에 대한 불신감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1880년대에 쇼우는 《우둔한 결혼》(1880), 《사회주의애호자》(1884) 등 다섯편의 소설을 창작하여 일부 평론가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1885년부터는 음악, 미술, 연극에 관한 비평을 써서 신문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1892년에 창작한 희곡 《홀아비의 집》(1892), 《외젠부인의 직업》(1894) 등의 우수한 작품들을 선택하여 《유쾌하지 못한 희곡들》이라는 제목으로 희곡집을 출판하였다.

쇼우는 희곡집에 실린 작품들에서 영국부르주아지들의 치부의 원천에 대하여 혹독하게 비판하

였다.

1890년대 중엽에 창작한 《유쾌한 희곡들》에서 쇼우는 가정 및 결혼과 관련된 류리도덕적문제들을 보다 심화시키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쇼우의 희곡에서 비판의 예리성은 점차 사라져갔다. 이 시기에 창작된 희곡 《인간과 초인간》(1903), 《존 불의 다론성》(1904), 《바바라 소좌》(1905) 등의 작품들에서 쇼우는 절실하게 해결을 기다리는 사회적문제들에서 물러나 주로 《생명력》에 관한 자기의 철학과 도덕문제를 많이 론의하였다.

1914~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은 쇼우의 세계관과 창작활동에서 커다란 변화를 가져온 계기로 되었다.

쇼우는 이 시기 식민지쟁탈을 위한 제국주의자들의 광적인 전쟁책동에 분노하였다. 특히 쇼우가 그때까지 관계를 가지고있던 《웨이비안협회》의 개량주의자들이 제국주의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대하여 극도의 혐오를 느끼게 되었다. 하여 그는 《웨이비안협회》와 결별하고 제국주의전쟁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전후에 창작된 희곡 《오거스트는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고있다》, 《심장이 터지는 집》(1919), 《성 존》(1923), 《사과달구지》(1929), 《쓰지만 진실이다》(1932) 등의 작품들에서 쇼우는 제국주의전쟁광신자들을 폭로비판하는 한편 《웨이비안협회》의 개량주의자들에 대한 환멸을 표현하였다.

이 시기 작품들에서 자본주의세계에 대한 작가의 혐오감은 극도에 이르고있었지만 그와 반면에 새로운 출로를 뚜렷하게 인식하지 못한것으로 하여 절망과 방황의 감정도 또한 농후하게 나타나고있다.

쇼우는 1950년 사망직전까지 붓을 놓지 않고 정열적인 창작활동을 벌리었다.

유모아

리발사

녀자: 하루에 몇번 수영을 껴습니까?

남자: 40번 내지 50번...

녀자: 당신은 지독한 털보로군요.

남자: 아니요. 난 리발사니까.

경구, 격언

○ 독자는 문학을 위한 최고의 심판관이며 최고의 법전이다.

○ 시인은 그 누구보다도 자기 시대의 아들이 되어야 한다.

○ 예술의 목적은 공상이 아니라 현실생활이

다.

○ 론쟁에서는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고 칭호도 이름도 없다. 오직 진리만이 중요하며 진리 앞에서는 모두 평등하다.

장편소설 《봉쇄》

장편소설 《봉쇄》는 알렉산드르 보리쑤위치 차프스끼 (1913~)의 장편소설이다.

그는 30년대부터 소설을 창작하였다. 레닌그라드태생인 그는 전쟁시기 고향도시에서 적의 봉쇄를 뚫기 위한 투쟁을 시민들과 함께 하였다. 이 체험에 기초하여 이미 전쟁시기부터 3부작 《레닌그라드에서 있는 일》(1944), 《리다》(1945), 《평화의 나날》(1947)을 썼으며 전후생활에 대하여 남부싸하린의 실정을 그린 장편소설 《여기는 벌써 아침이다》(1949)와 짧은 기사의 첫 사회생활체험을 그린 《시련의 한해》(1957)를 썼다. 장편소설 《봉쇄》(1968~1975)는 그의 대표작이다.

소설의 주인공 즈바킨체브소좌가 레닌그라드군관구 일군들과 함께 핀란드전쟁총화를 하는 크레믈린회의에 참가하여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것으로부터 소설은 시작되어 1943년 1월 19일 레닌그라드봉쇄돌파작전이 승리하는데서 끝난다. 공병인 즈바킨체브가군관구에 돌아와 루가방항으로 침공하는 파쑈군을 저지시키기 위한 전투에 참가하고있을 때 아나톨리와웨라가 여름방학에 촌에 갔다가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도중 도이첼란드침략군의 선봉 단비쯔의 땅크부대와 조우하여 시련을 겪는 사건이 벌어진다.

히틀러는 레닌그라드를 먼저 장악할 계획밑에 레예브를 이 전선사령관으로 파견하며 레예브는 포위망을 점차적으로 좁히면서 필사적으로 달라붙는다. 주당비서 주다노브, 시당비서 와스네쑤브는 군대와 시민을 총동원하여 도시를 방어한다. 레닌그라드군관구는 전선으로 개편되고 사령관은 위로실로브로 교체된다. 그러나 봉쇄망은 점점 좁아지며 적의 공급만이 아니라 포탄이 시 변두리에 와서 떨어진다. 최고사령부에서는 주쑤브를 사령관으로 파견한다. 주쑤브는 전선의 군대와

간부들, 인민들을 방어자세로부터 공격정신으로 무장하도록 하며 적의 전략전술적의도를 꿰뚫어 보고 도시를 방어하는 동시에 공격할수 있는 볼쑤브고지와 같은 요충지대를 강화하며 전투에서 적을 타격한다. 다시 호진, 페쑤닌스끼 등이 사령관으로 된다. 그러나 도시는 라도가호를 제외한 모든 룩로가 다 차단된 엄중한 사태에 빠진다.

식량공급기준은 다섯번으로 줄어 노동자는 하루에 빵 250그램, 부양가족은 125그램으로 된다.

무수히 굶어죽고 얼어죽는 사람이 생긴다. 시민의 불굴의 의지, 뜨거운 애국적열정은 로학자 표도르 왈리쯔끼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원사인 그는 병사의 외투를 입고 시민들과 함께 싸웠으며 승리의 래일을 내다보면서 개선문의 설계를 그린다. 라도가호의 얼음길을 리용하여 최소한의 식량을 운반한다. 이러한 시기에 고워로브가 사령관으로 와서 최고사령부의 작전계획을 실현한다. 그는 먼저 도시의 방어진지를 철옹성같이 다지고 최대의 힘을 동원하여 공격준비를 다그친다.

이 준엄한 시기에 그는 입당청원서를 낸다. 마침내 봉쇄된지 900 여일만에 도시는 포위를 돌파한다.

기본사건은 레닌그라드에서 벌어졌으나 소설에는 쑤도전쟁 전모가 반영되어있으며 적아의 최고뇌수부로부터 총참모부성원들, 전선과 군단, 연대와 중대의 병사에 이르기까지 대치되는 군대력량 전체가 등장하여 각계각층의 광범한 인민대중의 모습이 묘사되어있다. 소설은 당과 수령의 현명한 령도, 군대와 인민의 통일단결,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봉쇄가 돌파되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파쑈와 사회주의, 야수와 인간의 대결에서 사회주의, 인간의 승리를 형상한 작품이다.